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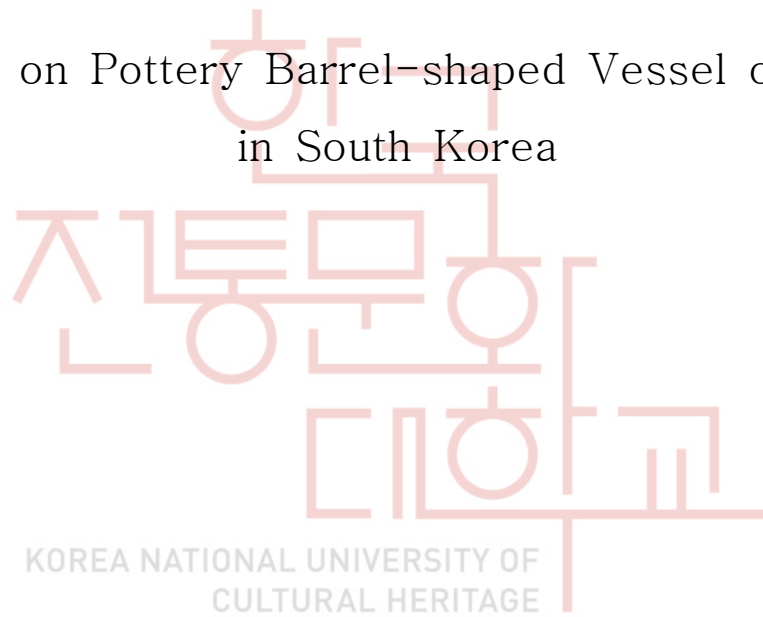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南韓地域 出土 古代 陶器장군의 研究

A Study on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in South Korea



韓國傳統文化大學校 大學院

文化遺產融合學科 考古學專攻

辛 娜 賢

2019 年 2 月

碩士學位論文

南韓地域 出土 古代 陶器장군의 研究

A Study on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in South Korea

指導教授 徐 賢 珠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辛 娜 賢

文化遺産融合學科 考古學專攻

2019년 2월

이 論文을 辛娜賢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8 年 12 月

심사위원장 鄭 惜 培



심 사 위 원 徐 賢 珠



심 사 위 원 趙 胤 宰



韓國傳統文化大學校 大學院

목 차

국문초록

I. 머리말	1
1. 선행연구 검토	3
2. 연구 범위와 방법	7
3. 세부 명칭 설정	8
II. 고대 도기장군 출토 유적 검토	11
1. 서울·경기지역	11
2. 충청지역	18
3. 전라지역	26
4. 경상지역	36
5. 강원·제주지역	58
III.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분포 양상	61
1. 제작기법 검토	61
2. 속성과 형식 분류	66
3. 형식변천과 단계 설정	72
4. 국가·지역별 분포 양상	81
IV.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과 사용	88
1. 기원	88
2. 사용	92
V. 맺음말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8
부록	110

표 목차

<표 1> 연구자별 도기장군 세부 명칭	10
<표 2> 연구자별 신라 적석목곽묘의 편년안 비교(金東潤 2009 수정 후 인용)	73
<표 3>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 속성표	110

도면 목차

<도면 1> 『화성성역의궤』 목기장군	1
<도면 2> 서울·경기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	16
<도면 3> 서울·경기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도판 축척 부동)	17
<도면 4> 충청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	24
<도면 5> 충청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	25
<도면 6> 전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	34
<도면 7> 전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	35
<도면 8>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도판 축척 부동)	53
<도면 9>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도판 축척 부동)	54
<도면 10>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3	55
<도면 11>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4	56
<도면 12>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5	57
<도면 13> 강원·제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도판 축척 부동)	60
<도면 14> 동체부 제작기법-일면폐쇄법 모습(임승덕 2011)	62
<도면 15> 폐쇄부 제작기법(1-홍성 남장리 2호 토광묘, 2-경주 금관총)	63
<도면 16> 구경부 제작기법-분할성형법 모습(1-경주 부지리 16호 석곽묘, 2-경주 화곡리 II구역 자연수로2)	64

<도면 17> 고대 도기장군의 동체부 형태 분류	67
<도면 18> 고대 도기장군의 구경부 형태 분류	67
<도면 19> 고대 도기장군의 견부와 저부 형태 분류	68
<도면 20> 동최대경/경경의 비율 히스토그램	69
<도면 21> 고대 도기장군의 경경의 너비에 따른 분류	69
<도면 22>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분류	71
<도면 23>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별 시기 분포	78
<도면 24>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변천(도면 S=1/20)	79
<도면 25> 고대 도기장군 형식별 분포양상(삼국시대)	82
<도면 26> 고대 도기장군 뚜껑 사용례	83
<도면 27> 고대 도기장군 형식별 분포양상(통일신라~고려시대)	87
<도면 28> 『서청고감』 주소부(周素缶)	89
<도면 29> 건륭황제 어제시가 적힌 견형호(堊形壺)(대만고궁박물관 소장)	89
<도면 30> 춘추시대 동욕부(銅浴缶, 珠海博物館 1997)	89
<도면 31> 중국의 견형호(姚江波 2007)	90
<도면 32> 양저평(楊哲峰 2000)의 견형호 형식분류안	90
<도면 33> 일본의 횡병(橫瓶)(角川書店 1981)	91
<도면 34> 장사마왕퇴 1호묘 출토 T자형 백화 속 견형호(최남미 2014 수정 후 인용)	93
<도면 35> 장군 또는 붓짐을 진 형상의 신라 토우	94
<도면 36> 견부에 귀가 달린 도기장군(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4)	94
<도면 37> 경주 천마총 출토 도기장군과 내부 난각의 모습(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95

【국문초록】

그동안 도기장군은 시대별로 도기를 집성·연구하는 과정에 포함되거나 중·근세 자료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인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시기나 국가·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연구와 출토 자료에서 발견되는 흔적 등을 검토해본 결과,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은 동체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작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동체부 형태는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구경부 형태, 견부와 저부 형태, 동최대경과 경경의 비율도 함께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합하여 모두 11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한 다음, 각 형식의 시기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은 3단계로 구분되었다. I 단계는 도입기로, 제작 과정이 복잡한 A형(양측면 둥근형)의 도기장군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 그 다음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A형 도기장군의 특징을 따르되,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B형(양측면 편평형)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II 단계는 성행기로, A형과 B형이 이어지면서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특징을 따르지 않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C형(한측면 편평형)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공존하게 된다. III 단계는 쇠퇴기로, 더 이상 A형의 도기장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C형의 도기장군만 제작·사용된다.

그리고 국가·지역별로 형식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반면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제작기법의 단순화와 사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띤 것 같이 직선을 그리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한편, 유공장군으로 분류되

는 Bb가2형식의 도기장군은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되는데, 백제 중심 지역에서 제작·사용되던 Aa가1형식의 도기장군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출현하는 도기장군은 Aa가1형식의 백제 도기장군으로, 중국의 견형호 제1류 A형의 이른 시기 것과 유사하다. 견형호가 일상용기에서 점차 도레기로 변화한 것을 고려하면 백제에서는 일상용기로 제작·사용된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된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형태적 특징 상 백제 도기장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발견되는 유공장군의 경우, 백제에서 도기장군을 제작·사용하고 있던 영산강유역과 달리 일본에서는 형태를 모방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의 유공장군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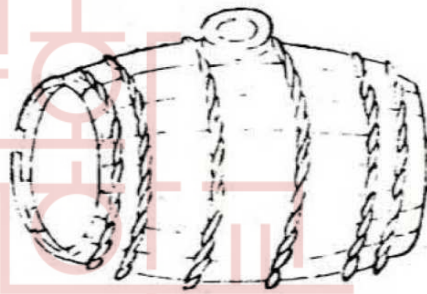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출토 유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백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한 반면 신라에서는 부장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 즉 제기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며 운반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므로,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를 멀리서부터 운반해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는 고신라의 도기장군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이 사용되었으며, 크기가 다양해지고 이전 시기만큼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지 않아 특별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도 담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일신라시대 후엽부터는 다른 형태·재질의 병이 제작·사용되면서 장군의 쓰임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 12세기 후엽부터 도기장군이 다시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발견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색인어】 장군, 도기장군,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I. 머리말

장군은 횡방향으로 긴 형태의 동체와 그 가운데에 구연부가 있는 병으로,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해 횡병(橫瓶), 장병(長瓶), 장본(長本¹⁾, 獐本²⁾³⁾, 장분(長盆)⁴⁾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뚝, 오줌, 거름 등을 나르는데 사용되어 ‘뚝장군, 오줌장군, 거름장군’으로도 불리어 왔다.

장군은 목기(木器), 도기(陶器)⁵⁾, 자기(磁器)로 제작되었다. 먼저 목기장군은 도기장군과 함께 근래까지 민가에서 물, 술, 뚝, 오줌, 거름과 같은 액체를 담는데 사용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러한 이유로 근래의 목기장군 모습은 비교적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쉽게 썩는 재질적 특성 때문에 원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기록을 통해서나마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원화성<도면1> 『화성성역의궤』 목기장군



木長本
以上見

- 1) 『日省錄』 正祖10年 1月 22日 …亮大小 祀享時 祭酒所盛. 以陶長本進排. 而凡陶器盛酒. 或有滲漏之患. 且乏精潔之美. 此後 祭酒封進時. 請以磁長本f 進排. …
- 2) 『世宗實錄』 卷27 7年 2月 乙卯條 …大中小櫟兒各五及大中小獐本【獐本, 酒器, 形如鼗鼓, 腹有口, 俗號獐本.】十事可也. …
- 3) 獐本에서 獐은 길거나 횡이라는 말과는 무관하지만 長과의 음운이 동일하므로 오기(誤記)이거나 음만을 차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송윤정 2012).
- 4) 『承政院日記』 冊405 肅宗 28年 閏6月 23日 …臣於日昨本曹開坐時, 有奉常寺移文, 祭酒所盛長盆三十介進排事, 而取考前例, 則曾在庚戌年, 自備局諸各司所納陶器, 盡數裁減, 而其中奉常寺所用, 甌·瓶·瓮缸·長盆等各樣器皿, 俱以全減懸錄, 成冊一通, 分明留置矣. …
- 5) 본고에서는 ‘도기’를 고려시대 이후 제작된 자기와 비교하여 태토, 유약, 굽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경기도자박물관 2008), 가마 안에서 소성되어 매우 단단하고 선사시대의 토기(土器)와 구분되는 질그릇(윤용이 1991; 강경숙 2012)으로 정의하였다.

의 축조 과정을 적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그 모습이 실려 있다(도면 1). 이에 따르면 목기장군은 도기장군이나 자기장군과 달리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사장에서 물을 저 나르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자기장군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부터 분청사기와 백자로 제작되었다. 수량이 많지 않고 편년자료가 소수여서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최남미(2014)에 의해 조선시대 자기장군의 변천, 기원, 사용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에 따르면 조선시대 자기장군은 삼국시대 백제 장군에서 기원하였으며, 제사에 필요한 제주(祭酒), 진유(眞油), 강심수(江心水)를 저장·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도기장군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근래까지 사용되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소멸하지 않고 확인된다. 그러나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제작기법이 단순하지 않고 기형상 보관이 어려운데도 왜 사용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례는 꽤 많이 있었지만 출토지가 명확한 사례가 매우 적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다행히 최근 발굴 자료가 증가하여 도기장군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수량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발굴 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최철희(2004), 서현주(2006), 송윤정(2012), 최남미(2014), 정춘택(2017) 등에 의해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도기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 장군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변천이나 기원, 사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중·근세 자료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다보니(최철희 2004; 송윤정 2012; 정춘택 2017), 다른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인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대 도기장군은 장군의 기원과 사용문제를 풀어낼 열쇠이며, 목기·자기장군 또는 중·근세 도기장군의 계통과 변천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고대 도기장

군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천과 국가별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기원과 사용문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검토

도기장군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대별로 도기 자료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 장군이 포함되어 간략하게 형식분류되거나 변천 및 사용문제가 언급된 경우이다. 최철희(2004)는 고려시대 도기의 형식을 분류하고 변천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말여초기부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도기장군 12점을 기형의 측면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A형식은 양측면이 모두 둥근 것, B형식은 양측면이 모두 편평한 것, C형식은 한측면은 둥글고 다른 측면은 편평한 것이다. 그는 나말여초기 유적에서 도기장군이 확인되기 때문에 삼국시대와 나말여초기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장군이 계승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서현주(2006)는 영산강 유역의 토기의 변천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삼국시대 백제에서 확인되는 도기장군 20여 점을 연구하였다. 그는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견부와 저부가 둥근 편이며, 양쪽 측면이 둥글게 처리되어 원저호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을 A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견부와 저부가 편평하며 한측면이 편평한 것은 B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A형 중에서도 양측면이 둥글게 처리된 것은 a형으로, 한측면이 편평면에 가까운 것은 b형으로 세분하였다. Aa형 중에서 구연부가 긴 편이어서 호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을 이른 것으로 보았으며, 점차 구연부가 짧아지며 동 최대경에 비해 동체고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Ab형이 점차 B형으로 변한다고 추정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에서는 백제 한성기 완형 유물을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백제 한성기에 출토된 도기장군 20점을 기형의 측면 형태를

기준으로 형식분류하였다. I 형식은 횡장형으로, 10점(50%)이 분류된다. II 형식은 편구형으로, 5점(25%)이 분류된다. III 형식은 편면형으로, 5점(25%)이 분류된다.

최남미(2014)는 조선시대 자기장군의 기원을 추정하기 위해 도기장군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기장군의 사용과 변천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는 삼국시대 도기장군이 출토되는 유구가 분묘, 제사유구임을 미루어볼 때 주로 음식 저장용, 부장용,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 백제와 신라의 도기장군 간에 차이가 있는데, 백제의 도기장군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반면, 신라의 도기장군은 형태에 있어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일신라~고려시대 도기장군은 자료가 많지 않으나, 삼국시대부터 생산되던 도기장군의 기형이 이어지면서 한측면이 편평한 원통형 동체를 가진 도기장군이 제작되기 시작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춘택(2017)은 조선시대 전기의 분묘에서 출토된 도기를 편년하면서 도기장군 69점을 측면 중 제작 시 저부와 폐쇄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총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제작 시 저부가 폐쇄부보다 긴 A형은 충청도 지역에서, 폐쇄부가 저부보다 긴 B형은 경기도 지역에서, 저부와 폐쇄부의 길이가 비슷한 C형은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II기(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에 A형이, 제III기(16세기 후반)에 B, C형이 주로 출토된다고 보았다.

둘째,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는 주로 도예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상아 1996; 이은주 2004). 고고학적으로는 이기길(1991)이 처음으로 유물 관찰을 통해 제작 과정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측면이 편평한 도기장군을 복원하는 데에만 그쳤으며, 발굴 자료가 아닌 소장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작 시기가 불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임승덕(2011)은 백제 사비기 타날문토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백제 사비기 도기장군은 우선 평저상태로 제작된 다음 점점 좁게 말아가면서 조임기법으로

맨 윗부분의 공간을 완전히 메운다. 그 다음 장군의 구연부를 부착할 위치에 구연부 너비 또는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 편평한 저부를 원저로 변형한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작된 구연부를 동체부에 부착한다고 설명하였다.

송윤정(2012)은 화성 가재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전기의 도기장군을 관찰하여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도출하였다. 화성 가재리 유적 출토 장군에서는 동체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이 확인되며, 동체부의 열린 면을 폐쇄한 방법으로 원판폐쇄법과 회전조이기법이 사용되었다. 구연부는 별도로 제작한 다음 동체부에 접합하는 분할성형법이 전적으로 행해졌으며, 구연부와 동체부를 접합하는 방법으로는 동체부를 원형으로 도려낸 뒤 그 위에 구연부를 접합하는 방법과 동체부를 원형으로 절개한 뒤 이를 끌어올려 접합하는 방법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기장군을 측면 형태에 따라 좌우대칭형·좌우 비대칭형으로, 좌우대칭형을 다시 좌우 측면 형태가 직선인 것과 곡선인 것으로 분류하여 장군의 형태를 정리하였다.

이밖에 삼국시대에 출토되는 도기장군 가운데 하나인 유공장군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유공장군은 도기장군과 같은 제작기법으로 제작되었으나, 양측면이 편평하면서 유공광구소호와 같이 동체 중앙부에 구멍을 뚫려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유공광구소호와 함께 기원문제가 논의되었다. 기노시타 와타루(木下亄 2003)는 한반도 출토 유공장군이 형식적으로 이르지 않으며, 출토자료가 적기 때문에 일본 스에키 특유의 기형이 역수입되어 모방된 것으로 보았다.

노미선(2003)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출토된 유공장군을 검토해보고, 고창 봉덕 유적에서 출토된 유공장군을 중심으로 일본 초기단계 스에키 유적의 기원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는 고창 봉덕 유적의 공반 유물과 고창지역에서 확인되는 분구묘를 고려하여 스에키 제작기술의 기원지가 고창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현주(2011)는 삼국시대 백제의 유공광구소호와 유공장군의 출토 현황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출현 문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유공장군의 경우, 동체부의 문양을 기준으로 하여 동체부에 종방향의 돌대가 둘러지고 그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된 것, 종방향의 돌대나 침선이 둘러지고 그 사이에 문양이 생략된 것, 종방향의 돌대가 둘러지고 그 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동체부에 파상문이 있는 것에서 점차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유공장군의 출현은 백제에서 사용되고 있던 장군에 유공광구소호의 사용방법이 채용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도기장군은 시대별로 도기 자료를 집성 및 연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연구되거나 제작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삼국시대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면모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측면이 편평하면서 유공광구소호와 같이 동체 중앙부에 구멍을 뚫은 형태의 유공장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유공장군의 변천과 출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유물과 함께 대략적으로 연구되다보니 도기장군의 변천과 기원, 사용 등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중·근세에 집중되어 있어 장군의 변천과 기원, 사용 등을 알아내는데 기반이 되는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장군의 기형 변화가 제작기법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형식분류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측면의 형태 또는 구연부의 위치 등으로만 분류해 온 문제점도 확인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고대 도기장군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고자 한다. 여기에 고대 도기장군과 형태는 사뭇 다르나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어 고대 도기장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공장군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기별·지역별·국가별 비교를 시도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면모를 파악하고, 나아가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과 사용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도기장군은 삼국시대에 등장하여 근래까지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그 중 고대의 도기장군은 다른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으로, 장군의 기원과 사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고대’는 마땅히 도기장군이 등장하는 삼국시대부터 대체로 고대의 하한인 통일신라시대까지로 한정해야하나, 조선시대에 자기장군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고대의 도기장군이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시대 도기장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지역적 범위는 남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도기장군만 보고되며, 고구려의 도기장군은 알려진 바 없다. 그리고 국가 구분이 사라지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도기장군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남한지역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II장에서는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도기장군 자료를 집성해보았다. 시기적으로 연구 범위가 넓은 관계로 수계나 국가 권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의상 현 행정구역인 경기·서울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강원·제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보고서에 ‘장군, 장군형토기, 횡병, 유공장군, 유공횡병’등으로 유물명이 명시된 것을 집성하였다. 한편, 도기장군은 곡면이 많은 기형적 특징 때문에 파괴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파편도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완형은 양측이 폐쇄되어 있어 내부를 통해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파편으로 출토되었을 때 내부의 제작기법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완형과 파편 모두를 검토해보면 도기장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는지, 변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기장군의 완형과 파편 자료 모두 검토하고자 한다. 완형과 파편을 합한 출토 수량은 모두 164점으로,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기원, 사용문제를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수량이라고 판단된다.

Ⅲ장에서는 출토지가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시기나 국가·지역별 차이를 보여주는 속성을 추출하고 형식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 중 장군의 제작 과정은 기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형식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작과 관련된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조합한 형식분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작 과정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기존 연구와 고대 도기장군의 완형과 파편에서 확인되는 제작과 관련된 흔적을 검토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작 과정 복원을 통해 파악된 속성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고대 도기장군의 시기별·지역별·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어떠한 형식이 이어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도기장군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장군과 같은 기종이 확인되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자료를 참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대 도기장군의 크기와 출토 유구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도기장군의 사용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하였던 도기장군이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제작기법이 단순하지 않고 기형상 보관이 어려움에도 왜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세부 명칭 설정

연구에 앞서, 장군의 세부 명칭을 정리하고자 한다. 호·옹 등과 같은 기종은 동체부가 정치 상태로 사용되지만, 도기장군은 동체부가 횡방향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바닥에 닿는 동체부의 일면은 원래는 동체부이지만 실제로는 저부의 기능을 하게 되며, 원래 저부였던 곳은 동체부의 한측면이 되게 된다. 따라서 장군은 제작과 사용시의 명칭이 동일 부위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명칭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송윤정 2012).

일찍이 일본 학계에서는 장군의 독특한 형태로 인해 혼돈이 있음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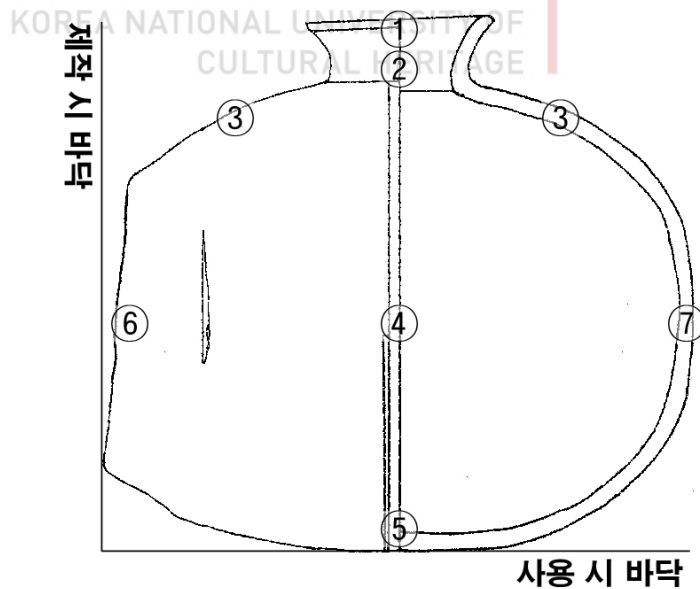
지하고 세부 명칭을 설정하였다. 일본 스에키 장군의 세부 명칭을 살펴보면, 크게 ‘구연부, 경부, 동부’로 구분하고 동부의 양측면을 제작 시 처음부터 아래에 놓이는 쪽을 하측면(下側面) 또는 저부측면(底部側面), 그 반대편이 되어 폐쇄되는 쪽을 상측면(上側面) 또는 폐쇄측면(閉塞側面)⁶⁾으로 설정하였다(春日真実 2001). 이후 일본 스에키 장군의 세부 명칭을 참고하여 송윤정(2012)이 ‘구연부, 경부, 동체부’로 구분하고, 바닥에 닿는 동체부의 일면을 ‘접저면’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양측면은 제작 시 처음부터 아래에 놓이는 쪽을 선측면(先側面) 또는 저부측면(底部側面)으로, 그 반대편이 되는 윗면을 후측면(後側面)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양측면의 형태가 동일할 경우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선후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측면(左側面)과 우측면(右側面)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장군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동체부를 폐쇄하기 전 열려있는 동체부를 개구부(開口部), 여기에 덧대어 폐쇄시키는 부위를 폐쇄부(閉鎖部)로 명명하였다. 최남미(2014)와 정춘택(2017) 역시 ‘구연부, 경부, 동체부, 접저면’으로 세부 명칭을 설정하였다. 다만, 제작 시 처음부터 아래에 놓이는 쪽을 하측면(下側面)으로, 그 반대편이 되는 윗면을 상측면(上側面)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동체부도 양쪽으로 나누어 상측면 동체, 하측면 동체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바닥에 닿는 부분이 제작 시 동체부였기 때문에 ‘저부’가 아닌 ‘접저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토기의 세부 명칭은 사용 시 정치 방향을 기준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용 시 정치 방향에 따라 도기장군을 ‘구연부, 경부, 견부, 동체부, 저부’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체부의 양측면은 제작 과정의 선후관계가 파악되는 경우 제작 시 바닥에 놓이는 측면을 ‘제작 시 저부’로, 그 반대편이 되어 폐쇄되는 측면을 ‘제작 시 폐쇄부’로 설정하였다.

6) 일본 스에키 장군에서의 ‘열려있는 부분(塞)을 닫는다(閉)’라는 뜻으로 사용된 폐쇄(閉塞)와 같은 한자는 우리가 쓰지 않는 것으로, 송윤정(2012)은 이를 폐쇄(閉鎖)로 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열려 있는 부분을 막는 과정을 폐쇄(閉鎖)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자별 도기장군 세부 명칭

번호	春日眞実 (2001)	송윤정 (2012)	최남미 (2014)	정춘택 (2017)	본고
①	구연부	구연부	구연부	구연부	구연부
②	경부	경부	경부	경부	경부
③	.	.	.	.	견부
④	동부	동체부	동체부	동체부	동체부
⑤	.	접저면	접저면	접저면	저부
⑥	하측면 (下側面), 저부측면 (底部側面)	선측면 (先側面), 저부측면 (底部側面)	하측면 (下側面)	하측면 (下側面)	제작 시 저부
⑦	상측면 (上側面), 폐쇄측면 (閉塞側面)	후측면 (後側面)	상측면 (上側面)	상측면 (上側面)	제작 시 폐쇄부



II. 고대 도기장군 출토 유적 검토

1. 서울·경기지역

1) 양주 옥정동 유적(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2)

옥정동 유적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삼송동, 고암동, 회암동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2구역 31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2-1). 유구 내부에는 구들시설이 주거지의 동벽을 따라 ‘ㄱ’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연도부는 북동쪽 모서리에 마련되어 있다. 유물은 도기장군 외 완 2점, 뚜껑 1점, 시루 1점, 연질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강화 옥림리 유적(中原文化財研究院 2012)

옥림리 유적은 인천광역시 강화읍 옥림리 390-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4지점 4호 토광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2-2). 유구는 평면 형태 장방형의 토광묘이며, 일단굴광되어 조성되었다. 북쪽 장벽에 감실이 확인되는데, 감실 내부에서 도기장군과 청동숟가락, 청동합, 철제가위, 철도자, 청동젓가락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3) 남양주 별내 유적(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별내 유적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덕송리, 관전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덕송리 1-1지점 3호 주거지에서 1점(도면 2-3), 화접리 6-6지점 1호 건물지에서 1점(도면 2-4)이 출토되었다. 우선 덕송리 1-1지점 3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남벽에 접하여 구들시설이 확인되며, 아궁이, 구들장, 측벽석, 배연부 일부가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뚜껑의 인화문과 완의 형식을 근거로 6세

기 중엽에서 7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화접리 6-6지점 1호 건물지는 총 4동이 확인되었으며, 주건물 1동을 중심으로 하단 양쪽 측면에 2동, 전면에 출입문지로 추정되는 건물 1동이 위치한다. 건물의 변화는 크게 2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초축 연대는 청자의 편년으로 보아 12세기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13세기대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기 이전에 해당하는 분청자와 백자가 확인된다.

4) 서울 몽촌토성(서울大學校博物館 1987·1988)

몽촌토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백제 한성기 토성으로,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도기장군은 1987년 발굴조사에서 1점, 1988년도 발굴조사에서 3점이 확인되었다.

1987년도 몽촌토성 동북지구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 저장공, 옹관묘, 토광적석묘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1호 저장공 Ⅲ층에서 출토되었다(도면 2-5). 1호 저장공의 내부 토층은 총 6개로 구분되는데, Ⅲ과 Ⅳ에서만 완형 토기가 출토되고 나머지 층에서는 토기 파편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었다.

1988년도 몽촌토성 동남지구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 저장공, 적석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4호 저장공에서 2점(도면 2-6·7), 7호 저장공에서 1점(도면 2-8)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1988년도 몽촌토성 발굴조사 시 출토된 모든 토기 개체들을 몽촌유형과 구의동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기종별로 분류하여 동일 기종 안에서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기장군 3점은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었다.

5) 서울 풍납토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5)

풍납토성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1·2동에 걸쳐 있는 백제 한성기 토성으로,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도기장군은 11차

발굴에서 1점, 17차 2점이 확인되었다.

풍납토성 11차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들과 수혈건물지, 도로유구, 석축수로 및 유구, 성토부 등이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도면 2-9). 3호 주거지는 동서가 약간 긴 말각방형의 수혈주거지로, 유물은 주로 벽면에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유구 내에서 출토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라 5세기대로 추정되었다.

풍납토성 17차 발굴조사는 경당지구 재발굴조사로, 도기장군 2점이 출토된 206호 유구는 바닥을 평면 방형으로 조성하고 할석을 이용하여 모를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평면 원형으로 구축한 우물이다. 도기장군은 토기매납층 상부에서 호, 병과 함께 2점이 출토되었는데 1점은 양측면이 둥근 형태이며(도면 2-10), 다른 1점은 원형의 유공장군이다(도면 2-11).

6) 서울 우면동 유적(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우면동 유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에 위치한다. 10km 내에 서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가지점 백제 4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1). 유구는 수혈주거지이며, 내부시설로 출입구, 부뚜막식 노지, 저장공,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라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었다.

7) 인천 영흥도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영흥도선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서쪽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섬업벌 해역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남양만의 당항포(현 경기도 화성시)에서 중국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국제 교역로 상에 있으며, 고려시대 이래로는 삼남지역의 세곡과 물류를 수도로 운반했던 조운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배 내부 중 중앙부에 해당하는 E4구역에서 2점

이 출토되었는데, 2점 모두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다(도면 3-2·3). 영흥도선은 발굴 당시 고려시대의 배로 추정되었으나, 선체 구조 연구와 연대 측정, 내부에서 출수된 유물의 분석 결과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배로 추정되었다.

8)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마북동 취락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00번지·마북동 502-273번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269호 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4). 유적의 중심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라 5세기에서 6세기대로 추정되었다.

9) 용인 마북동 502-35번지 유적(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5)

마북동 502-35번지 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02-35번지에 위치한다.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총 2차례의 발굴조사 중, 상층의 6호 주거지에서 도기장군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5). 유구는 평면형태 방형의 수혈주거지로, 내부시설로는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약 1/4 정도 잔존하며, 측면이 둥근 형태이다.

10) 용인 어비리 유적(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3)

어비리 유적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산1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I-3구역 5호 가마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6). 유구는 반지하식 등요로, 연도부로 갈수록 측벽이 급격하게 좁아드는 선지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가마 내부 퇴적토와 바닥면에서 호, 웅, 뚜껑, 도기장군, 완, 파수편 등 총 21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5호 가마와 평면형태가 유사한 1호 가마와 2호 가마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고려시대 중후반기에 해당하는 12

세기 중엽부터 14세기로 추정되었다.

11) 용인 죽전리 1호 요지(김재열 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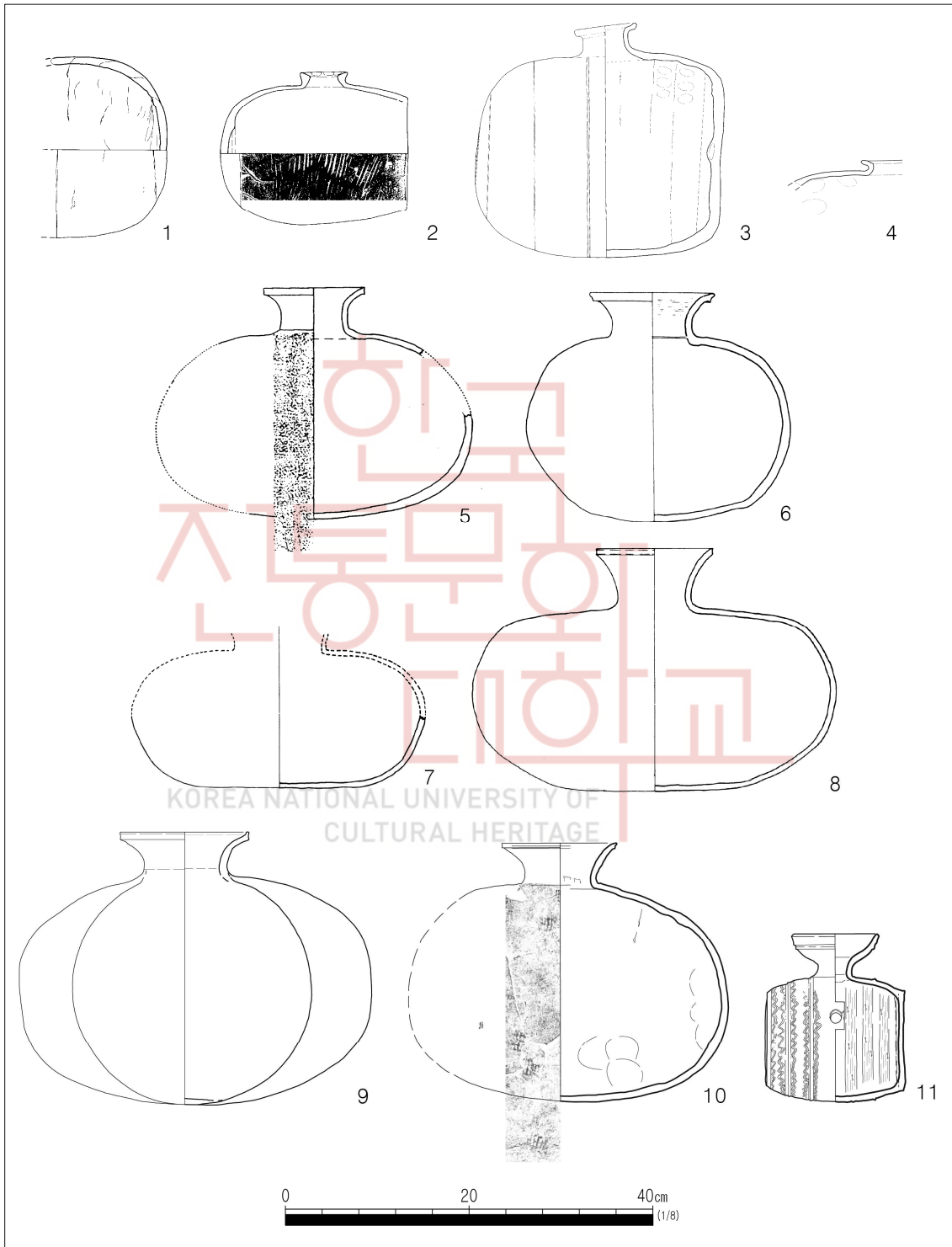
죽전리 1호 요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326번지, 산45-5·6, 산50-3·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계단식으로 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었으며, 도기편들이 흩어져 노출되어 있었다. 도기장군은 1점이 수습되었는데, 한측면만 잔존한다(도면 3-7).

12) 용인 할미 산성(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4)

할미 산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0-3번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신라의 석축산성이다. 협축방식으로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신라 성곽의 특징인 기저부 보축시설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남동회절부 Tr.1에서 1점(도면 3-8), 남서회절부 Tr.3에서 1점(도면 3-9)이 출토되었다. 전자는 한측면만 잔존한다. 측면은 거의 편평하며, 측면과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원판을 덧댄 것으로 보이는 점토 접합흔이 확인된다. 후자 역시 한측면만 잔존한다. 측면은 거의 편평하며, 결실부에 원판을 틀어쪼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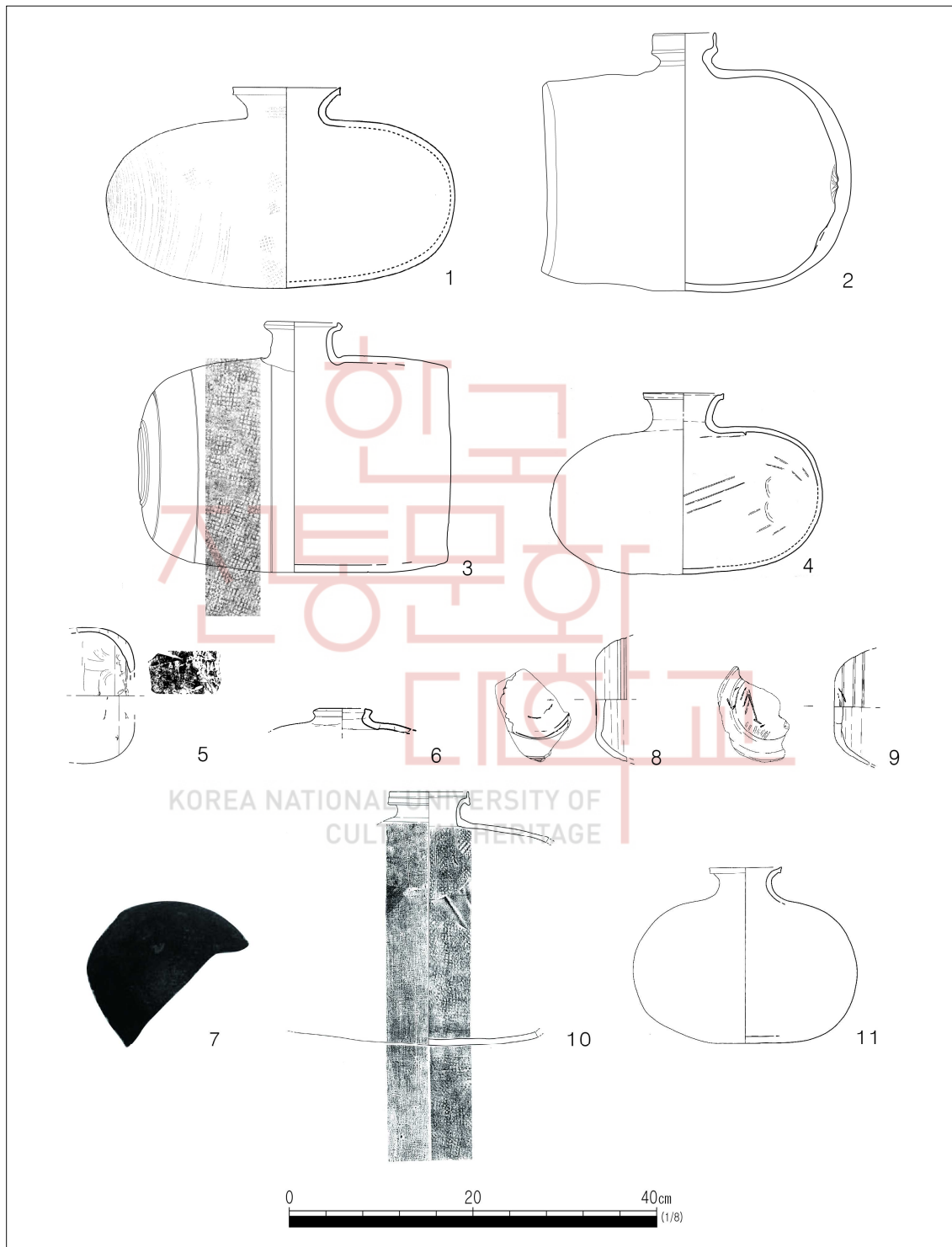
13) 이천 갈산동 유적(中央文化財研究院 2007)

갈산동 유적은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630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구역 20호 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10).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수직에 가깝게 굴광되었다. 유물은 수혈유구 바닥으로부터 약 30cm 상부에서 도기장군, 대부병, 편병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편구형으로 성형되었으며, 저부는 편평하다.



<도면 2> 서울·경기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

1. 양주 옥정동 유적 2. 강화 옥림리 유적 3~4. 남양주 별내 유적
5~8. 서울 몽촌토성 9~11. 서울 풍납토성



<도면 3> 서울·경기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도판 축척 부동)

1. 서울 우면동 유적 2~3. 인천 영흥도선 4.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5. 용인 마북동 502-35번지 유적 6. 용인 어비리 유적 7. 용인 죽전리 1호 요지
 8~9. 용인 할미산성 10. 이천 갈산동 유적 11.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14)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누리고고학연구소 2017)

도기동 산18번지 유적은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18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6호 토광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3-11). 도기장군은 북서장벽에 인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는데, 구연부가 대부분 결실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중북관계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4세기 중후반경에서 5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었다.

2. 충청지역

1) 충주 호암동 유적(길경택 1998)

호암동 유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사직산의 남쪽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2지구 16호 토광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1). 유구는 평면형태 장방형의 토광묘로, 서장벽에 감실이 조성되어있다. 묘광의 서쪽 끝에서 철제가위가 출토되고, 피장자의 머리쪽에서 도기장군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서쪽부분에서 원풍통보(元豐通寶, 1078~1085년) 2점, 송녕중보(崇寧重寶, 1102~1106년) 2점이 출토되어 유구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2) 충주 수룡리 산막골 유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수룡리 산막골 유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88-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기장군은 I 구역 가지점 1호 도기가마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2). 1호 도기가마는 장타원형의 요체에 작은 원형의 연도부가 결합되어 있으며, 반지하식 가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다량의 도기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도기장군은 폐기장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13세기대로 추정되었다.

3) 진천 구암리 사장골 유적(손명수 외 2017)

구암리 사장골 유적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198-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5지점 3호 도기가마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3). 유구는 지하식 등요이며 번조실 내부에 단이 없는 무단식 도기가마이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도기편과 청자가 소량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의 유물은 요전부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 역시 요전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무단식 도기가마의 운영 시기를 알 수 있는 주변 유적을 통해 12세기대로 추정되었다.

4) 청주 창리 유적(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창리 유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82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창리사지 1호 건물지 내 3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4). 유구는 평면형태 ‘一’자형이며, 한 차례 개축되었다. 유물은 기와편, 청자편, 각종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건물지의 적심 진단구로 매납되어 있었다. 유구의 연대는 유물 조합 양상과 인근 청자가마터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5) 청주 오산리 유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5)

오산리 유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산18·269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4호 가마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5). 유구는 지하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연도부, 연소부, 소성실, 폐기장이 잔존해있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연도부에서 연소부로 갈수록 넓어진다. 도기장군은 연소부 바닥에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양측면이 편평하게 마무리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입지, 구조, 출토유물, 연소부 바닥에서 출토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A.D.330)를 고려하여 4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었다.

6) 서산 부장리 유적(이훈·이종수·이상엽 2008)

부장리 유적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산46-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44호 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6). 유물은 구연부와 동체 상단부가 결실되고 나머지는 거의 잔존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주거지와 분구묘의 구조,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라 2세기에서 5세기대로 추정되었다.

7)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尹淨賢 2010)

언암리 낫머리 유적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55호 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7). 유구는 토광목관묘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도기장군은 묘광의 북동단벽에 치우쳐 출토되었으며, 유물 하단에서 부식이 심한 상태의 철검과 철부가 1점씩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되었다.

8) 홍성 남장리 유적(朴有貞 2010)

남장리 유적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호 토광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8). 2호 토광묘는 평면형태 장방형이며, 유물은 도기장군 외 연질토기호 1점, 광구호 1점, 토기저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으로, 외면에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유구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에서 6세기대로 추정되었다.

9) 천안 두정동 유적(이남혁·서정석 2000)

두정동 유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I 지구 2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9). 유구는 교란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를 알 수 없다. 또한 내부시설과 주공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소결면과 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주거지로 판단되었다. 도기장군은 유구의 어깨선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구경부를 포함한 절반이 결실되었으며, 탄환과 비슷한 형태이다.

10) 공주 산의리 고분(이남석·공주대학교 박물관 1999)

산의리 고분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산4-10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9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10). 유구는 말각 세장방형의 수혈식 석실묘로, 도기장군을 포함한 도기 6점과 철검 1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석실묘의 형식을 고려하여 백제의 웅진천도 전후한 시기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이른 초반으로 추정되었다.

11) 서천 봉선리 유적(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5)

봉선리 유적은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일대에서 조사된 생활 및 분묘유적이다. 도기장군은 3-I 구역 1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5-1). 유구는 천장부가 모두 유실되었지만 네 벽면과 연도부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횡혈식 석실묘이다. 묘실은 할석으로 축조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연도는 동벽을 그대로 연결시켜 만든 우편재이다. 유물은 토기, 철기, 장신구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토기는 서장벽에 연접해서 9점이 한 곳에 몰려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대로 추정되었다.

12) 서천 봉선리 유적(姜秉權 2009)

봉선리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각종 유구가 대규모로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도기장군은 3구역의 9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5-2). 유구는 석곽이 모두 유실되고 최하단석의 윤곽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유물은 도기장군을 포함한 도기 5점과 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반과품으로, 구연부가 모두 결실되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백제 한성기로 추정되었다.

13)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李號炯·李販燮 2009)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현내들 유적 백제 II문화층의 2호 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5-3). 유물은 구연부 부근만 잔존한다.

14)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김성남 외 2010)

가탑리 백제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52-11번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총 7개의 퇴적층과 복수의 생활면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백제 사비기 생활면 및 퇴적층 내 2ws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5-4). 유물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을 뿐 거의 완형이다. 출토 당시 구형의 돌이 도기장군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15) 부여 궁남지(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궁남지는 1990~1993년 궁남지발굴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가(宮南池發掘調査團 1990), 1995년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이 수립되면서 당해 연도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연차발굴이 실시되었다. 도기장군은 1999~2000년도에 실시된 現 궁남지의 서북편 일대 조사에서 2점이 확인되었다(도면 5-5·6). 모두 동서수로II-1에서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

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추정되었다.

16) 부여 능산리사지(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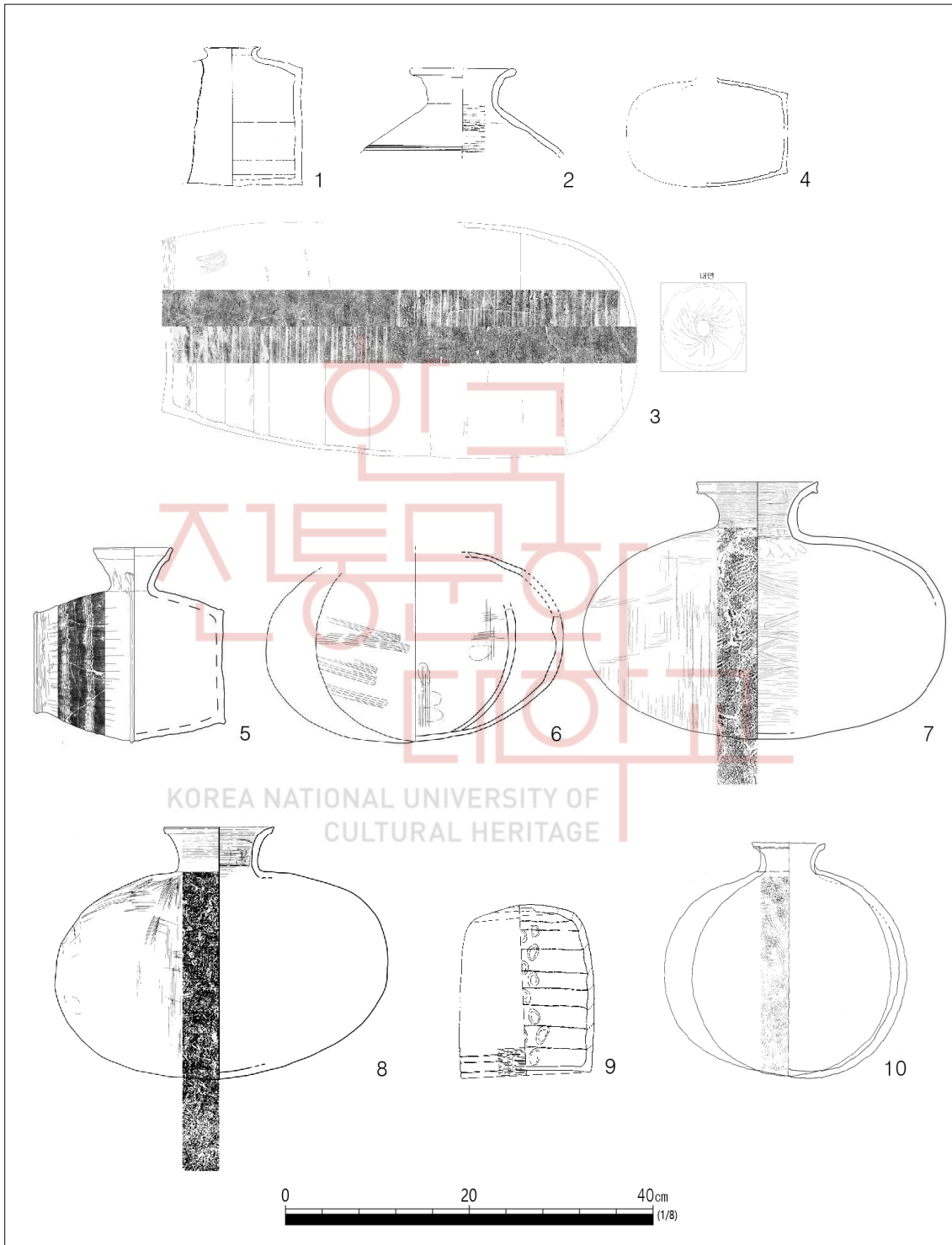
능산리사지는 1992년~2008년까지 11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제2차 조사인 1993년에, 창왕명석조사리감은 제4차 조사인 1995년에 각각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제9차 조사인 2005~2006년에서 2점이 확인되었다. 2점 중 1점은 북편건물지1(도면 5-7)에서, 다른 1점은 북편 중앙수로(도면 5-8)에서 출토되었다.

북편건물지1은 사역 중심지로부터 서북쪽에 위치하며, 부여 나성과 인접한 지역에 자리한다. 줄기초 건물지이며, 내부시설로는 쪽구들과 아궁이 및 굴뚝시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배수호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완형에 가깝다. 중앙수로는 사역 중심지의 서쪽 배수로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중앙수로에서 출토된 도기장군은 양측면이 둥글며,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능산리사지는 척·와당·목간·기단과 주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2단계에 걸쳐 건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초축 연대, 2단계의 시기, 폐사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른 상황이다. 보고자는 유구의 양상을 통해 기본계획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역중심지 북편의 건물지 및 수로들은 초축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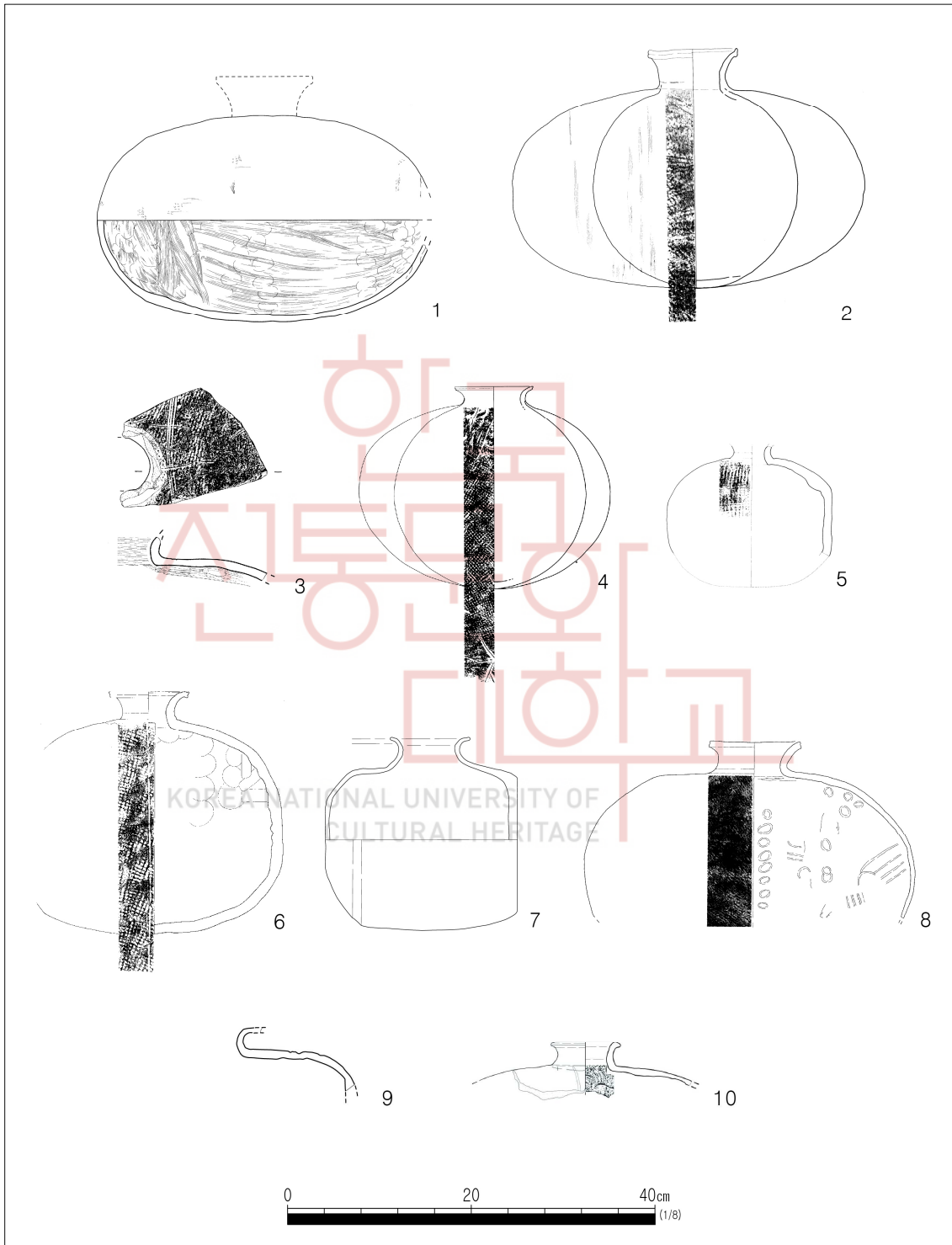
17) 부여 구아리 361번지 유적(심상육·이화영·이명호 2016)

구아리 361번지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6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고려시대 수혈1 내부퇴적토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5-9). 유구는 평면형태 방형에 가까우며, 어골문 기와편과 청자, 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도면 4> 충청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

1. 충주 호암동 유적 2. 충주 수룡리 산막골 유적 3. 진천 구암리 사장골 유적 4. 청주 창리 유적
5. 청주 오산리 유적 6. 서산 부장리 유적 7. 서산 연암리 낮머리 유적 8. 홍성 남장리 유적
9. 천안 두정동 유적 10. 공주 산의리 고분



<도면 5> 충청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

1. 서천 봉선리 유적(충남역사) 2. 서천 봉선리 유적(충청) 3. 부여 쌍북리·현내들 유적
4. 부여 가담리 백제유적 5~6. 부여 궁남지 7~8. 부여 능산리사지 9. 부여 구아리 361번지 유적
10. 계룡 입암리 반촌말 유적

18) 계룡 입암리 반촌말 유적(錦江文化遺産研究院 2016)

입암리 반촌말 유적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산2-7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호 석곽시설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5-10). 유구는 평면형태 장방형이며, 8~10단 정도의 석벽의 잔존한다. 석곽시설 주변에는 주공과 같은 수혈이 8개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청자매병 1점, 청동손가락 1점, 각종 도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12세기대로 추정되었다.

3. 전라지역

1) 익산 미륵사지(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의 미륵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시대 백제 사찰 중에 가장 잘 남아 있는 유적으로, 1980년부터 1994년도까지 총 15년간에 걸쳐 5개년 단위로 3차 5개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도기장군은 12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6-1). 유구의 기단토 중 상층면은 비교적 많이 유실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물지 적심석 상면보다 조금 낮은 기단토내에서 순청자편과 해무리굽 청자편, 도기장군, 순화원보(淳化元寶, 990~994년) 등의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지는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어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큰 연질토기 내에 백자접시 등이 건물지 서남쪽 기단 내에서 출토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 익산 모현동 2가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11)

모현동 2가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구와 매장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내장지구 2구역 11호 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6-2). 11호 수혈유구의 평면형

태는 원형이며, 유물은 고배,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3) 군산 산월리 유적(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산월리 유적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나지구 2호분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도면 6-3·4). 2호분은 황혈식 석실묘로, 우편재 연도이다. 유물은 석실 바닥에서 토기류, 철기류, 구슬, 말뚝과 말이빨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황혈식 석실묘의 형식을 고려하여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인 5세기 후반 이른 시기로 추정되었다.

4) 김제 연정동 유적(金奎正·梁永珠·安鉉重 2011)

연정동 유적에서는 수혈유구 1기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수혈유구에서 1점이 확인되었다(도면 6-5).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복주머니형으로 굴광되었다. 유물은 개배편, 삼족토기편, 뚜껑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제작 시 폐쇄부와 동체부편이 잔존하며, 제작 시 폐쇄부 외면에는 회전력을 이용한 동심원상의 침선이 확인된다.

5)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國立全州博物館 1994)

죽막동 제사유적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서쪽 끝 해안절벽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입지, 유물의 출토상태, 출토유물의 내용, 문헌 기록 등으로 살펴볼 때 해안가에 위치한 백제의 독립된 제사유구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특별한 유구 없이 거의 발굴구역 전면에서 노출되었는데, 삼국시대 백제의 유물들은 제사유구의 중심지로 파악되는 나2·나3·나2·다3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나2구역에서 1점(도면

6-6), 나3구역에서 1점(도면 6-7)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6세기 이후 고배, 개배, 병과 함께 공헌용기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6) 전주 마전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8c)

마전 유적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3호분 1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6-8). 3호분은 마전 고분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내부에서 모두 14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그중 1호 석실묘는 연도부를 갖춘 횡혈식 석실묘로, 3호분의 매장시설 중 가장 늦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연도부는 남벽 중앙에 설치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었다.

7) 전주 찰방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13)

찰방 유적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남서쪽과 완주군의 동쪽이 포함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삼국시대 백제 유구는 원형수혈유구 30기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8호 원형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6-9).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복주머니형이다. 유물은 다른 원형수혈유구에 비해 다량 출토되었는데, 도기장군을 비롯하여 삼족기, 개배, 호, 완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편만 잔존하며, 외면에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8) 전주 원만성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17)

원만성 유적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호 원형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6-10). 유구의 평

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복주머니형에 가깝다. 도기장군은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1/4 정도가 남아 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에서 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되었다.

9) 완주 상운리 유적(전북대학교 박물관 2010)

상운리 유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8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각기 다른 유구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라지구 3호 분구묘 4호 목관에서 출토되었다(도면 6-11). 3호 분구묘는 분구 중앙을 기준으로 목관의 경우 서편에 조성되고 석곽은 동쪽에 배치되었다. 옹관은 분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4호 목관은 말각장방형의 동혈합장묘이다. 유물은 다량의 토기류와 옥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다른 1점은 다지구 1호 분구묘 주구에서 출토되었다(도면 6-12). 1호 분구는 마제형이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구 내에서 도기장군, 옹 구연부편, 호 구연부편, 석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주구 바닥면에서 파쇄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고분의 형식과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백제 한성기로 추정되었다.

10) 임실 도인리 유적(군산대학교 박물관 2011)

도인리 유적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호 기타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 1호 기타유구는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부장유물일 가능성이 높아 본래 백제 석곽묘에 부장되었던 것이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벽석이 유실되면서 유물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만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에서 6세기대로 추정되었다.

11) 고창 중월리 고분군(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

중월리 고분군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고분군으로, 옹관묘, 석관묘, 파옹개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2). 유물은 구연부가 모두 결실되었으며, 한쪽 동체부가 약간 더 크다.

12) 고창 봉덕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3)

봉덕 유적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방형추정분 1기와 구,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가지구 구 1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3). 유구는 방형추정분의 동쪽주구의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단면형태는 넓게 퍼진 U자형이다. 유구의 중앙부 바닥부분에서 유공장군과 직구호 1점씩 출토되었다. 유공장군은 구연부가 모두 결실된 상태이며, 동체부편 일부가 50c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되었다. 떨어져 나간 동체부편에 타격흔이 남아 있어 제사의식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 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13) 광주 동림동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7a)

동림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일대에 위치한다. 삼국시대의 구가 총 237기 조사되었는데, 이 중 17기 정도는 총 길이가 100m 이상으로 대형에 속한다. 출토된 유물은 모두 2,563점으로 대부분 토기류이며, 이 외에도 토제품, 석기류, 철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151호 구(도면 7-4), 60호 구(도면 7-5), 101호 남서구(도면 7-6), 141호 구(도면 7-7)에서 각각 1점씩 총 4점이 출토되었다.

14) 광주 하남동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8b)

하남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구, 수혈유구, 분구묘, 옹관묘, 석곽묘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5호 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8). 유구의 평면형태는 완만한 호선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유물은 유공장군 1점과 호형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15) 광주 산정동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8a)

산정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9호 방형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9). 유구는 외곽의 방형 구와 내부의 주공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은 구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서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16) 광주 향등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4)

향등 유적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백제 주거지와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6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0).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내부시설로 아궁이가 확인된다. 아궁이 주변과 바닥면에서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주거지 내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의 한측면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유구의 연대는 내부시설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대로 추정되었다.

17) 광주 선암동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12)

선암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윗마을 1-2호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1). 유구의 평면형태는 'S'자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넓

어진다. 구의 중앙부에서 목재들이 확인되며, 남쪽 하단부에서는 목주열이 확인된다. 유물은 유구 전체에서 확인된다.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석기와 목기도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의 한측면만 남아 있는 유공장군이다.

18) 함평 월계리 석계 고분군(全南大學校博物館 1993)

월계리 석계 고분군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산416-1번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6기의 백제 석실묘가 확인되었으며 도기장군은 90-4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2). 유구는 횡혈식 석실분이며, 출입시설은 남벽 동쪽에 치우쳐 마련되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유리구슬 3점과 호박구슬 1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약 10cm 두께의 흙 위에서 구연이 거의 바닥 쪽을 향할 정도로 거꾸로 뒤집어진 채 발굴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었다.

19) 나주 반남 고분군(國立光州博物館 1988)

반남 고분군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대에 위치한다. 반남 고분군은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고분군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도기장군은 신촌리 9호분 기관 옹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3). 신촌리 9호분은 1917~18년에 조사되었으며, 옹관 12기와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이 편평하고 다른 측면이 둥근 형태로, 완형이다. 뚜껑은 다른 기종의 것을 이용하였는데 드림 중간에 돌대가 있고 꼭지는 축약시켜서 역주형을 이루다가 위를 평면으로 처리하였다. 보고자는 출토유물과 유구 간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유구의 연대를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상층과 하층 옹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상층 옹관을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20) 나주 영동리 고분군(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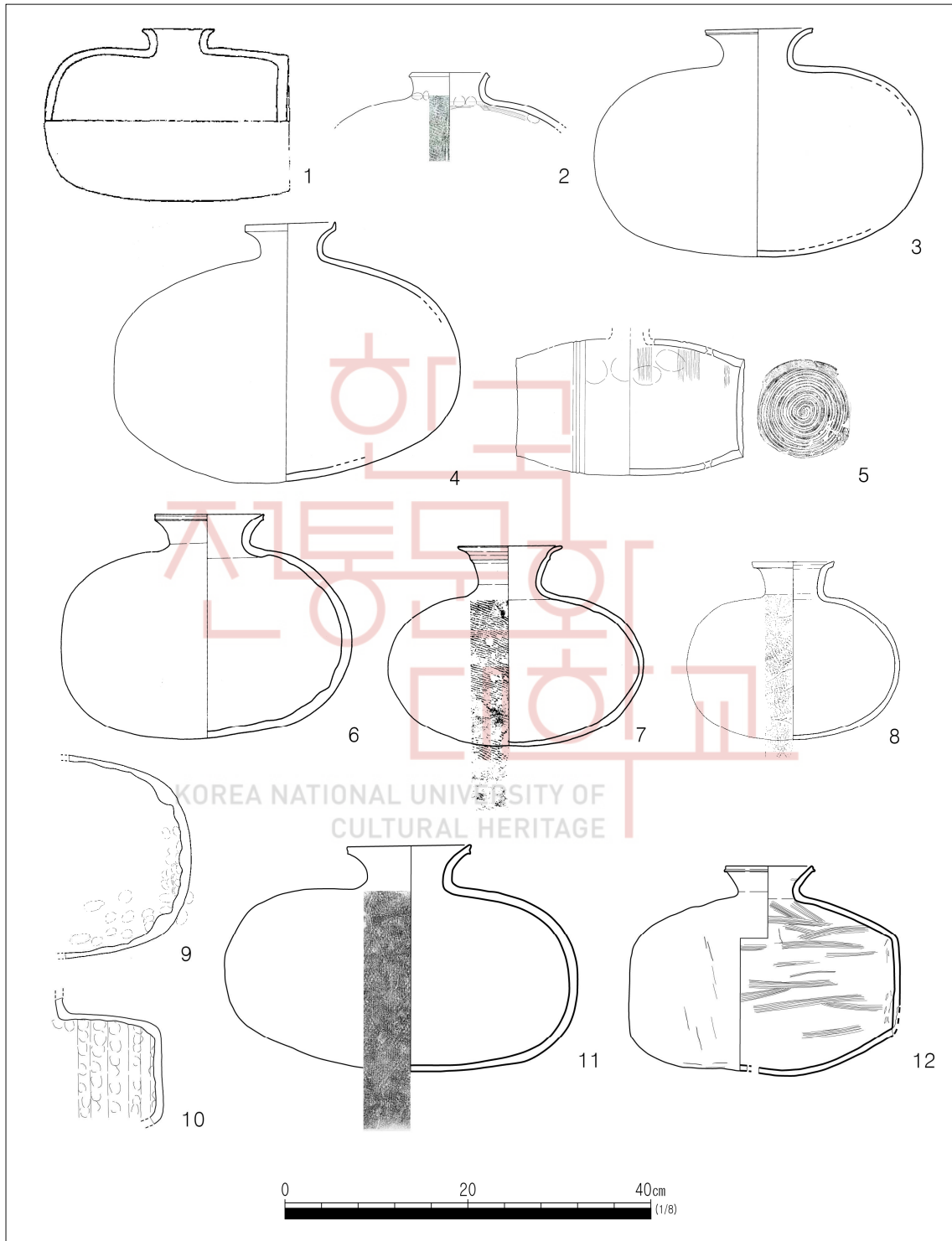
영동리 고분군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총 8기의 고분 흔적과 5기의 백제 석실묘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1호분 1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4). 1호분은 매장시설로 옹관묘 2기, 석실묘 7기, 석곽묘 5기가 확인되었으며, 분구는 대부분이 사라졌다. 도기장군이 출토된 1호 석실묘는 묘실과 연도를 포함한 전체길이가 5.5m 달하는 대형의 횡혈식 석실묘이다. 좌편재 연도이다. 유물은 묘실의 북벽과 서벽, 그리고 남벽의 동쪽 모서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을 바닥에 대고 세워진 채 배부병과 함께 출토되었다.

21) 나주 장등 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 2007b)

장등 유적은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에 걸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8호 수혈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5).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유물은 도기장군, 호형토기, 개배,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모두 내부퇴적토에서 확인되었으며 파쇄되거나 편으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 상단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절반만 잔존하며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이후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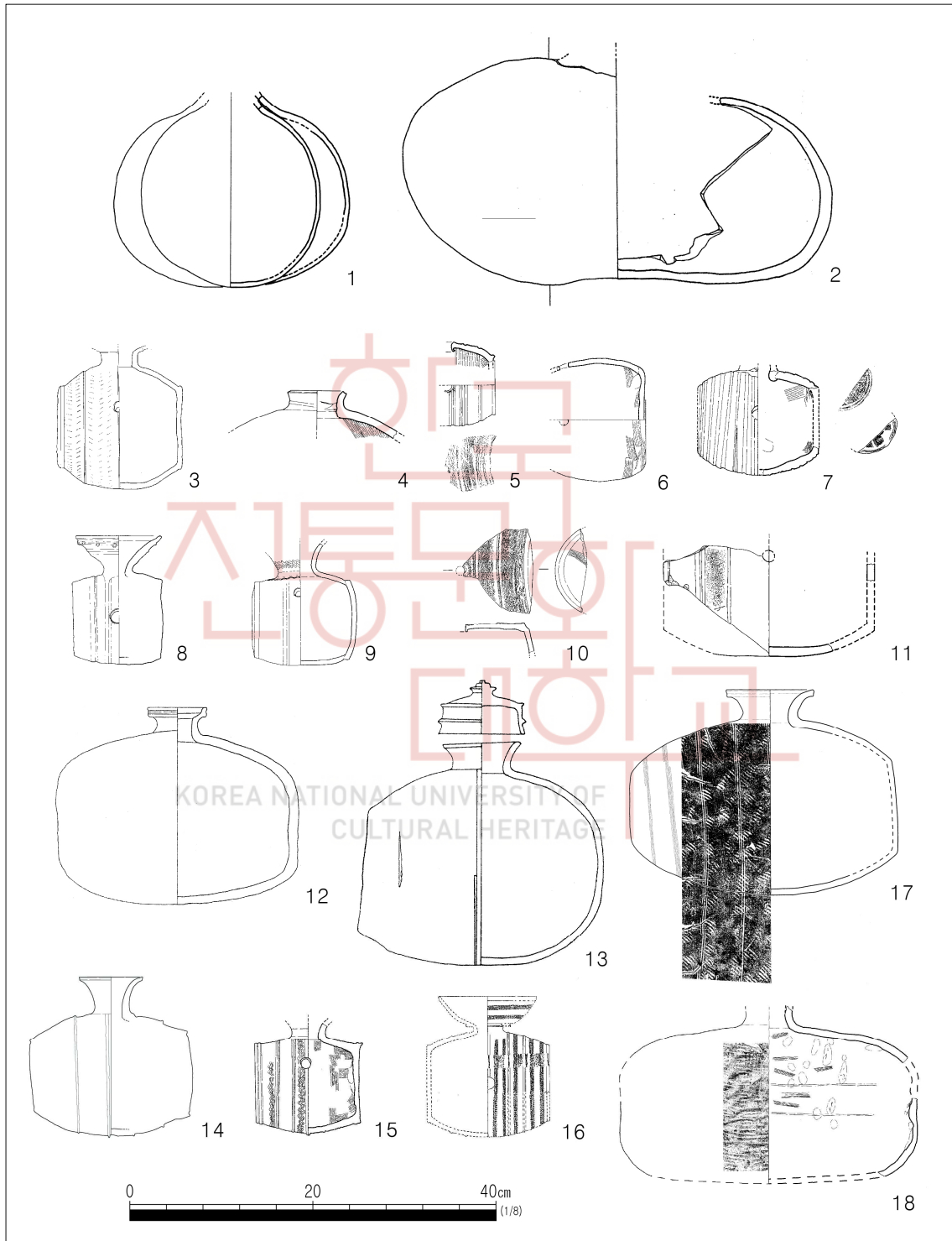
22) 영암 만수리 고분군(國立光州博物館 1984)

만수리 고분군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옹관묘 유적이다. 총 6-7개의 봉분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에서 1호분과 2호분이 먼저 조사되었고, 뒤이어 4호분도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2호분 1호 옹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6). 2호분은 봉분의 절반이 유실되었으나 4기의 옹관묘가 매장되어 있었다. 1호 옹관묘는 2호분의



<도면 6> 전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

1. 익산 미륵사지 2. 익산 모현동 2가 유적 3~4. 군산 산월리 유적 5. 김제 연정동 유적
6~7.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8. 전주 마전 유적 9. 전주 찰방 유적 10. 전주 원만성 유적
11~12. 완주 상운리 유적



〈도면 7〉 전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

1. 임실 도인리 유적 2. 고창 중월리 고분군 3. 고창 봉덕 유적 4~7. 광주 동림동 유적
 8. 광주 하남동 유적 9. 광주 산정동 유적 10. 광주 향동 유적 11. 광주 선암동 유적
 12. 함평 월계리 석계 고분군 13. 나주 반남 고분군 14. 나주 영동리 고분군
 15. 나주 장등 유적 16. 영암 만수리 고분군 17.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 18. 해남 용두리 고분

봉토 정부에서 약간 동북쪽에 치우쳐 있으며, 4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저부가 ‘U’자형인 원통형 옹관 2점을 이옹합구식으로 결합하여 매장하였다. 유물로는 도기장군, 호, 양이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옹관 2점 중 대형 옹관의 상부 퇴적토에서 발견되었다.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유구의 연대는 옹관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4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었다.

23) 여수 죽림리 차동 유적(마한문화연구원 2011)

죽림리 차동 유적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지구 14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7-17). 유구는 눈썹형 구를 갖춘 지하식의 횡구식 석곽묘이다. 유물은 북동쪽 모서리에서 장벽을 따라 도기장군, 유개직구호, 병, 방추차가 1열로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으로, 양측면이 편평하다. 유구의 연대는 입지, 축조기법, 출토유물, 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24) 해남 용두리 고분(國立光州博物館 2011)

용두리 고분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창리 578번지에 위치한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전방후원형이며, 매장주체부는 묘도를 갖춘 횡혈식 석실묘이다. 석실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도에서는 폐쇄석으로 사용된 할석외에 할석 외에 문비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기장군은 표토와 도랑, 석실묘 내부함몰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도면 7-18). 도기장군의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석실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었다.

4. 경상지역

1) 울릉도 천부리 고분(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2008)

천부리 고분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일대에 위치하며, 천부리 서쪽 구릉, 천부리 남쪽 산 정상 부근, 죽암마을 등 구릉이나 산등성이에서 2~3기씩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미도굴분인 천부리 2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1). 고분은 횡구식 석실분이며, 석실의 길이가 9.85m나 되는 매우 세장한 형태이다. 유물은 도기장군, 대부완, 인화문 병, 주름무늬병, 편구병, 청동제 팔찌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이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9세기에서 10세기대로 추정되었다.

2) 울진 덕천리 유적(朴光烈 외 2012)

덕천리 유적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372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C구역 토광묘 1-1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2). 유구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관을 중앙부에 안치한 후 4면에 걸쳐 충전토를 채웠다. 유물은 북단벽 충전토 내에서 도기장군 1점과,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청동손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3) 상주 서원리·지사리 유적(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서원리·지사리 유적은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외남면 지사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나지구 3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3). 유구는 소형의 횡구식 석곽묘이다. 시상은 석곽의 바닥 전면 에 설치하였으며, 벽석은 장방형의 할석을 세워쌓거나 혹은 눕혀쌓아 축조하였다. 유물은 남서단벽 부근에서 도기장군과 파배가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의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다. 양측면은 편평하다. 유구의 연대는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4) 상주 청리 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a)

청리 유적은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H-

가구역의 7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4).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가로쌓기와 세로쌓기하여 축조하였다. 유물은 북단벽에 마련된 공간과 동장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장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한측면은 편평하고 다른 측면은 둥글다. 외면에는 소성 시 부착된 이물질이 확인된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5) 구미 도중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7)

도중리 유적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19지점 A구역 5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5). 유구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 건물지이다. 건물지 내 외부에서 청자편, 도기편, 어골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6) 구미 봉산리 2유적(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봉산리 2유적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원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퇴적층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6). 자연지형의 곡간에 퇴적된 층으로, 도기장군을 비롯한 배, 완, 호 등의 도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경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7) 대구 유천동 103번지 유적(大東文化財研究院 2014)

유천동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03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E구역 3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7). 유구는 수혈식 주거지로, 바닥면 일부와 쪽구들로 추정되는 벽석의 일부만 잔존한다. 주변에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매납유구, 우물이 분포한다. 쪽구들 주변에서 인화문 도기장군, 완,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으며, 동체부 전면에 반원점문이 인화되어있다.

8) 달성 성하리 유적(大東文化財研究院 2015)

성하리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28-2번지에 위치한 다. 도기장군은 137-2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8). 삼국 시대 신라의 석곽묘로, 벽석은 2~5단 남아 있으며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시상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바닥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남단벽과 북단벽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북단벽 부근에서는 대가야 양식의 대부호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남단벽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9) 달성 성하리 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3)

성하리 유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1027-1번지에 자리한다. 도기장군은 부석시설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9). 유구는 교란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유적의 북쪽 경계의 계곡부와 가장 인접하고, 계곡의 유로방향과 평행하게 열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계곡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에서 수레바퀴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바닥에서 도기장군 1점, 개 1점, 호 저부편 1점, 호 대각편 4점, 발 1점, 파수 6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1/3가량만 잔존하며, 동체부 외면에 종방향의 침선이 6줄 시문되어 있다.

10) 영천 화남리 유적(朴光烈 외 2015)

화남리 유적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100-19번지에 위치한다. 유적은 삼국시대 신라의 분묘군으로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가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131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10). 유구는 대부분 유실되고 네 벽면의 2~3단 정도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유물은 서단벽의 바깥쪽에서 도기장군, 배, 파수부배, 대부장경호

가, 동단벽 안쪽에서 고배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11) 포항 인덕동 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6)

인덕동 유적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산3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1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11). 유구는 대부분이 유실된 수혈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자갈한 역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북장벽에서는 도기장군을 비롯한 도기류가, 동장벽에서는 철도자가, 남단벽에서는 청동제 이식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의 1/3이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초에서 중반으로 추정되었다.

12)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3)

북문로 왕경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288-4번지와 179-7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A지역 16-4호 수혈유구에서 1점(도면 8-12), 32호 수혈유구에서 1점(도면8-13)이 출토되었다. 우선 16-4호 수혈유구에서는 반구형 개, 일단 투창고배, 직구완, 양이부옹과 같이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32호 수혈유구는 평면형태 원형이며, 동편에 연접하여 매납유구가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통일신라 도기장군, 옹편, 평기와편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양측면과 저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유적 내 수혈유구의 연대는 내부 출토 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13) 경주 금령총(朝鮮古蹟研究會 1924)

금령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1924년에 일본인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하여 발굴된 삼국시대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다. 부장품 가운데 금제 방울이 들어 있어서 ‘금령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봉분은 발굴 당시 이미 파손되어 있었으며, 적석의 표면은 점토대로 덮여 있었다. 지하에 상자형 목곽을 조성하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장품을 매납하였다. 도기장군은 9점이 출토되었다(도면 8-14·15).

14) 경주 금관총(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金大煥·安耿鉢·姜玟州 2016; 國立慶州博物館 2016)

금관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1921년에 가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삼국시대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다. 부장품 가운데 화려한 금관이 출토되어 ‘금관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봉분은 직경 약 45m에 높이는 약 12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 바닥은 지반을 깊이 약 40cm 정도로 파내고 돌을 깔아 만들었고, 그 위에 세운 목곽과 적석부는 모두 지상에 설치되었다. 목관은 칠관(漆棺)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부에서 금관 등의 각종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 3점과 파편 약 6개체 분이 출토되었다(도면 9-1~3). 9개체는 대체로 비슷한 형태이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확인된다. 동체가 두드러지게 긴 것과 비교적 짧으며 원형에 가까운 것이 있으며, 구연에 갈고리모양의 돌기장식이 세 개인 것과 네 개인 것이 있다.

15) 경주 노서동 181-24번지 유적(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13)

노서동 181-24번지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81-24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3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9-4). 유구는 적심석 건물지로, 동서도로의 2차 측구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유물은 각종 도기편과 외흑내백유 중국자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은 8세기~9세기대 중국 하북성 당대 형요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해당한다.

16) 경주 천마총(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천마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일대에 위치하며, 1973년도에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채화장니가 출토되어 천마총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유구는 삼국시대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며, 분구 내부, 목곽 상부, 목관의 주위와 내부, 부장품수장곽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부장품수장곽에서 10점이 확인되었다(도면 9-5~7). 도기장군들은 한측면이 편평하며, 저부 역시 세울 수 있도록 약간 편평하다. 철부 내에서 출토된 1점과 철부 서편에 접해 있던 1점의 내부에는 각기 10여 분의 난각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철부 내에서 출토된 1점은 뚜껑에 덮인 채 기내에 물이 절반 이상 채워져 있어서 이 속에 들어 있던 난각들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도기장군들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며 모두 꼭지를 파기한 뚜껑을 씌웠다. 뚜껑은 같은 공간에서 출토된 단경호의 뚜껑과 유사하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었다.

17)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은 황룡사지 중심에서 약 310m 떨어진 산업도로를 따라 자리한다. 도기장군은 S200E293 조사갱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9-8). 조사갱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기장군은 한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경부와 견부 사이에 돌대가 둘러져 있다.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침선이 두줄씩 일정한 간격으로 4조 둘러져 있으며, 이중타원문이 횡방향으로 인화되어 있다.

18) 경주 신라왕경 유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2003)

도기장군은 황룡사지 동편 S1E1지구 제8가옥에서 1점(도면 9-9), 지표

에서 1점(도면 9-10)이 출토되었다. 제8가옥은 택지 내 서단부에 남북방향으로 연결한 여섯 채의 가옥들 중 북쪽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가옥이다. 내부면적이 634㎡에 달하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대지 내부에는 주간이 확인되는 건물지 7기가 세 번에 걸쳐 조성되었다. 도기장군은 동체부 절반만이 잔존하며, 남아 있는 한측면은 편평한 형태이다.

19) 경주 황룡사지(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황룡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신라의 대표적인 절터로, 사적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년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그 후에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주변이 발굴되었다.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도기장군 1점은 구경부만 결실되었으며 소형이다(도면 9-11). 동체부 외면에 사방으로 침선이 돌려져 있으며, 중앙에 ‘億乾(?건)’라 새겨져 있고 그 위쪽으로 ‘億’자로 보이는 점열문이 확인된다. 그리고 양측면 가장자리에는 ‘田(전)’자가 각 4군데에 적혀있어 총 8글자가 확인된다. 기록에 의하면 황룡사는 553년에 창건되었으며, 566년에 대략의 건물을 완공하고 569년에 주위에 담장을 둘러 1차적인 공사가 완료되었다.

20) 경주 안압지(國立中央博物館 1980)

안압지는 신라 문무왕 14년(674년)에 축조된 신라의 연못이다. 1975년부터 2년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연못 주변의 건물 26개소, 입수(入水), 출수(出水)를 위한 시설물들, 그리고 담장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 3만여 점이 출토되었다. 못 안과 주변 건물터 발굴로 출토된 3만여 점의 유물들은 향연 도중 실수로 빠트렸거나 935년 신라의 멸망과 관련되어 침략군이 쓸어 넣은 유물, 혹은 동궁이 폐허화 되면서 자연적으로 쓸려 들어간 유물 등으로 추정된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도기장군은 완형이며, 구연부가 반구형이다.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동체부 외면에 종방향으로 침선이 돌려져 있다(도면 9-12).

21) 경주 재매정지(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재매정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5호 우물에서 1점(도면 10-1), 습지채토장에서 1점(도면 10-2)이 출토되었다. 우물은 5호 건물지 내에 위치한다. 내부는 크게 4개의 층위로 구분되는데, 1층에서는 다량의 기와편과 잡석, 청자접시가 확인되었다. 2층 역시 기와편과 잡석이 출토되었으며, 중국제 청자와 백자편도 함께 확인되었다. 3층은 입자가 고운 빨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3층은 우물 사용 중 퇴적된 층으로 2차례 이상의 제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층에서는 도기장군외 완, 호, 병, 벼루 등이 출토되었는데,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 절반 정도만 잔존한다. 습지채토장은 점토 채굴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로, 자리가 협소하여 가옥이 들어서지 않고 도시구획 상 녹지지역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고식수막새를 비롯한 와전류와 고배, 뚜껑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 일부만 잔존한다. 채토장은 신라왕경을 재편한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2) 경주 천관사지(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천관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4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D구역 1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0-3). 유구는 9개의 적심으로 이루어진 정면 2칸, 측면 2칸의 건물지로, 각종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저부가 결실되고 경부를 포함한 동체부 상위 1/3 정도만 잔존한다. 외면에는 점열문이 지그재그 또는 파상문 형태로 시문되어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8세기에서 10세기대로 추정되었다.

23)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2)

손곡동·물천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산112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0-4).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복단벽과 서장벽에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복단벽 아래 부장공간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2/4분기 경으로 추정되었다.

24) 경주 경마장 C-I 지구 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b)

경마장 C-I 지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손곡동,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지구 15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0-5). 유구는 삼국시대 신라의 횡혈식 석실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연도는 좌편재이며, 비교적 짧은 편이다. 유물은 양단벽과 중앙에서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서단벽 남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완형이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엽 혹은 6세기 전엽에서 7세기 중엽으로 추정되었다.

25) 경주 방내리 고분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1997)

방내리 고분군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산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1호 적석봉토분에서 1점(도면 10-6), 44호 적석봉토분에서 2점(도면 10-7·8)으로 총 3점이 출토되었다. 21호 적석봉토분의 평면형태는 각이 있는 타원형이며, 토광벽에 기대어 적석곽 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적석하고 봉토를 올려 분구를 만들었다. 주곽의 남벽 밖으로는 2기의 부곽이 발견되었는데, 21-1호 부곽은 동쪽에, 21-2호 부곽은 서쪽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1-2호 부곽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44호 적석봉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적석부의 북쪽, 서쪽, 서남쪽에 배층이 조성되어있다. 도기장군은 주곽의 서벽 부근에서 2점이 출

토되었다. 2점은 서로 유사한 형태로, 양측면이 둥글며, 구연부와는 C자형으로 이어진다. 유구의 연대는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26) 경주 부지리 유적(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15)

부지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77-3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6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0-9).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자갈한 역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양단벽에서는 토기류가, 중앙에서는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남단벽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연단과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27) 경주 화곡리 유적(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화곡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8-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I 구역 자연수로1에서 2점, II구역 자연수로2에서 2점이 출토되어 총 4점이 확인되었다(도면 10-10~14). 자연수로 1은 모두 10개의 층위로, 61종의 유물 2,052점이 출토되었다. 자연수로2는 20개의 층위가 확인되었으며, 62종의 유물 1,262점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층위별 출토유물의 편년을 고려하여, 7세기대로 추정되었다.

28) 경주 노곡리 유적(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

노곡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1지점 구상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1). 유구는 U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 도기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이 편평한 형태이며, 측면에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29) 청도 송읍리 유적(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송읍리 유적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호 석실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2). 유구는 황구식 석실묘로, 벽석 2단 정도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시상은 2차에 걸쳐 설치되었다. 유물은 2차 시상 위와 동벽 쪽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동벽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체부 일부만 결실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추정되었다.

30) 울산 하삼정 고분군(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0)

하삼정 고분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51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3).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바닥에는 잔자갈을 사용하여 전면에 시상을 조성하였다. 유물은 양단벽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서단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완형이다. 유구의 연대는 분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에서 6세기대로 추정되었다.

31) 울산 양수정 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8)

양수정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양수정과 삼정리 일대에 해당한다. 도기장군은 2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4). 유구는 남편 기단 석렬과 초석 1개, 적심석 2개가 남아 있었으며, 상부에서 다량의 통일신라시대 기와편과 토기가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만 결실되었다. 한측면은 편평하고 다른 측면은 둥글게 만들었다. 동체부 중앙과 측면 부근에 각각 한 줄씩의 침선을 돌렸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 후반기로 추정되었다.

32) 울산 처용리 유적(慶南文化財研究院 2011)

처용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산19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II지구 나구역 신라 22호 목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5).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묘광과 목곽사이에 할석을 채워 목곽을 보강하였다. 유물은 주로 양단벽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서단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연과 동체, 저부 일부가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목곽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33) 울산 어음리 유적(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어음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351-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적석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6). 유구는 전체적으로 교란이 심한 상태이며, 할석이 정형하지 않게 쌓여져있었다. 유물은 토기류 37점과 석기류 1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1/4 정도만 잔존한다. 동체부 외면에는 2줄의 침선을 종방향으로 5조 돌렸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7세기 후엽으로 추정되었다.

34) 울산 상천리 유적(黃昌漢·鄭鉉錫·朴眞惠 2017)

상천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74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8호 수혈유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7).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유구에 비해 천석이 많이 깔려 있다. 유물은 도기장군을 비롯하여 고배 구연부편, 웅 구연부편, 대호 구연부편,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측면만 잔존하며, 내부에 조임한 흔적이 확인된다.

35) 울산 산하동 유적(蔚山文化財研究院 2014)

산하동 유적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405번지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신라 유구로는 목곽묘, 석곽묘, 토광묘, 옹관묘,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도기장군은 C지구 7·8·9호 석실묘에서 각 1점씩, C지구 124호 석곽묘에서 1점으로 총 4점이 출토되었다. 7호 석실묘는 매장주체부와 배묘, 부장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교란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도기장군은 매장주체부 남동쪽에 조성된 2개의 부장갱 중 서쪽에 있는 1호 부장갱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1-8). 8호 석실묘는 매장주체부와 부장갱이 확인되는 횡혈식 석실묘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좌편채연도이다. 부장갱은 매장주체부 남쪽에 2개가 조성되어 있다. 도기장군은 매장주체부의 동쪽에 있는 1호 부장갱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1-9). 9호 석실묘는 매장주체부의 시상만 확인된다. 시상은 잔자갈을 깔아 설치되었다. 유물은 매장주체부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봉토에 매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질옹 저부 1점과 도기장군 1점이 확인되었다(도면 11-10). 도기장군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124호 석곽묘는 묘광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벽석은 거의 유실되고 북동쪽 모서리에서 할석 1매만이 확인된다. 시상은 북단벽쪽 일부에 잔존하며 잔자갈을 깔아 설치하였다. 유물은 곽내부의 북서쪽에서 도기장군 1점, 남단벽쪽에서 옹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11). 도기장군은 한측면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석곽묘는 5세기 전엽에서 7세기 중엽으로, 석실묘는 6세기 후엽에서 7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36) 울산 연암동 산성(蔚山文化財研究院 2004)

연암동 산성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4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호 건물지 근처 우물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1-12). 유구는 3m 높이의 석조 우물이다. 서쪽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반원형의 석렬이 있다. 유물은 우물 내부의 점토층과 상부, 반원형의 석렬 주변, 우물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우물 상부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체부 외면 전면에 호선형의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었다.

37) 울산 약사동·북동 유적(崔守亨·崔得俊·朴世眞 2013)

약사동·북동 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364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128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1).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자갈한 역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시상과 동단벽 사이에는 유물부장공간을 두었다. 도기장군은 석곽 내 퇴적토에서 수습되었으며, 절반 정도만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38) 울산 북산동 손굴 유적(東西文物研究院 2012)

북산동 손굴 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일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II지구 23호 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2). 완형의 도기장군은 소성이 양호하여 전체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편평한 측면만 회황색을 띤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였다. 동체 내면은 관찰이 어렵지만 요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경부 내면에 점토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격자타날 후에 물손질 정면하였다.

39) 울산 화산리 고분군(부산대학교 박물관 1983)

화산리 고분군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산리 산42, 42-2, 43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1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3). 유구는 석실묘로, 횡구식이었는지 횡혈식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유물은 교란부위와 주변에서 고배 2점, 대부장경호 2점, 도기장군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중엽에서 후엽으로 추정되었다.

40) 함천 반계제 고분(국립진주박물관 1987)

반계제 고분은 경상남도 함천군 봉산면 송림리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가야의 고분군이다. 도기장군은 다A호분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4·5). 유구는 주곽, 부곽, 호석을 갖춘 수혈식 석곽묘이다. 주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위의 지면보다 약간 높게 조영한 반지상식이다. 도기장군은 주곽의 피장자 머리맡 쪽에서 출토되었다. 2점 모두 뚜껑만 온전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파손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유구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초에서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었다.

41) 산청 옥산리 유적(경상대학교 박물관 2013)

옥산리 유적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답626-15, 22, 648-3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53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6). 유구는 유실되어 양장벽의 최하단석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유물은 장경호와 연질의 도기장군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완형으로,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저부에는 약 0.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유구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42) 진주 정촌 유적(三江文化財研究院 2012)

정촌 유적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6-6, 예하리 산157-1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71호 수혈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7). 유구는 평면형태 장방형의 수혈주거지로 내부에서 아궁이와 고래의 기초시설로 추정되는 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아궁이와 고래의 구조물의 소토 범위 내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 일부만 잔존한다.

43) 창원 현동 유적(昌原大學 博物館 1990)

현동 유적은 대산(해발 727m)의 경사도가 갑자기 완화되어 완경사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토광묘와 석곽묘, 패총 등이 확인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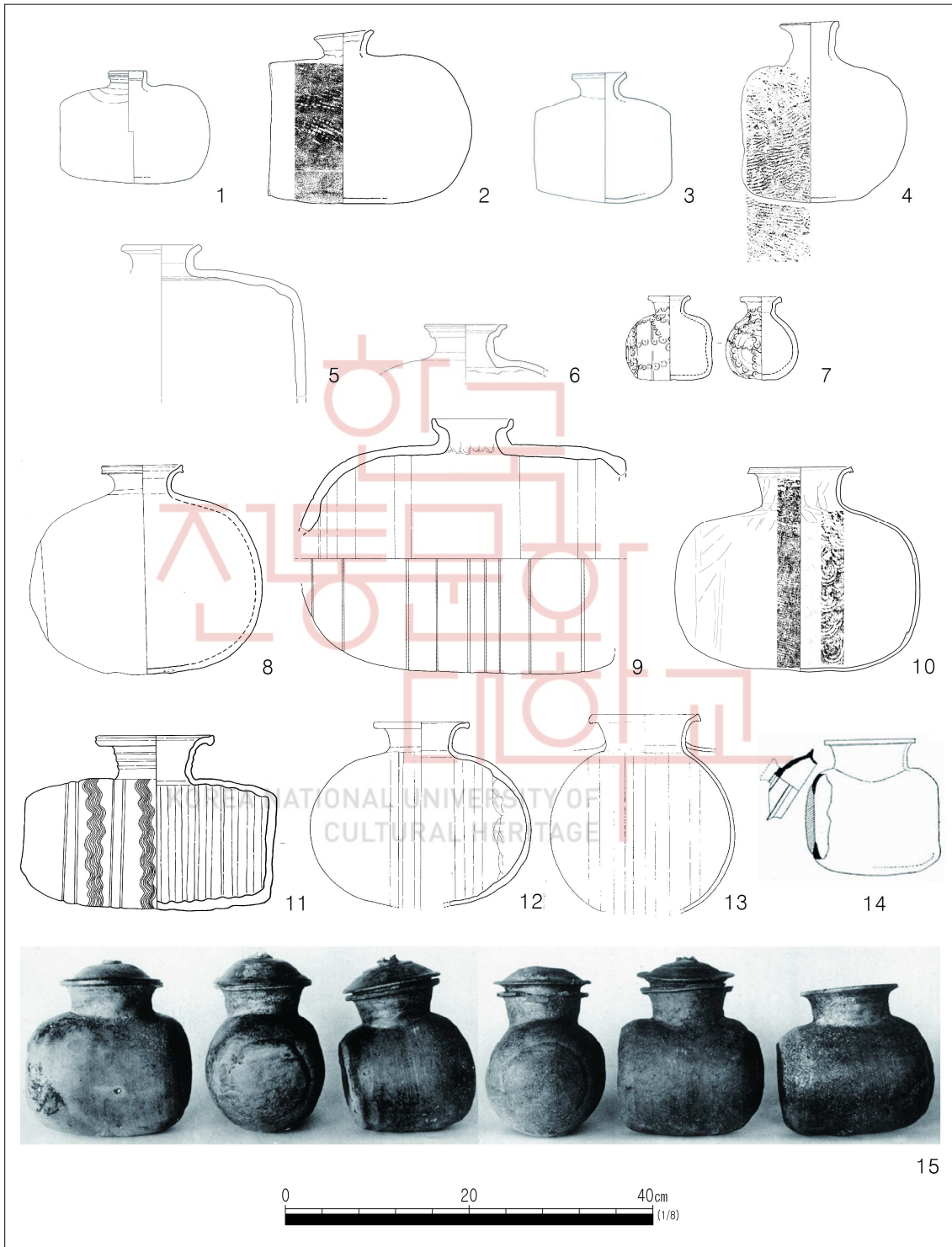
며, 도기장군은 7호 토광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8). 유구는 도굴흔적이 역력하며 출토된 유물의 파손 또한 심한 상태였다. 유물 배치는 유구의 양 끝에 분포하며, 토기류가 중앙부분으로 약간 몰려 있었다. 유물은 총 8점의 토기와 가락바퀴 1점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으며, 동체부에 2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구연부에도 1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양측면은 둥근 점토판을 붙여 막은 후 여분의 점토를 깎아내어 각이 지도록 하였다. 유구의 연대는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44) 양산 신기동 건물지(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신기동 건물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738-18번지에 자리한다. 도기장군은 I 지구 6호 건물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9). 유구는 정연한 형태나 구조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초석과 기단으로 보이는 부속물들과 구상수혈 등 건물지와 관련된 요소들이 확인되어 건물지로 추정되었다. 유물은 인화문이 시문된 개, 대부완, 편구병, 벼루와 도기 옹, 호,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구연부와 동체부가 1/4 정도 잔존한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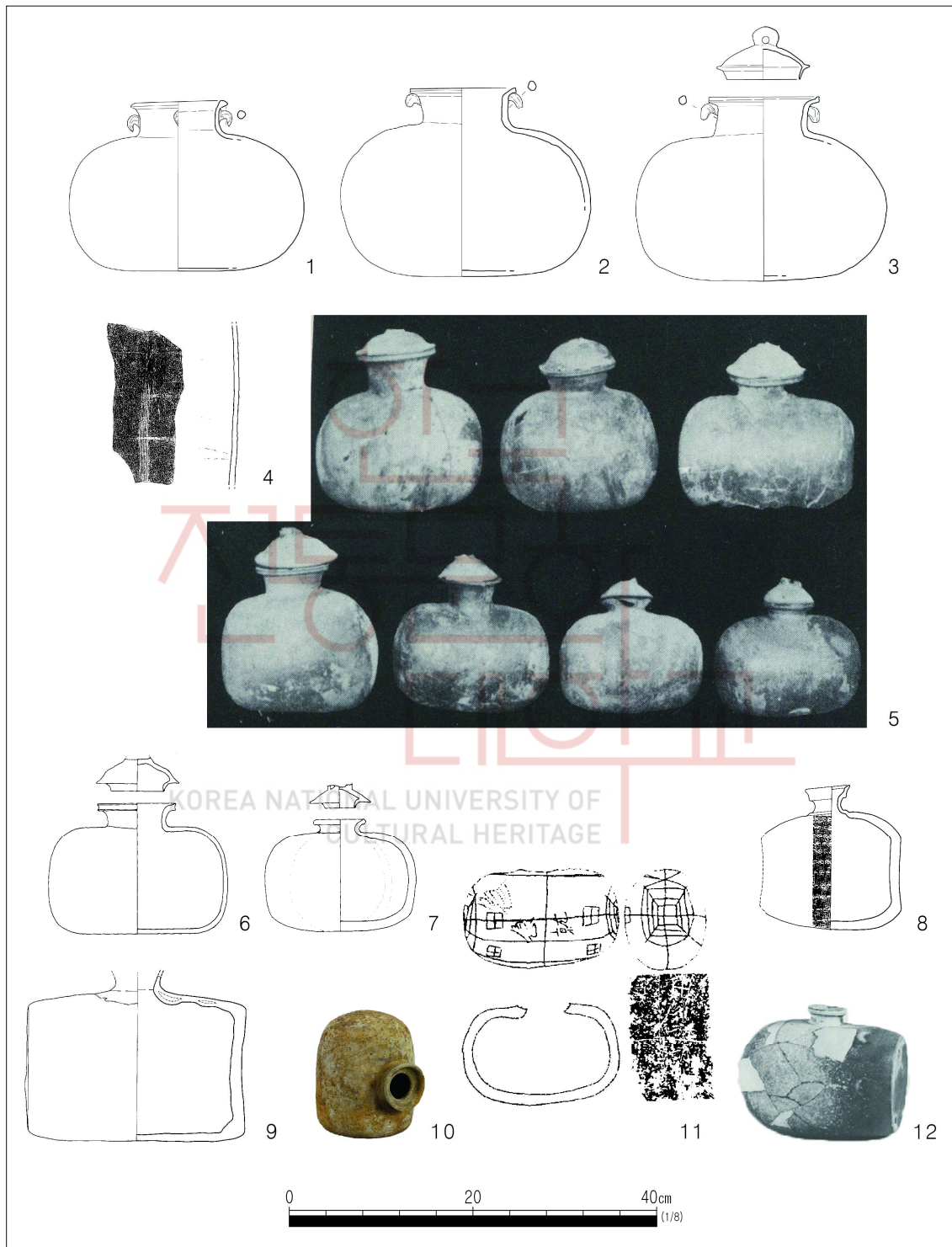
45) 김해 봉황동 유적(慶南考古學研究所 2007)

봉황동 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23-2번지에 위치한다. 도기장군은 27호 우물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2-10). 유구는 다른 우물에 비해 대형에 속하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우물 벽석의 최하단석과 바닥에 놓인 판석 아래로 2m 높이의 공간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우물의 흔적으로 판단되었다. 즉, 27호 우물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우물을 폐기한 후 다시 중·상부만 재축조한 후 새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물의 내부에서는 도기장군, 귀면화편,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말의 견갑골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도기장군은 구연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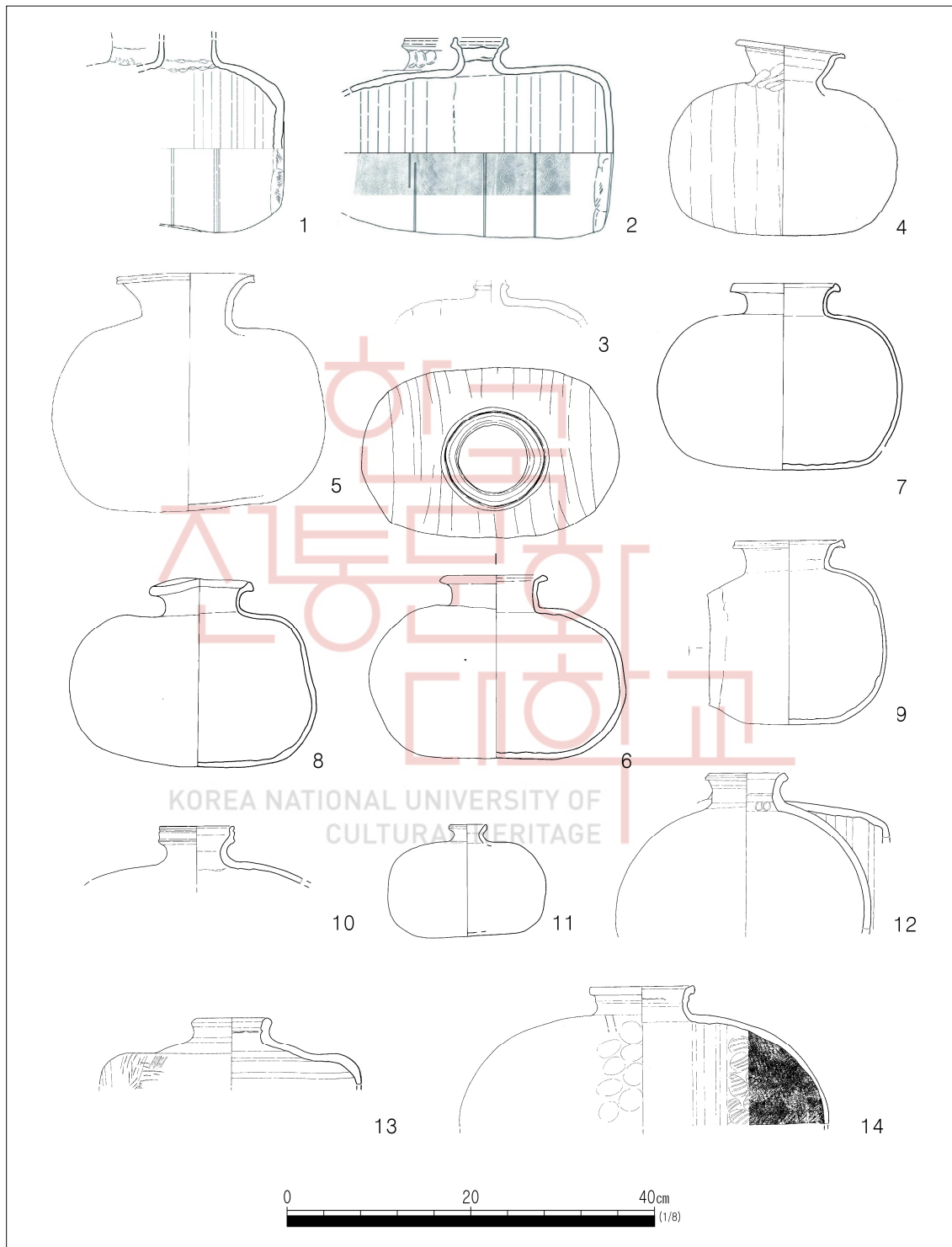
<도면 8>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1(도판 축척 부동)

1. 울릉도 천부리 고분 2. 울진 덕천리 유적 3. 상주 서원리·지사리 유적 4. 상주 청리 유적
5. 구미 도중리 유적 6. 구미 봉산리 2유적 7. 대구 유천동 103번지 유적
8. 달성 성하리 유적(대동) 9. 달성 성하리 유적(삼한) 10. 영천 화남리 유적
11. 포항 인덕동 유적 12~13.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14~15. 경주 금령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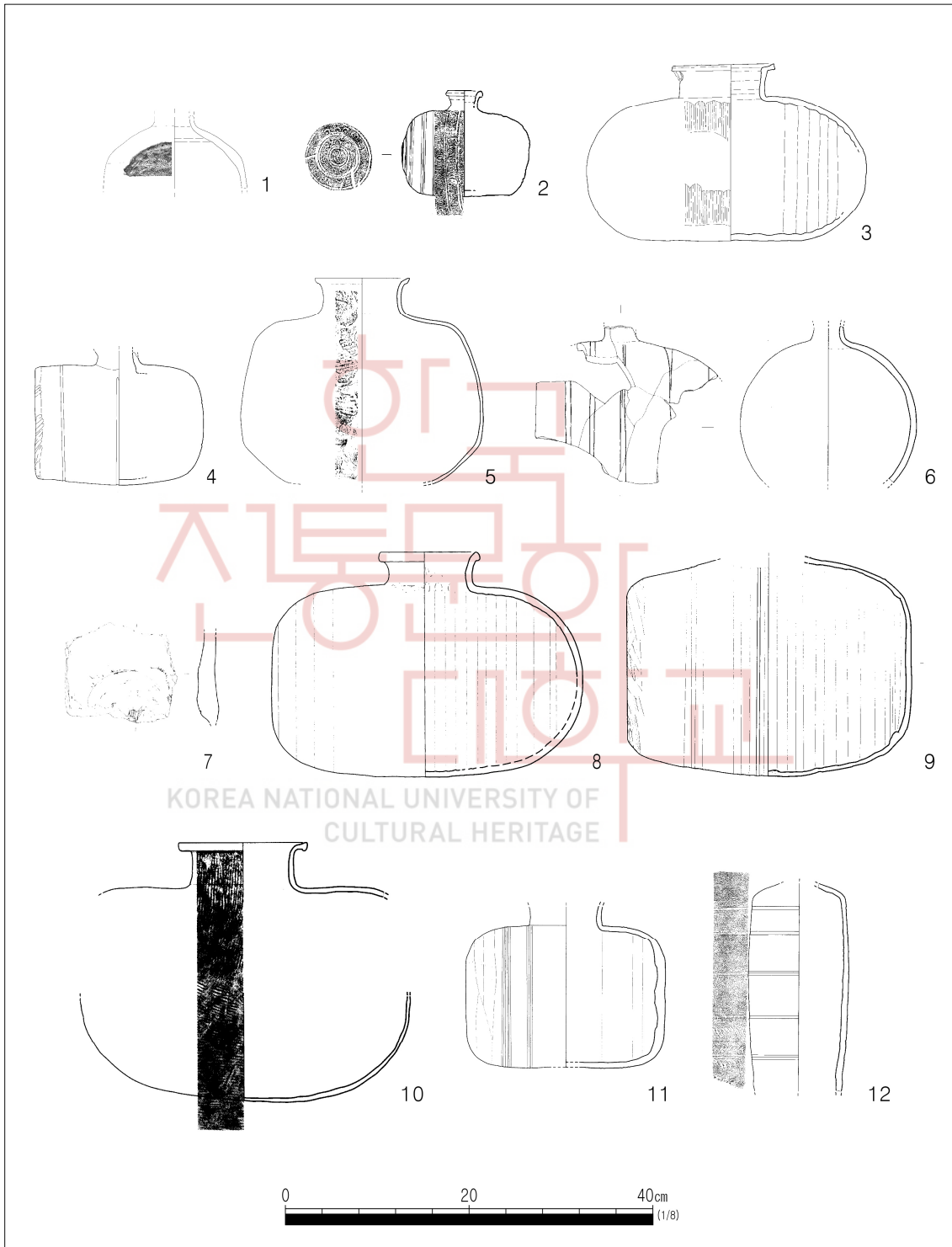
<도면 9>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2(도판 축척 부동)

- 1~3. 경주 금관총 4. 경주 노서동 181-24번지 유적 5~7. 경주 천마총
8.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 9~10. 경주 신라왕경 유적 11. 경주 황룡사지 12. 경주 안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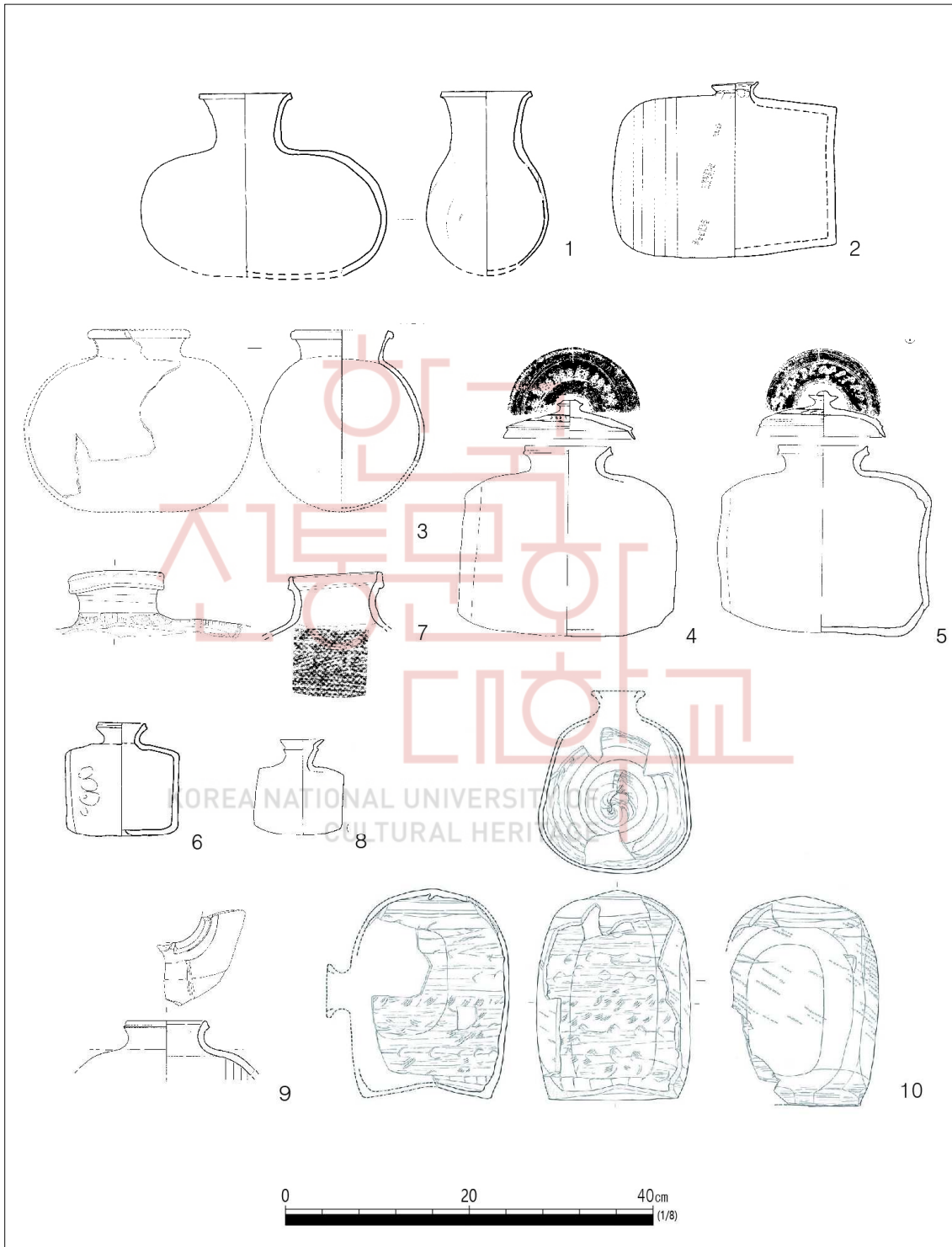
〈도면 10〉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3

1~2. 경주 재매정지 3. 경주 천관사지 4.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 5. 경주 경마장 C-I 지구 유적
6~8. 경주 방내리 고분군 9. 경주 부지리 유적 10~14. 경주 화곡리 유적



<도면 11>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4

1. 경주 노곡리 유적 2. 청도 송읍리 유적 3. 울산 하삼정 고분군 4. 울산 양수정 유적
5. 울산 처용리 유적 6. 울산 어음리 유적 7. 울산 상천리 유적 8~11. 울산 산하동 유적
12. 울산 연암동 산성



<도면 12> 경상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5

1. 울산 약사동·북동 유적 2. 울산 북산동 손골 유적 3. 울산 화산리 고분군
4~5. 합천 반계제 고분군 6. 산청 옥산리 유적 7. 진주 정촌 유적 8. 창원 현동 유적
9. 양산 신기동 건물지 10. 김해 봉황동 유적

결실되었으며, 네 면을 납작하게 눌러 마치 편병과 같이 제작하였다.

5. 강원·제주지역

1) 인제 부평리 유적(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부평리 유적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82-1번지에 자리한다. 도기장군은 통일신라시대 37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3-1). 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구들과 출입구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면에서 도기장군, 호, 파수부 호, 완, 등잔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한 측면이 편평하며, 동체부 중앙에 침선문이 확인된다. 요도구를 사용하여 동체는 횡방향으로 측면은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2) 춘천 근화동 유적(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근화동 유적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61-1번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철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석군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3-2). 유구는 다양한 크기의 석재가 채워져 형성되었으며, 채워지는 과정에서 불을 피우거나 다수의 도기를 파쇄하는 등의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기장군을 비롯한 인화문 개, 유개합 개, 대부완, 부가구연 장경호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석군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7세기 초에서 7세기 중반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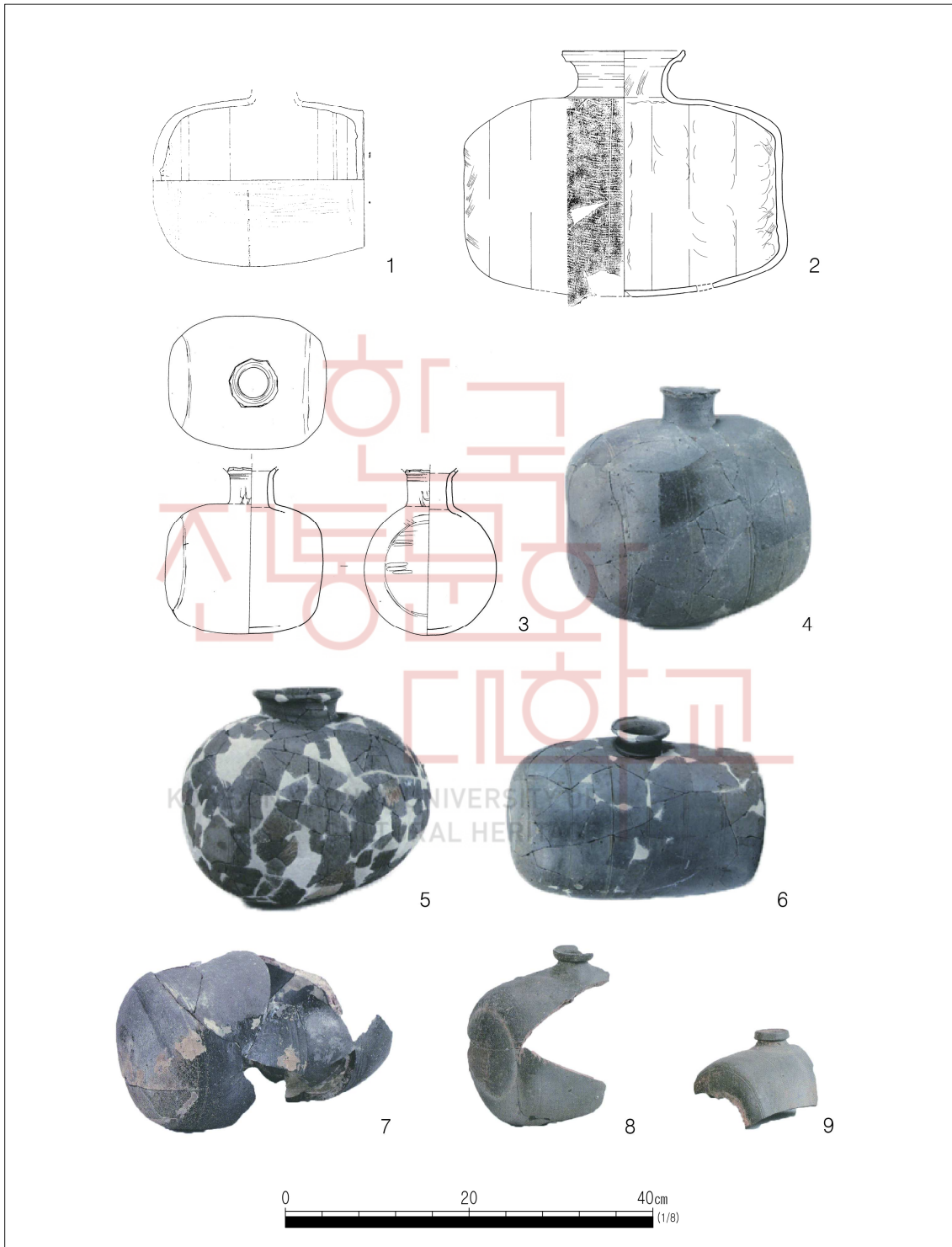
3) 강릉 병산동 고분군(江原文化財研究所 2003)

병산동 고분군은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산28-4번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신라의 봉토를 갖춘 석곽묘, 석곽옹관묘, 추정 제사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도기장군은 13호 석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13-3).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로, 1~3단만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특별한 시상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다. 유물은 단경호, 심발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금동이식 1쌍이 출토되었다. 도기장군은 석곽의 동단벽쪽에서 구순부가 결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이후로 추정되었다.

4) 제주 용천동굴(국립제주박물관 2011)

용천동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에 위치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현재 발견된 출입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상류, 바닷가인 북쪽은 하류로 구분되는데, 상류구역 19개 지점과 하류구역 42개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들과 철기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토기는 전 구간에 걸쳐 확인되는데 특히 하류 1,470~1,340m지점에서 밀집 분포한다. 도기장군은 총 6점이 확인되었다(도면 13-4~9). 용천동굴 출토 유물들의 편년은 대부분 8세기 전후로,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굴의 출입이 일정기간 이루어진 후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3> 강원·제주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도판 축척 부동)

1. 인제 부평리 유적 2. 춘천 근화동 유적 3. 강릉 병산동 유적 4~9. 제주 용천동굴

Ⅲ.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분포 양상

1. 제작기법 검토

장군의 제작기법은 기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형식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형식분류에 앞서 장군의 제작기법을 살펴본 연구를 검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제작기법을 면밀히 검토한 연구는 일본 스에키 장군(春日真実 2001), 화성 가재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전기 도기장군(송윤정 2012)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검토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출토품에서 확인되는 제작과 관련된 흔적들을 함께 검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동체부 제작기법

장군은 동체부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동체부 일부가 뚫려 구연부가 접합된다. 다시 말하자면 장군의 동체부는 그 상부가 열려 구연이 되는 호와 달리 위·아래가 모두 막힌 형태로 제작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동체부를 만들기 위한 제작기법은 동체부를 폐쇄하기 전, 동체부가 열려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개구부(開口部)의 수에 따라서 1개를 막을 경우는 일면폐쇄(一面閉鎖), 2개를 막을 경우는 양면폐쇄(兩面閉鎖)로 구분할 수 있다. 일면폐쇄의 제작기법은 호의 제작기법과 동일하게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려 상부가 열린 상태에서 이 열린 한 면[開口部]을 막는 것이다. 양면폐쇄의 제작기법은 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체부를 올려 관통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 양쪽의 열린 면[開口部]을 막는 방법이다(春日真実 2001; 송윤정 2012).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장군은 편평한 바닥판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기 때문에 바닥판을 놓는 일면폐쇄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측면이 둥근 장군은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 모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장군과 달리 동체부의 제작기법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통 양측면의 형태가 같고 폐쇄부 마감법에도 차이가 없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만 동체부의 제작기법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기장군의 동체부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9호분 기관, 청주 오산리 유적 4호 가마, 경주 금령총 출토품 등과 같이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이 출토되고 있어 일면폐쇄법으로 동체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측면이 둥근 형태인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출토품의 내부를 살펴보면 한측면에는 기벽을 조여 폐쇄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다른 측면에는 폐쇄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도 일면폐쇄법으로 동체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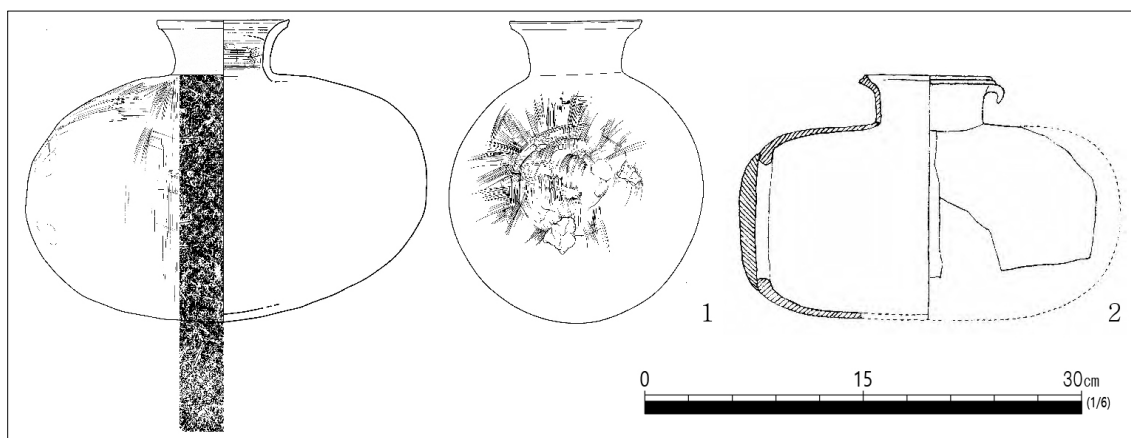


<도면 14> 동체부 제작기법-일면폐쇄법 모습(임승덕 2011)

한편, 경주 금관총의 발굴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체를 먼저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 그 양단을 뚜껑으로 닫는 것처럼 합성한 것임을 파손 토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이를 통해 양면폐쇄법으로도 동체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대 도기장군은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려 상부가 열린 상태에서 이 열린 한 면[開口部]을 막는 일면폐쇄법과 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체부를 올려 관통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 양쪽의 열린 면[開口部]을 막는 양면폐쇄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2) 폐쇄부 제작기법

장군은 형태적 특성상 반드시 폐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장군의 폐쇄부 제작에는 두 가지 방법이 확인된다. 하나는 점토띠를 점점 좁게 말아가며 붙인 다음 타날하여 완전히 공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조임 기법(임승덕 2011), 회전조이기법(春日眞実 2001, 송운정 2012)이라 불린다. 다른 하나는 원판을 덮고 접합 부위를 타날하는 방법으로, 원판폐쇄법(春日眞実 2001, 송운정 2012)이라 불린다. 고대 도기장군의 폐쇄부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조임 기법과 원판폐쇄법이 모두 확인된다. 홍성 남장리 유적 2호 토광묘 출토품 살펴보면 조임 기법으로 메운 나선형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도면 15-1). 반면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파손품에서는 측면을 넓은 원판으로 덮어 메운 흔적이 관찰된다(도면 15-2). 그러나 폐쇄부 제작기법 역시 동체부 제작기법과 마찬가지로 외면을 정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작흔이 내면에서처럼 강하게 남지 않으며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조임 기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점토띠를 점점 좁게 말아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견부와 저부가 곡선을 이루기 쉽다. 반면 원판폐쇄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기면을 쌓아 올린 다음 조이는 과정 없이 넓은 원판을 덮기 때문에 견부와 저부가 직선을 이루기 쉽다. 따라서 내부 관찰이 어렵더라도 견부와 저부의 형태를 통해 장군의 폐쇄부 제작기법을 어느 정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 15> 폐쇄부 제작기법(1-홍성 남장리 2호 토광묘, 2-경주 금관총)

3) 구경부 제작기법

동체부가 완성된 다음에는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어 구경부를 부착하게 된다. 구경부를 부착하는 방법은 절개면 위로 점토띠를 덧대어 쌓아 올리는 일체성형법과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이 알려져 있다(송윤정 2011). 고대 도기장군의 경우, 대다수 유물의 구경부 부근이 물손질 정면되어 있고 동체부와 분리된 느낌이 강하게 확인된다(도면 16). 또한 외면에 점토로 덧댄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고대 도기장군에는 구경부 분할성형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6> 구경부 제작기법-분할성형법 모습
(1-경주 부지리 16호 석곽묘, 2-경주 화곡리 II구역 자연수로2)

4) 제작 과정 복원

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연구와 출토 자료에서 발견되는 흔적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파악해보았다.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으로 동체부를 제작하였으며, 조임 기법과 원판폐쇄법으로 열린 면을 메웠다. 그리고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으로 구경부가 부착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해보도록 하겠다. 제작 과정은 장군의 동체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의 경우, 일면폐쇄법 또는 양면폐쇄법으로 동체부가 제작되었다. 일면폐쇄법은 호의 제작기법과 동일하게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린다. 그리고 제작 시 폐쇄부의 열린 한 면을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한 후 타날하여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게 만든다.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인 편평한 측면 역시 타날하여 둥글게 만든다. 그 다음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고 별도로 만든 구경부를 부착하여 마무리한다. 모두 4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한편, 임승덕(2011)은 동체부 중위에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구경부를 부착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 편평한 측면을 둥글게 타날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대 도기장군의 경경 평균값은 7.4cm로, 손이 들어가기에 너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평한 측면을 타날하여 둥글게 만드는 과정은 구경부를 부착할 구멍을 뚫기 이전에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양면폐쇄법은 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체부를 올려 관통하는 형태로 동체부를 만든다. 그리고 제작 시 폐쇄부의 열린 면을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한 후 타날하여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게 만든다.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열린 면 역시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한다. 그 다음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고 별도로 만든 구경부를 부착하여 마무리한다. 마찬가지로 모두 4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의 경우 일면폐쇄법으로 제작되었다. 앞서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을 일면폐쇄법으로 제작하는 방법과 같이 바닥판을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올린다. 열린 한 면을 조임 기법 또는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한 후 타날하여 원저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게 만든다. 유공장군과 같이 양측면이 편평한 도기장군은 타날하는 과정 없이 열린 한 면을 원판으로 덮어 폐쇄한다. 그리고 제작 시 저부인 편평한 측면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동체부 중위에 구멍을 뚫어 별도로 만든 구경부를 부착한다.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를 조성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모두 3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2. 속성과 형식 분류

1) 속성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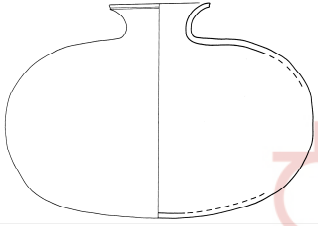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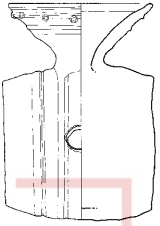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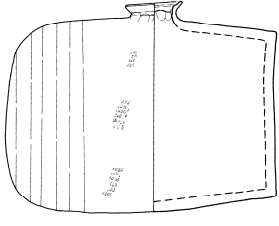
고대 도기장군은 남한지역에서 현재까지 총 164점이 출토되었다. 남한 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은 명회청색, 연회색, 회갈색, 회색, 회적색, 회청색, 회흑색, 흑청색, 흑회색 등 회색계의 색조를 가진다. 경도는 대부분 경질이다. 유물은 점토띠를 쌓아 만들어 내면에 테쌓기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외면에는 격자문, 승문,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여러 가지 속성 중 동체부 형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작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체부 형태의 변화는 제작 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며,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간성뿐만 아니라 지역성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구경부 형태, 제작기법과 관련된 견부와 저부 형태, 경경의 너비는 유의미한 속성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고대 도기장군의 속성을 분류해보았다.

(1) 동체부 형태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체부의 형태는 제작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이나 양면폐쇄법으로 제작되며, 모두 4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반면,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으로 제작되며,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를 조성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모두 3단계의 공정으로 제작이 이루어진다. 즉,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이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제작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과 양측면 또는 한측면이 편평한 도기장군으로 동체부의 형태를 구분해보았다. 양측면 또는 한측면이 편평한 도기장군은 다시 양측면 편평형과 한측면 편평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양측면 편평형은 양측면 모두 편평하여 대칭을 이루며, 유공장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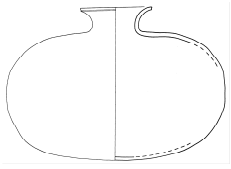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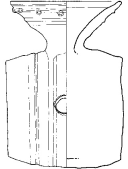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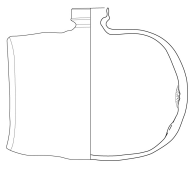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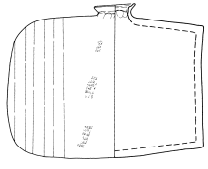
대표적이다. 한측면 편평형은 한측면이 편평하고 다른 측면이 둥글게 성형되어 비대칭을 이룬다(도면 17).

속성 도면	양측면 둥근형	양측면 또는 한측면 편평형	
		양측면 편평형	한측면 편평형
도면			
	군산 산월리 2호분	나주 장동 8호 수혈	울산 북산동 손골 3-23호묘

<도면 17> 고대 도기장군의 동체부 형태 분류

(2) 구경부 형태

장군의 구경부는 단경병과 같이 높이가 낮고 동체부에 비해 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횡병(橫瓶) 또는 장병(長瓶)이라 불린다. 고대 도기장군의 구경부는 형태에 따라 C자형, 나팔형, 반구형, 매우 짧은 단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C자형은 경부에서 좁아졌다가 구연부에서 넓어지는 형태로, C자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벌어진다. 나팔형은 C자형과 같이 경부에서 좁아졌다가 구연부에서 넓어지는 형태이나, 구경이 동최대경에 가깝게 벌어진다. 주로 유공장군에서 확인된다. 반구형은 구연부 부근에서 꺾어져

속성 도면	C자형	나팔형	반구형	매우 짧은 단경형
도면				
	군산 산월리 2호분	나주 장동 8호 수혈	인천 영흥도선 E4-E5	울산 북산동 손골 3-23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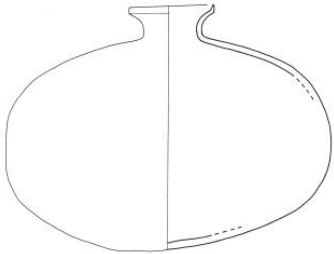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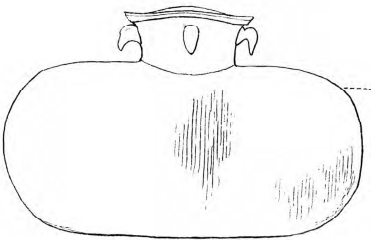
<도면 18> 고대 도기장군의 구경부 형태 분류

직립하며, 꺾이는 부분에 단이 확인된다. 매우 짧은 단경형은 명칭 그대로 구경부 높이가 2~3c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하는 형태가 확인된다(도면 18).

(2) 견부와 저부 형태

남한지역 출토 고대도기장군의 견부와 저부 형태는 곡선형과 직선형이 확인된다. 곡선형은 견부와 저부가 둥근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원저단경호와 같은 형태를 띤다. 직선형은 견부와 저부가 반듯한 직선을 그리는 것으로, 원통을 눌린 것과 같은 형태이다. 곡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진다(도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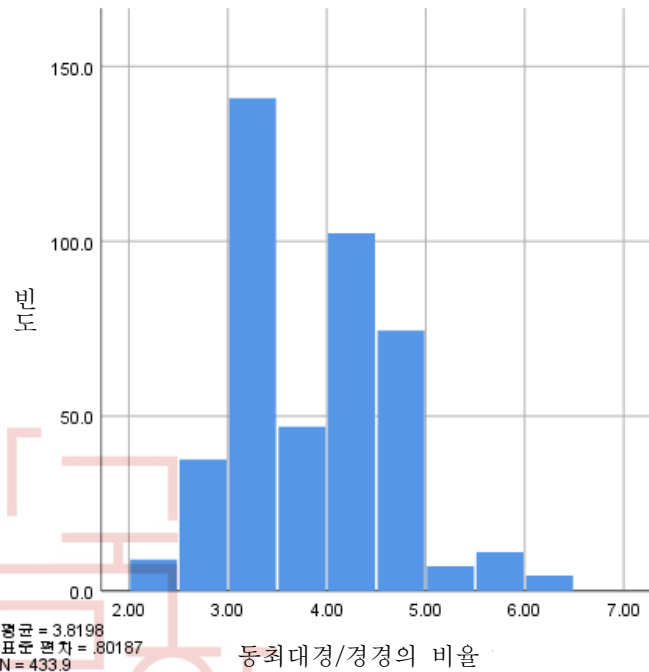
제작기법의 검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견부와 저부의 형태는 폐쇄부 제작기법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조임 기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견부와 저부가 곡선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판폐쇄법으로 폐쇄부를 메우는 경우에는 견부와 저부가 직선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전기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검토한 송윤정(2012)의 연구에 따르면, 견부와 저부가 반듯한 직선을 그리지만 조임 기법으로 폐쇄한 도기장군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부와 저부의 형태는 폐쇄부 제작기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전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속성 도면	곡선형	직선형
도면		
	군산 산월리 2호분	경주 금관총

<도면 19> 고대 도기장군의 견부와 저부 형태 분류

(4) 경경의 너비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은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으로 구경부가 부착되었다. 제작기법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경경의 너비를 좁게 또는 넓게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토품에서도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아 병의 목적에 충실한 형태와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어 오히려 호에 가까운 형태가 확인된다. 경경과 동최대경의



<도면 20> 동최대경/경경의 비율 히스토그램

비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보면, 경경과 동최대경이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과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에 수치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20). 이는 동최대경의 1/3 정도로 경경이 비교적 넓은 것과 동최대경의 1/4 정도로 경경이 비교적 좁은 것이 주로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이 구분되는 4를 기준으로 <도면 21>과 같이 속성을 분류해보았다.

속성 도면	동최대경/경경 ≥ 4	동최대경/경경 < 4
도면		
	군산 산월리 2호분	경주 방내리 21-Ⅲ호분

<도면 21> 고대 도기장군의 경경의 너비에 따른 분류

2) 형식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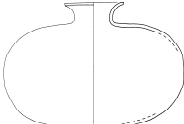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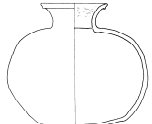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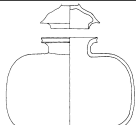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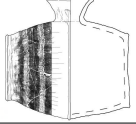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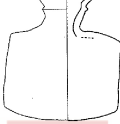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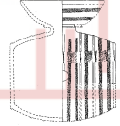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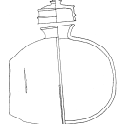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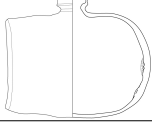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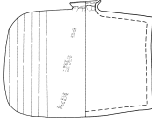
앞에서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속성을 분류해보았다. 이제 이를 조합하여 형식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제작기법의 변화와 밀접하여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동체부의 형태를 대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양측면 둥근형을 A형, 양측면 편평형을 B형, 한측면 편평형을 C형으로 설정하였다.

동체부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경부의 형태를 중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구경부가 곡선을 그리며 벌어지는 C자형을 a형, 구경이 동최대경에 가깝게 벌어지는 나팔형을 b형, 구연부 부근에서 꺾어져 직립하는 반구형을 c형, 높이가 2~3cm 정도로 매우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하는 매우 짧은 단경형을 d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폐쇄부 제작기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었던 것으로도 판단되는 견부와 저부 형태를 소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견부와 저부가 둥근 곡선을 그리는 곡선형을 가형, 견부와 저부가 반듯한 직선을 그리는 직선형을 나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경의 너비를 세부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경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이 4 이상인 것을 1형, 4 미만인 것을 2형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도면 22>와 같이 모두 11가지의 형식이 확인되었다.

동체부 형태	구경부 형태	견부와 저부 형태	경경의 너비	형식	도면	유적명
양측면 동근형 (A)	C자형 (a)	곡선형 (가)	동최대경 /경경 ≥ 4 (1)	Aa가1		군산 산월리 2호분
			동최대경 /경경 < 4 (2)	Aa가2		경주 방내리 21-III호분
		직선형 (나)	동최대경 /경경 < 4 (2)	Aa나2		경주 천마총
양측면 편평형 (B)	C자형 (a)	곡선형 (가)	동최대경 /경경 ≥ 4 (1)	Ba가1		청주 오산리 I-4호 가마
		직선형 (나)	동최대경 /경경 < 4 (2)	Ba나2		창원 현동 7호 토광묘
	나팔형 (b)	곡선형 (가)	동최대경 /경경 < 4 (2)	Bb가2		영암 만수리 2호분 1호 옹관묘
한측면 편평형 (C)	C자형 (a)	곡선형 (가)	동최대경 /경경 ≥ 4 (1)	Ca가1		나주 반남 신촌리 9호분 기관
		직선형 (나)	동최대경 /경경 < 4 (2)	Ca나2		부여 능산리사지
	반구형 (c)	곡선형 (가)	동최대경 /경경 ≥ 4 (1)	Cc가1		함평 월계리 석계 90-4호분
		직선형 (나)	동최대경 /경경 ≥ 4 (1)	Cc나1		인천 영흥도선 E4-E5
	매우 짧은 단경형 (d)	직선형 (나)	동최대경 /경경 ≥ 4 (1)	Cd나1		울산 복산동 손골 3-23호묘

<도면 22>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분류

3. 형식변천과 단계 설정

고대 도기장군은 현재까지 총 164점이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동체부와 구경부의 형태에 따라 총 11가지의 형식으로 분류되었다. 이제 출토품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자의 추정 연대와 공반 출토된 유물 등을 검토하여 각 형식의 시기 분포를 알아보려고 한다.

Aa가1형식은 서울 몽촌토성 1·7호 저장공, 풍납토성 3호 주거지·206호 유구, 우면동 유적 가-4호 주거지,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269호 수혈유구,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16호 토광묘, 서산 부장리 유적 I-44호 수혈, 언암리 낫머리 유적 다-55호 묘, 홍성 남장리 유적 2호 토광묘, 공주 산의리 고분군 19호 석실묘, 서천 봉선리 유적(충남역사) 3-I 1호 석실묘, 봉선리 유적(충청) 3-9호 석곽묘,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2ws 트렌치, 능산리사지 북편 중앙수로, 군산 산월리 유적 2호분,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나2·3구, 전주 마전 유적 3호분 1호 석실묘, 완주 상운리 유적 라-3호 분구묘 4-1호 목관·다-1호 분구묘 주구, 임실 도인리 유적 1호 기타유구, 고창 중월리 유적 151호 구, 달성 성하리 유적 137-2호 석곽묘 총 20개소 유적의 25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몽촌토성 출토품으로, 보고자는 1988년도 몽촌토성 발굴조사 시 출토된 모든 토기 개체들을 변천을 살펴보고 도기장군을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다(서울대학교 박물관 1988). 다른 출토품들은 대체로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후엽에 해당되는 연대로 보고되었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몽촌토성 1·7호 저장공, 우면동 유적 가-4호 주거지, 봉선리 유적(충청) 3-9호 석곽묘 등의 출토품들은 대체로 동체부가 횡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의 형태를 띤다. 점차 산의리 고분군 19호 석실묘, 가탑리 백제유적 2ws 트렌치 등의 출토품 등과 같이 동최대경에 비해 동체고가 높아져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가탑리 백제유적 2ws 트렌치 출토품으로, 유적은 6세기 후엽에 조성되어 7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편년되었다(김성남 외 2010).

Aa가2형식은 서울 몽촌토성 4호 저장공 출토품만 해당된다. 주변 유구인 1호·7호 저장공에서 Aa가1형식의 도기장군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서울대학교 박물관 1988).

Aa나2형식은 영천 화남리 유적 131호 석곽묘, 경주 금관총, 천마총, 손곡동·물천리 유적 1호 석곽묘, 경마장 C-I 유적 15호 석실분, 방내리 고분군 21호·44호 적석봉토분, 울산 하삼정 고분군 51호 석곽묘, 약사동·북동 유적 128호 석곽묘, 화산리 고분군 21호분, 춘천 근화동 유적 석굴, 강릉 병산동 고분군 13호분, 제주 용천동굴 총 12개소 유적의 17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금관총 출토품으로, 적석목곽분 편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5세기 후엽에 해당한

<표 2> 연구자별 신라 적석목곽분의 편년안 비교(金東潤 2009 수정 후 인용)

	伊藤秋男 (1972)	藤井和夫 (1979)	崔秉鉉 (1992, 2000)	金龍星 (1998)	白井克也 (2003)	李漢祥 (2004)	金斗喆 (2007)	金東潤 (2009)
4C 2/4			황남동 109호 3·4곽					
4C 3/4	황남동109호 3·4곽							
4C 4/4			황남대총 남분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동 109호 3·4곽			
5C 1/4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동 109호 3·4곽			
5C 2/4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남분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동 109호 3·4곽
5C 3/4	금관총 금령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은령총 천마총	황남대총 남·북분 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남분
5C 4/4		금관총 식리총		천마총	금관총	금관총 식리총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북분
6C 1/4		금령총 천마총	호우총	금령총 호우총	금령총	금령총 천마총	천마총 금령총	금령총 식리총 천마총
6C 2/4	호우총	호우총			천마총 은령총 호우총	은령총 호우총	호우총	은령총 호우총

다(표 2). 방내리 고분군 21호·44호 적석봉토분 역시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1997). 이 밖의 대부분 출토품이 5세기 후엽에서 7세기대에 해당되는 연대로 보고되었다.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용천동굴 출토품으로, 통일신라시대 토기들과 철기 유물들이 함께 확인되었다. 용천동굴 출토 유물들의 편년은 대부분 8세기 전후이며,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굴의 출입이 일정기간 이루어진 후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국립경주박물관 2011). 따라서 Aa나2형식은 5세기 후엽에 등장하여 8세기 전엽까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Ba가1형식은 청주 오산리 유적 I-4호 가마, 나주 영동리 고분군 1호분 1호 석실묘 총 2개소 유적의 2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오산리 유적 I-4호 가마는 연소부 바닥에서 출토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A.D.330)를 고려하여 4세기 중엽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최근 5세기 전엽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서현주(2018)는 오산리 유적 4호→2호 가마 출토품과 광주 행암동 3호→4·6호 가마 출토품의 기종 종합이 상당히 비슷하므로 시기 또한 비슷할 것이라 보았으며, 특히 오산리 유적 I-4호 가마에서 출토된 낮은 완과 단경소호, 직구소호, 통형에 가까운 기대는 영산강 유역에서 II-2기에 확인되는 토기들과 유사하여 5세기 전엽일 것으로 보았다. 영동리 고분군 1호분 1호 석실묘 출토품은 공반하여 출토된 유공광구소호, 병형토기, 배부병의 편년을 고려하여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11). 따라서 Ba가1형식은 5세기 전엽에 등장하여 6세기 전엽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Ba나2형식은 산청 옥산리 유적 253호 석곽묘, 창원 현동 유적 7호 토광묘 총 2개소 유적의 2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현동 유적 7호 토광묘 출토품으로, 유구는 토층 분석을 통해 목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고자는 묘제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4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다(昌原大學 博物館 1990). 그러나 가야 묘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곽이 없는 무부곽형 목곽묘는 목곽묘 쇠퇴기에 등장하는

묘제로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박광춘 2000). 옥산리 유적 253호 석곽묘 출토품은 가야의 석곽묘 구조와 출토유물을 고려하여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경상대학교 박물관 2013). 따라서 Ba나2형식은 5세기 전엽에 등장하여 6세기 전엽까지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Bb가2형식은 서울 풍납토성 206호 유구, 고창 봉덕 유적 가-구1, 광주 동림동 141호 구, 하남동 유적 5호 구, 산정동 유적 9호 방형건물지, 광주 선암동 유적 1-2호 구, 나주 장등 유적 8호 수혈, 영암 만수리 고분군 2호분 1호 옹관묘 총 8개소 유적의 8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모두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장군이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만수리 고분군 2호분 1호 옹관묘 출토품이다. 서현주(2011)는 유공광구소호 Aa형과 병행하며, 陶器ON231 출토품과 동체의 형태, 문양 구성, 크기에 있어서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유공장군 중 가장 이르다고 보았다. 그 시기는 5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유공장군은 동체부의 문양을 기준으로 하여 동체부에 종방향의 돌대가 돌려지고 그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된 것에서 점차 파상문이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종방향의 돌대가 돌려지고 그 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한 것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천에 따르면 점열문이 시문된 봉덕 유적 가-구1 출토품이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으로, 그 시기는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Ca가1형식은 부여 궁남지 동서수로 II-1,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9호분 기관,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1지구 14호 석곽묘 총 3개소 유적의 4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신촌리 9호분 기관 출토품으로, 보고자는 출토유물과 유구 간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추정하였다(國立光州博物館 1988). 그러나 신촌리 9호분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지며, 도기장군이 출토된 기관은 중심 옹관들과 떨어져 있고 방향도 사뭇 달라 늦은 시기인 상층의 옹관으로 판단된다. 오동선(2008)은 상층의 옹관인 을관과 병관이 IIIc형식이며,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을관이 조성된 후 병관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았다. 궁남지 동서수로 II-1 출토품 2점은 완형이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판단하고 형식을 분류하였다. 도기장군은 모두 수로에서 출토되었

는데, 수로의 직상층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7세기 전엽의 개원통보(開元通寶)와 토기류가 확인되어, 그 아래층인 수로의 존속기간은 6세기 전엽에서 7세기 전엽으로 추정되었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이를 종합하면, Ca가1형식은 6세기 전엽에 등장하여 7세기 전엽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Ca나2형식은 포항 인덕동 유적 11호 석곽묘, 경주 금령총, 부지리 유적 16호 석곽묘, 울산 산하동 유적 C-7호 석실묘, 합천 반계제 고분군 다A호분 총 9개소 유적의 10점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금령총 출토품들이다. 금령총은 적석목곽분 편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경주 천마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표 2). 반계제 고분군 다A호분 출토품들은 6세기 전엽보다는 살짝 늦은 6세기 전엽에서 중엽 사이로 추정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 1987).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능산리사지 북편 건물지1 출토품으로 사찰의 창건 시기는 대략 6세기 중엽이며, 폐사 시기에 대해서는 660년 백제의 멸망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3호 건물지 등 사역 내에서 인화문토기가 발견되면서 존속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8). 김현정(2002)은 능산리사지 출토 인화문토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이중원문의 종장연속문이 7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바, 능산리사지 외곽건물지가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동현(2008·2011)은 김현정(2002)이 단일문으로 한 개씩 찍은 개별 밀집시문을 종장연속문으로 오인한 것이며, 이렇게 단일문을 밀집 시문한 인화문은 백제 멸망 직후에 유입된 인화문토기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660년경부터 670년경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능산리사지는 백제 멸망 직후 짧은 기간 존속하였으며, 인화문토기가 발견되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북편건물지1에서 출토된 도기장군은 백제 멸망 직후인 7세기 중엽 이후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Cc가1형식은 함평 월계리 석계 고분군 90-4호분만 해당된다. 일찍이 서현주(2006)에 의해 구경부의 형태가 병의 구경부와 가깝고 유구의 연대가 7세

기 대로 편년되어 삼국시대 백제 도기장군의 가장 마지막 형태로 분류된 바 있다.

Cc나1형식은 남양주 별내 유적 덕송리 1-1 3호 주거지, 인천 영흥도선, 달성 성하리 유적 부석, 왕경지구내 가스관 매설지 유적, 신라왕경 유적, 안압지, 재매정지 습지 체토장, 청도 송읍리 유적 1호 석실묘, 제주 용천동굴 총 9개소 유적의 11점 출토품이 해당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송읍리 유적 1호 석실묘 출토품이다. 동체부 외면에 2~3조의 침선이 종방향으로 돌려져 있고, 그 사이에 반원점문이 빼곡히 시문되어 있다. 인화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전면에 원문류가 인화되는 시기는 대체로 7세기 중엽에 해당한다(이동현 2008·2011; 윤상덕 2010·2014). 다른 출토품들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8세기대에 해당되는 연대로 보고되었으며, 대체로 외면에 종방향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다른 형식들에 비해 다양한 크기가 확인된다. 가장 늦은 시기의 도기장군은 영흥도선 출토품으로, 발굴 당시 고려시대의 배로 추정되었으나 전체 구조 연구와 연대 측정, 내부에서 출수된 유물의 분석 결과 8세기에서 9세기대로 추정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윤용혁 2015).

Cd나1형식은 강화 옥림리 유적 4-4호 토광묘, 익산 미륵사지 12호 건물지, 울릉도 천부리 고분 2호분, 울진 덕천리 유적 C구역 토광묘 1-1, 경주 화곡리 자연수로 자연수로1, 울산 복산동 손골 유적 II-23호 묘 총 6개소 유적의 6점 출토품이 해당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도기장군은 천부리 고분 2호분 출토품으로, 대부완, 인화문 병, 주름무늬병, 편구병이 공반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2008). 이후 순화원보(淳化元寶, 990~994년)가 공반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미륵사지 12호 건물지 출토품이 확인된다(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그리고 점차 수량이 감소하여 11세기부터는 도기장군이 확인되지 않다가 고려시대인 12세기 후엽부터 파손되어 구경부의 형태만 d형(매우 짧은 단경형)으로 분류되는 도기장군이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확인되기 시작한다. 완형으로 발견되는 것은 13세기 후엽에서 14세기로 편년되는 복산동 손골 유적 II-23호 묘, 옥림리 유적 4-4호 토광묘 출토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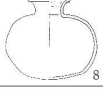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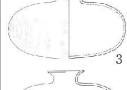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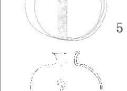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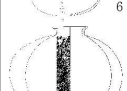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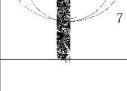
다. 이후 Cd나1형식의 도기장군이 지속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선행 연구(최남미 2014)를 통해 15세기부터는 분청사기장군 또는 백자장군이 제작되기 시작하며, 자기장군의 측면이나 저부에 굽이 달린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시기 분포를 토대로 단계를 구분하여 보면, 모두 3단계가 상정된다(도면 23). I 단계는 도입기로,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복잡한 A형(양측면 등근형)의 도기장군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편평한 측면을 그대로 내버려두어 제작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B형(양측면 편평형)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시기적으로 보아 B형의 도기장군은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A형 도기장군의 특징을 따르되,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B형이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I-1단계와 I-2단계로 구분된다.

II 단계는 성행기로, A형과 B형의 도기장군의 이어지면서,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특징을 따르지 않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C형(한측면 편평형)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기 시작한다. 다양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공존하며, 병의 구경부인 c형(반구형)의 구경부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II-1단계와 II-2단계로 구분된다. B형의 도기장군은 II-1단계에 소멸한다.

연대 형식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Aa가1										
Aa가2										
Aa나2										
Ba가1										
Ba나2										
Bb가2										
Ca가1										
Ca나2										
Cc가1										
Cc나1										
Cd나1										
단계	I-1	I-2	II-1	II-2	III-1	III-2				

<도면 23>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별 시기 분포

형식 면적	Aa가1	Aa가2	Aa나2	Ba가1	Ba나2	Bb가2	Ca가1	Ca나2	Cc가1	Cd나1	
400											I-1
											I-2
											
500											
											II-1
											
600											
660~668									Cc나1		II-2
700											
											
800											
											III-1
900											
1,000											
1,300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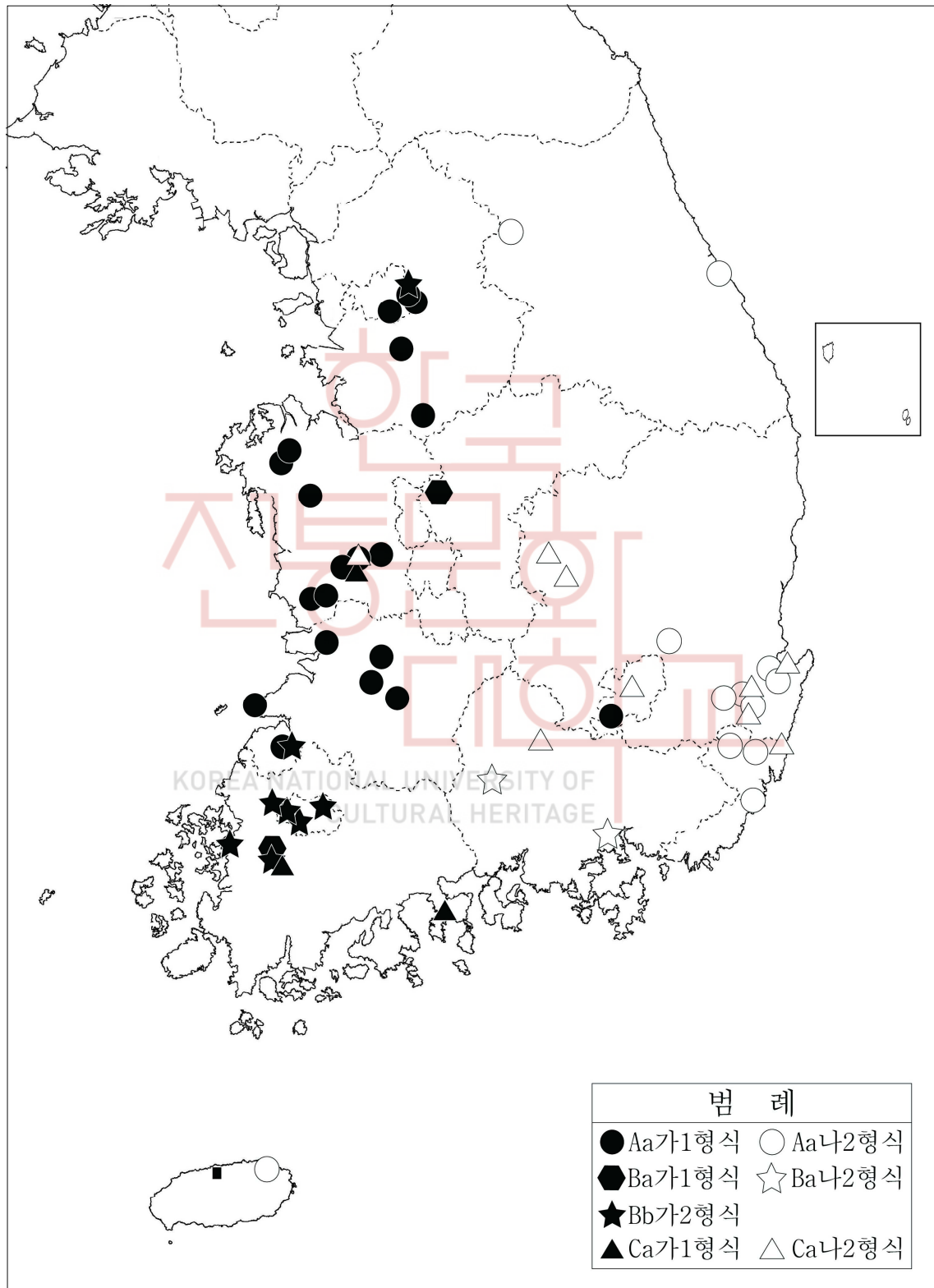
<도면 24> 고대 도기장군의 형식변천(도면 S=1/20)

Ⅲ단계는 쇠퇴기로, 더 이상 A형의 도기장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C형의 도기장군만 제작·사용된다. 또한 견부와 저부 형태 나형(직선형)과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1형만 확인된다. 점차 수량이 감소하여 11세기부터는 확인되지 않다가, 고려시대인 12~13세기 후엽부터 다시 제작·사용된다. 새로운 구경부 형태인 d형(매우 짧은 단경형)이 등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Ⅲ-1단계와 Ⅲ-2단계로 구분된다.

4. 국가·지역별 분포 양상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시기 분포와 단계를 살펴보면, 국가·지역별로 형식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삼국이 통일되기 이전의 국가·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량이 한 점만 확인되는 Aa가2형식과 Cc가1형식의 도기장군을 제외하였다. 삼국시대 백제 권역인 서울·경기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에서는 Aa가1형식, Ba가1형식, Bb가2형식, Ca가1형식의 도기장군이 분포한다. 서울·경기지역과 충청지역 중심으로 분포하다가 점차 충청남부지역과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이는 백제의 웅진·사비천도의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삼국시대 신라·가야 권역인 경상지역, 강원·제주지역에서는 Aa나2형식, Ba나2형식, Ca나2형식의 도기장군이 분포한다(도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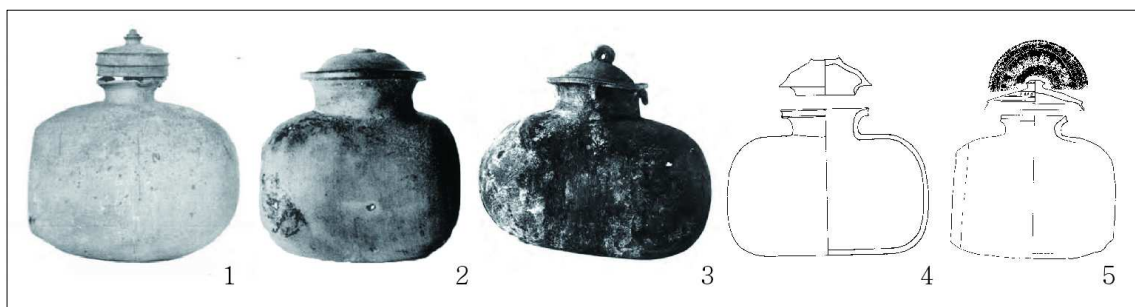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국가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견부와 저부 형태 가형(곡선형)의 도기장군만 확인되는 반면,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견부와 저부 형태 나형(직선형)의 도기장군만 확인된다. 즉, 백제에서는 원저단경호와 같이 둥근 형태의 도기장군을, 신라·가야에서는 원통형에 가까운 형태의 도기장군을 제작·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신라·가야의 도기장군이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제작기법이 단순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견부와 저부의 형태는 폐쇄부 제작기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백제의 도기장군은 제작 시 폐쇄부인 측면을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점점 좁게 말아가는 조임 기법으로 폐쇄하여 제작 시 측면인 견부와 저부



<도면 25> 고대 도기장군 형식별 분포양상(삼국시대)

가 곡선을 띄게 된다. 하지만 신라·가야의 도기장군은 원통형으로 기면을 쌓아 올린 다음 조이는 과정 없이 넓은 원판을 덮어 폐쇄했기 때문에 제작 시 측면인 견부와 저부가 직선을 띄게 된다. 일례로 신라·가야의 이른 시기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원판폐쇄법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후 원판폐쇄법으로 폐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어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저부와 견부가 직선을 띄는 도기장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경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이 4 이상인 1형이,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4 미만인 2형이 주로 확인된다. 이는 경경의 너비가 백제와 신라·가야의 도기장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유용함을 시사한다. 즉, 백제에서는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아 병에 가까운 형태인 반면, 신라와 가야에서는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어 호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뚜껑의 사용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기장군에 도제 뚜껑이 덮여져 출토된 예는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9호분 기관 출토품, 경주 금령총 출토품 9점, 관총 출토품 2점, 천마총 출토품 9점, 합천 반계제 다A호분 출토품 2점이다(도면 26). 대체로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도기장군에 뚜껑이 덮여져 있으며, 이 뚜껑들의 드림부는 모두 복(卜)자형⁷⁾이다. 특히 천마총 출토품 10점의 뚜껑들은 공반 출토된 단경호의 뚜껑들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를 보인다. 이를



<도면 26> 고대 도기장군 뚜껑 사용례

1. 나주 반남 신촌리 9호분 기관 2. 경주 금령총 3. 경주 금관총 4. 경주 천마총 5. 합천 반계제 다A호분

7) 윤상덕(2001)은 신라 토기의 뚜껑을 드림부가 구연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복(卜)자형, 구연부 바깥쪽으로 덮이는 형태인 입(入)자형으로 구분하였다.

통해 신라 적석목곽분 조성 단계에는 단경호의 복자형 뚜껑이 도기장군과 조합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경이 넓은 도기장군이 제작되고, 이후 도기류 뚜껑이 제작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어 신라 권역에서는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도기장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계제 고분군 다A호분 출토품들은 측면 중 제작 시 패쇄부가 조악하게 마감된 부분에서 금령총 출토품과 매우 유사한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금령총 출토품의 영향을 받아 가야권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령총 출토품과 달리 입(入)자형 뚜껑이 사용되었다. 이는 뚜껑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백제 권역에서는 신라·가야와 달리 도기장군에 도제 뚜껑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일하게 도제 뚜껑이 덮여져 출토된 신촌리 9호분 기관 도기장군 역시 구경부와 꼭 맞지 않은 뚜껑이다. 백제에서는 도제 뚜껑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병의 목적에 충실하게 경경이 좁은 도기장군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출토품의 경우 구경부에 돌이 없어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백제에서는 돌이나 지푸라기로 구멍을 막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A형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다 차례로 B형과 C형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그러나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A형과 C형의 도기장군이 동시기에 등장하며, 백제와 달리 C형의 도기장군이 다수 제작·사용되었다. 이는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제작 과정이 단순한 형태를 주로 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반면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띤 것 같이 직선을 그리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이 단순화된 C형의 도기장군은 대부분 신라·가야에서 제작·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Ca나2형식의 능산리사지 북편건물지1 출토품은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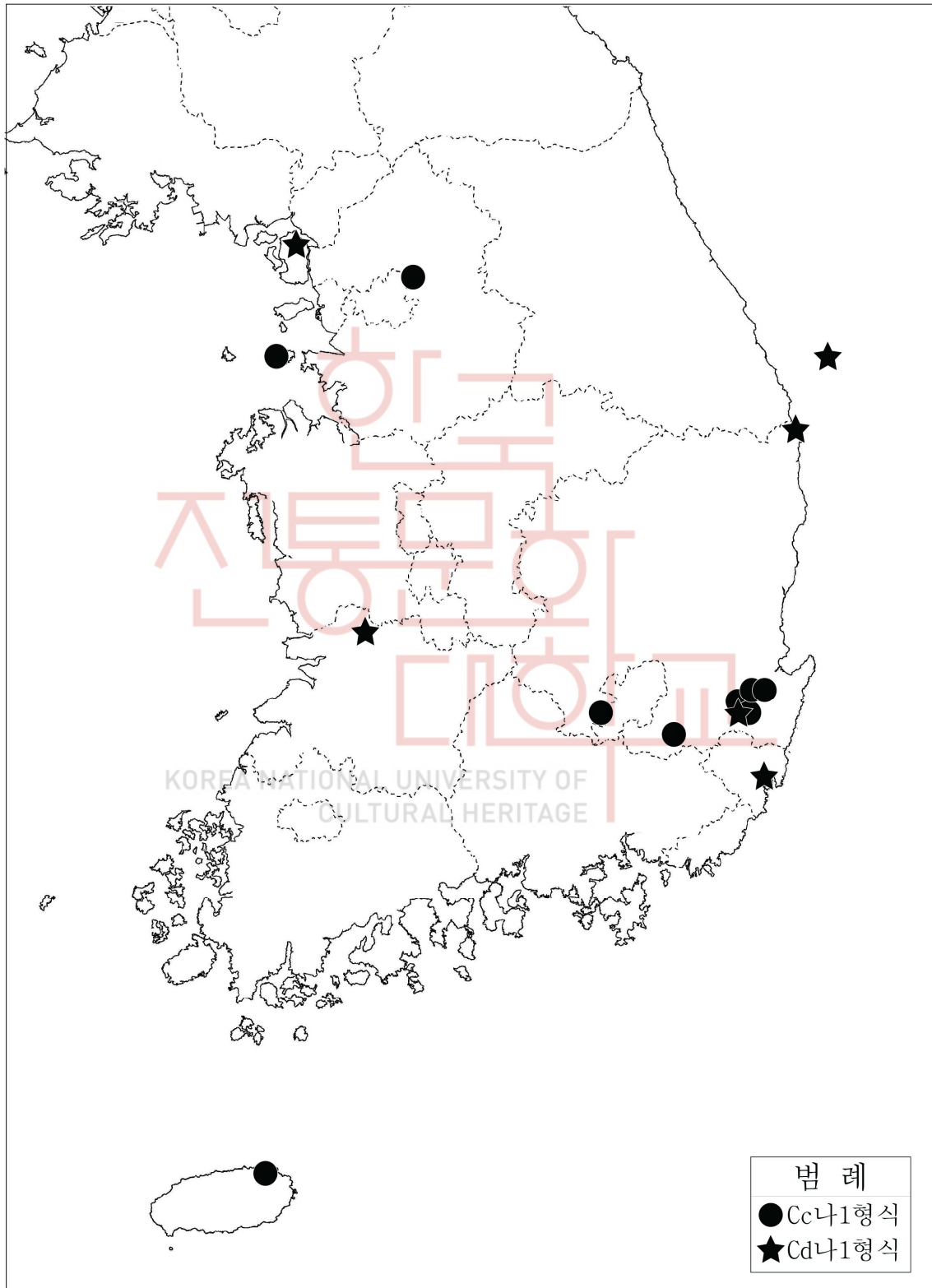
것 같이 직선을 띄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어, 신라 도기장군의 특징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능산리사지 3호 건물지 등 사역 내에서 인화문토기가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북편건물지1 출토품은 폐사 시점에 유입된 신라의 도기장군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공장군으로 분류되는 Bb가2형식의 도기장군은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된다. 백제 중심 지역과 떨어진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 중심 지역에서 제작·사용되던 Aa가1형식의 도기장군을 단순히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영산강유역에서 제작·사용되던 유공광구소호의 용도가 합쳐지면서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판단된다(서현주 2011). 이와 동체부 형태가 유사한 Ba가1형식의 도기장군은 오산리 유적 I-4호 가마에서 출토되었는데, 유공장군과 달리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 또한 동최대경이 비교적 넓은 편이며, 구경부의 형태는 오히려 Aa가1형식의 도기장군과 유사하다. 즉, Aa가1형식에 Bb가2형식이 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백제 중심 지역인 서울·경기·충청지역에서 유행하던 Aa가1형식과 영산강유역에서 유행하던 Bb가2형식이 조합되어,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구경부 형태가 다른 도기장군이 영산강유역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작·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B형의 도기장군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영동리 고분군 1호분 1호 석실묘 출토품과 같이 단을 쌓아 올린 듯 조성하여 외면을 구획한 이질적인 형태의 도기장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Bb가2형식의 도기장군과 동체부 형태가 유사한 Ba나2형식의 도기장군은 삼국시대 가야 권역에서 확인된다. Ba나2형식의 도기장군이 출토된 옥산리 유적에서 영산강유역과 관련된 대부단경호, 장경소호, 광구소호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서현주 2012),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유공장군의 영향으로 가야 권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동 유적 7호 토광묘 출토품의 경우, 왜계유물인 하지키(土師器)가 함께 출토되어 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昌原大學 博物館 1990).

삼국이 통일되어 국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부터는 통일신라시대 도성인 경주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경상북도 울진, 인천 섬업벌 지역 등 외곽의 해안지역에서 Cc나1형식과 Cd나1형식의 도기장군이 확인된다(도면 27). 이러한 현상은 도기장군의 기능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IV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도면 27> 고대 도기장군 형식별 분포양상(통일신라~고려시대)

IV.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과 사용

도기장군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래까지 사용되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소멸하지 않고 확인된다. 그러나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제작기법이 단순하지 않고 기형상 보관이 어려운데도 왜 사용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도기장군이 나타나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국과 일본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을 살펴보고, 출토 유구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문제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1. 기원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 기원은 일찍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1924년과 1928년에 발간된 경주 금관총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금관총과 그 유보(慶州金冠塚と其遺寶)』에는, 장군의 기원에 관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의 견해가 실려 있다. 그는 중국에서 술과 장을 담는데 사용되고 구연부가 작고 동체부가 큰 ‘부(缶)’와 ‘부’의 흉노어인 ‘복닉(服匿)’이 장군과 같은 계통이며, 기형은 멧돼지 가죽으로 만든 액체를 집어넣는 기물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기존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죽주머니는 아시아 동북부의 우랄-알타이민족이 발달시킨 기물이라고 주장하였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일본 학자들이 중국에서 ‘부’라고 불리는 그릇을 장군의 기원으로 본 이유는, 『서청고감(西清古鑑)』⁸⁾에서 장군과 유사한 형태의 청동기를 ‘부’로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도면 28). 청나라에서는 장군과 같은 형태의 그릇을 ‘부’라고 칭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나라 건륭황제(乾隆皇帝)가

8) 청조내부소장(淸朝內府所藏)의 고기(古器)를 도설(圖說)한 책으로, 건륭(乾隆) 14년 양시정(梁詩正) 등이 편찬하였다.

어제시(御製詩)를 남긴 장군과 같은 형태의 도기 역시 ‘부’라고 칭해졌다(도면 29). 또한 <고도부가(古陶缶歌)>⁹⁾라는 다른 어제시에서도 새알과 같이 둥글고 동체 중앙에 구연부가 있는 도기를 ‘부’라고 칭한 것이 확인된다. 즉 18세기 중국에서는 장군과 같은 형태의 그릇을 ‘부’라 칭하고 있었으며, 일본 학자들은 이에 따라 ‘부’를 우리나라 장군의 기원이라 본 것이다(최남미 2014). 그러나 ‘부’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술을 담는 그릇이며, 진나라 때에는 타악기로 사용되었던 기물이다¹⁰⁾. 또한 고대 부의 모습은 장군과 매우 다르다(도면 30). 청나라 때 구연부가 작고 동체부가 큰 형태를 ‘부’라고 통칭하면서 장군과 같은 형태의 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죽주머니 형태를 본 따 장군의 독특한 기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간접적인 영향에 그칠 뿐,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장군과 같은 형태의 고대 중국 기물로는 견형호(莢形壺)가 있다. 견형호는 재질적으로나 기형적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과 매우 유사하다. 견형호는 누에고치와 같이 사방이 둥근 형태이며, 오리알을 닮



<도면 28>
『서청고감』 주소부(周素缶)



<도면 29>
건륭황제 어제시가 적힌 도기(대만고궁박물관 소장)



<도면 30>
춘추시대 동욕부(铜浴缶, 珠海博物馆 1997)

9) 『御製詩集』二集 卷三十一 鸟卵其形口在腹，腹椭圆口弇德能畜。制始太古匪今俗，坎离既济质惟朴。用缶鼓缶羲经卜，浑仑善好无薛暴。土蚀万年黜以穆，寿逾金石贵珠玉。簠簋敦彝下风伏，徒纪癸丁及仲叔。陶于河滨此其躅，承浆酌酒来百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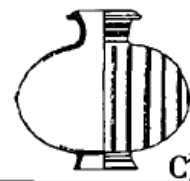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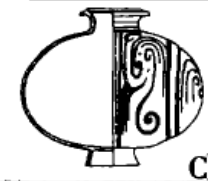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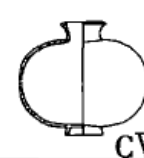
10) 『說文解字』缶，瓦器，所以盛酒浆，秦人鼓之以节歌。

아 압단호(鴨蛋壺)로도 불린다(도면 31). 주로 중국 전국~진·한나라 때 확인되며, 당나라 청백유약자기에서도 확인된다(林孔书 2014). 도기로 제작된 것은 지금까지 200여 점이 발견되었다. 대체로 무덤에서 출토되며, 소량이지만 우물, 저장공과 같은 유구에서도 발견된다. 견형호의 형태는 저부에 굽이 없는 것(제1류)과 굽이 있는 것(제2류)으로 구분된다. 저부에 굽이 없는 것은 다시 구연부가 좁은 것(A형)과 구연부가 넓은 것(B형)으로 분류되며, 굽이 있는 것은 뚜껑이 없는 것(C형)과 뚜껑이 있는 것(D형)으로 분류된다(도면 32). 가장 먼저 출현한 견형호는 저부에 굽이 없는 것이며, 굽이 있는 것이 조금 늦게 출현한다. 관중지구(산시(陝西)성)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으며, 이어 그 주위로 확산



<도면 31> 중국의

견형호(蜚形壺)(姚江波 2007)

分期 类别	第一阶段	第二阶段	第三阶段	第四阶段	第五阶段
第一类	A 型 				AIII 
	B 型 				
第二类	C 型 				CV 
	D 型				

<도면 32> 양저평(杨哲峰 2000)의 견형호 형식분류

되는데 진나라의 6국 출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무덤에 부장되었던 물품은 주로 도례기(陶禮器)나 청동기였으며, 일상용기는 소량이 부장되었다. 견형호는 일찍이 일상용기로 부장되었는데, 점차 사회 변천으로 인한 문화 융합에 따라 도례기 조합의 하나로 변화하였다. 채색견형호의 출현이 이러한 예기로의 변화를 보여준다(楊哲峰 2000).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출현하는 도기장군은 Aa가1형식의 백제 도기장군으로, 이 형식은 견형호의 형식분류에 따르면 제1류 A형과 유사하다. 저부에 굽이 없으며, 구경부가 경부에서 좁아졌다가 구연부에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또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등글며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편이다. 특히 형태나 크기로 보아 이른 시기의 것과 유사한데, 견형호가 일상용기에서 점차 도례기로 변화한 것을 고려하면 백제에서는 예기로 제작·사용된 형태보다는 일상용기로 제작·사용된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신라와 일본에 백제의 도기장군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라에서는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Aa나2형식, Ba나2형식, Ca나2형식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백제의 장군과 같은 형태의 그릇을 횡병(橫瓶)으로 부르며, 6세기대에 출현한다(角川書店 1981). 6~7세기 중심으로 존재하는 기종이긴 하지만,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 도야마·이시가와·후쿠이·니가타의 4현의 총칭)에서는 8세기 이후에도 존재하며, 8세기 후엽에서 9세기 전엽의 호쿠리쿠 동부 지역에서는 중·소형 저장용 토기를 구성하는 주요



<도면 33> 일본의 횡병(橫瓶)(角川書店 1981)

기종의 하나로 대량생산되는 가마가 확인된다(春日真実 2001). 일본에서 발견된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체부의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처럼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편으로, 앞서 살펴본 백제 도기장군의 특징과 같다. 즉, 일본의 횡병 역시 백제 도기장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33).

또한 일본에서는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유공장군(Bb가2형식)의 도기장군)도 확인된다. 그동안 유공장군의 출현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기노시타 와타루(木下 2003)는 한반도 출토 유공장군이 형식적으로 이르지 않으며, 출토자료가 적기 때문에 일본 스에키 특유의 기형이 역수입되어 모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공장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제 중심 지역에서 제작·사용되던 Aa가1형식의 도기장군을 단순히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본이 영산강유역보다 먼저 유공장군을 제작하였다면 영산강유역에서 유공장군이 확인되는 5세기 전엽 이전에 동체부를 완전히 폐쇄한 다음 횡방향으로 돌려 구연부를 뚫는 장군의 독특한 제작기법이 일본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장군의 독특한 제작기법이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백제의 영향으로 제작·사용된 영산강유역의 유공장군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용

한반도 남한지역 고대 도기장군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견형호는 군사용 수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능한 한 횡방향으로 넓혀 용적을 늘렸으며, 구연부를 좁게 해 물이나 술이 넘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동시에 사방이 둥글다보니 회전력이 증가되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에 편리하였다. 또한 전쟁 중에는 견형호를 땅속에 묻어 먼 곳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견형호는 군사가 물이나 술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를 쏟아 버리고 적을 탐지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马悦 2016). 이후 액체를 담은 일상생활용기로서 부장

되다가 점차 도례기와 한 조를 이루며 부장되는 것으로 변화였다. 채색견형호의 출현은 이러한 예기로의 변화를 보여준다(杨哲峰 2000). 또한 장사마왕퇴(長沙馬王堆) 1호묘에서 출토된 T자형 백화(帛画)에 그려진 견형호를 살펴보면, 죽은 자에게 올린 제기(祭器) 중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도면 34). 이를 통해 견형호가 일상생활용기이지만 부장품뿐만 아니라 제기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최남미 2014).



<도면 34> 장사마왕퇴 1호묘 출토 T자형 백화 속 견형호(최남미 2014 수정후 인용)

그렇다면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도기장군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까? 우선 중국의 견형호가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한반도에서 근대까지 뚝, 오줌, 거름 등의 액체류를 나르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액체를 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기장군이 출토된 유구의 성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능은 국가별로 사뭇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백제 도기장군 중 59.3%는 생활유구에서, 33.3%는 매장유구, 7.4%는 제사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신라 도기장군은 92.3%가 매장유구에서, 7.7%가 생활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백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견형호와 같이 일상용기로서 무덤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풍납토성 206호 유구,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과

같은 제사시설에서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제기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운반은 끈이나 지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의 일상생활모습을 재현한 신라 토우에서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도면 35>는 장군 또는 봇짐과 같은 형태의 물건을 끈으로 엮어 짊어진 사람의 형상이 표현되어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9). 경기도 수원시 일왕면에서 수습된 도기장군의 견부에 끈을 엮어 매기 좋은 귀가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라 토우의 모습과 같이 장군을 운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면 36). 또한 비교적 근래까지도 지푸라기로 입구를 막은 목기장군을 지게에 얹어 운반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지게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도기장군이 발견되는 유적이 서울 몽촌토성, 풍납토성, 서산 부장리 유적, 부여 궁남지, 능산리사지,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 등과 같은 중요 유적과 유구임을 고려하면, 호나 웅과 같은 기종에 담긴 액체보다 특별한 액체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기장군은 구연부를 좁게 해 액체가 넘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으며, 사람이 끈이나 지게를 이용하여 운반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후대의 문헌에도 강심수(江心水)를 한강에서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를 멀리서부터 운반해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라에서는 무덤에 부장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하였다. 특히 신라를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중 하나인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도기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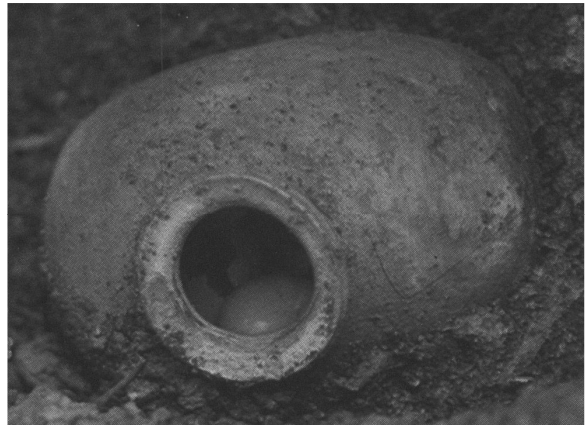


<도면 35> 장군 또는 봇짐을 짊어진 형상의 신라 토우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도면 36> 견부에 귀가 달린 도기장군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4)

에 액체류가 아닌 난각(卵殼)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라에서는 도기장군을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보다 처음부터 부장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 즉 제기로 사용된 듯하다(도면 37).



<도면 37> 경주 천마총 출토
도기장군과 내부 난각의 모습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는 생활유구에서 도기장군이 출토된다. 이는 고신라의 도기장군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제주도, 울릉도, 경상북도 울진, 인천 섬업벌 지역 등과 같은 외곽의 해안지역에서 도기장군이 확인된다. 외곽지역, 특히 물자를 운반하다 좌초된 것으로 판단되는 영흥도선에서 도기장군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기장군이 더 이상 제기가 아닌 백제와 같이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는 고신라와 달리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아지는데, 운반 시 액체가 넘쳐흐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저술한 『조선도자명고(朝鮮陶磁名考)』에 보면 장군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대형은 물과 소변을, 소형은 술과 장을 담아두었다고 기술되어있다. 즉, 장군은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랐다. 크기에 따른 용도의 분화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다양한 크기의 도기장군이 제작되기 때문이다. 대구 유천동 103번지 유적 E-3호 주거지, 왕경지구내 가스관 매설지 유적, 울릉도 천부리 고분군 2호분 출토품 등과 같이 유공장군만큼 작은 크기의 도기장군과 달성 성하리 유적 부석, 인천 영흥도선 출토품 등과 같이 이전 시기의 도기장군보다 큰 도기장군이 확인된다. 크기가 다양해지고 이전 시기만큼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부터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도 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크기의 분화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보면 명나라 사신에게 바칠 대·중·소의 백자장군을 잘 구어 올리라는 기록이 등장한다¹¹⁾. 이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장군의 크기가 구분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후엽부터 점차 수량이 감소하다가 11세기부터는 도기장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도기병이 제작·사용되고, 고려시대에는 청자로 만들어진 병이 등장하면서 장군의 쓰임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12세기 후엽부터 도기장군이 다시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발견되며,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또한 매장시설뿐만 아니라 가마, 수혈유구, 건물지, 우물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일상용기로 사용된 듯하다. 자기장군의 연구 성과(최남미 2014)에 따르면, 15세기에 들어서는 자기장군이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각종 문헌기록과 내부의 기름성분 분석을 통해 장군이 술 외에도 진유(眞油), 강심수(江心水)를 저장·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제사용·의례용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도에는 도기장군과 자기장군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기장군의 수요 계층이 주로 양반층 이상이었을 것을 고려하면 뚱, 오줌, 거름 등의 액체류를 나르는데 사용된 장군은 도기장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世宗實錄』卷27 7年 2月 15日 乙卯條 左副代言金赭問安于使臣, 尹鳳曰 “造紙方文及沙器進獻, 有聖旨” 赭問曰 “沙器數幾何” 許鳳曰 “數則無聖旨, 然吾心以謂, 十卓所用, 每卓大中小碗各一, 大中小櫟兒各五及大中小獐本十事可也.” …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燔造以進”.

V. 맺음말

도기장군은 시대별로 도기를 집성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변천이나 기원, 사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중·근세 자료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다보니, 다른 재질과 시대 도기장군의 원형인 고대 도기장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대 도기장군은 장군의 기원과 사용문제를 풀어낼 열쇠이며, 목기·자기장군 또는 중·근세 도기장군의 계통과 변천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고대’는 마땅히 도기장군이 등장하는 삼국시대부터 대체로 고대의 하한인 통일신라시대까지로 한정해야 하나, 조선시대에 자기장군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고대의 도기장군이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시대 도기장군도 살펴보았다. 지역적 범위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남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164점의 도기장군이 집성되었으며, 출토품을 토대로 도기장군의 형식을 분류해보았다.

형식분류에 앞서, 장군의 제작 과정을 복원한 연구와 출토 자료에서 발견되는 흔적 등을 함께 검토하여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제작기법을 파악해보았다. 고대 도기장군은 일면폐쇄법과 양면폐쇄법으로 동체부를 제작하였으며, 조임 기법과 원판폐쇄법으로 열린 면을 메웠다. 그리고 구경부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절개면에 대고 붙이는 분할성형법으로 구경부가 부착되었다. 제작 과정은 장군의 동체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양측면이 둥근 도기장군은 4단계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편평한 측면이 확인되는 도기장군은 3단계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제작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동체부 형태는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구경부 형태, 건부와 저부 형태, 동최대경과 경경의 비율도 함께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합하여 모두 11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출토품에 대한 보고자 또는 연구자의 추정연대와 공반 출토된 유물 등을 검토하여, 각 형식의 시기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을 총 3단계로 구분하였다. I 단계는 도입기로, 뒤집어서 제작 시 저부의 형태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복잡한 A형(양측면 둥근형)의 도기장군이 가장 먼저 확인된다. 그 다음 편평한 측면을 그대로 내버려두어 제작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B형(양측면 편평형)의 도기장군이 등장한다. 시기적으로 보아 B형의 도기장군은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A형 도기장군의 특징을 따르되,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II단계는 성행기로, A형과 B형이 이어지면서 양측면이 대칭을 이루는 특징을 따르지 않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킨 C형(한측면 편평형)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기장군이 공존하게 된다. III단계는 쇠퇴기로, 더 이상 A형의 도기장군이 나타나지 않으며 C형의 도기장군만 제작·사용된다. 또한 견부와 저부 형태 나형(직선형)과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1형만 확인된다.

그리고 국가·지역별로 형식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 백제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와 같이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반면 신라·가야 권역에서는 주로 견부와 저부가 원통형을 띤 것 같이 직선을 그리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넓은 형태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신라·가야의 도기장군이 백제의 도기장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제작기법이 단순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였으며, C형의 도기장군이 대부분 신라·가야에서 제작·사용된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다. 한편, 유공장군으로 분류되는 Bb가2형식의 도기장군은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되는데, 백제 중심 지역에서 제작·사용되던 Aa가1형식의 도기장군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Bb가2형식이 Aa가1형식과 조합되거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어, 동체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구경부 형태가 다른 Ba가1형식과 Ba나2형식의 도기장군이 제작·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남한지역 출토 고대 도기장군의 변천과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한반도에

서 제일 먼저 출현하는 도기장군은 Aa가1형식의 백제 도기장군임을 알 수 있었다. 이 형식의 도기장군은 중국의 견형호 제1류 A형의 이른 시기 것과 유사한데, 견형호가 일상용기에서 점차 도레기로 변화한 것을 고려하면 백제에서는 예기로 제작·사용된 형태보다는 일상용기로 제작·사용된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된 도기장군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체부의 견부와 저부가 원저단경호의 저부처럼 둥글고 동최대경에 비해 경경이 좁은 편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백제 도기장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서는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유공장군(Bb가2형식의 도기장군)도 확인되는데, 백제에서 도기장군을 제작·사용하고 있던 영산강유역과 달리 일본에서는 형태를 모방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백제의 영향으로 제작·사용된 영산강유역의 유공장군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견형호가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한반도에서 근대까지 뚝, 오줌, 거름 등의 액체류를 나르는데 사용되었으므로 고대 도기장군도 액체를 담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토 유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백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며 운반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므로, 제사에 사용되는 물이나 술을 포함하는 특별한 액체를 멀리서부터 운반해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신라에서는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보다 부장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 즉 제기로 판단하였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서는 고신라의 도기장군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액체를 저장·운반하는 목적으로 도기장군이 사용되었다. 크기가 다양해지고 이전 시기만큼 중요 유적과 유구에서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특별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도 담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일신라시대 후엽부터는 다른 형태·재질의 병이 제작·사용되면서 장군의 쓰임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 12세기 후엽부터 도기장군이 다시 토광묘의 부장품으로 발견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한국어>

강경숙, 2012, 『韓國陶磁史』, 애경.

경기도자박물관, 2008, 『도자문화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韓國 考古學 事典』.

_____, 2013, 『백제 한성지역 유물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09,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金東潤, 2009, 「新羅 積石木槨墓의 變遷過程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金斗喆, 2007, 「三國·古墳時代 年代觀(Ⅱ)」, 『한일 삼국·고분시대의 연대 관(Ⅱ)』, 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국립역사민속박물관.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김현정, 2002, 「陵山里寺址 出土印花紋土器에 대한 檢討-능산리사지의 폐사시점과 관련하여-」, 『國立公州博物館紀要』.

노미선, 2003, 「유공장군에 대하여」, 『研究論文集』3, 湖南文化財研究院.

木下亘, 2003, 「韓半島 出土 須惠器(系) 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

3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박광춘, 2000, 「가야 묘제의 연구」, 『嶺南考古學』26, 嶺南考古學會.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4, 『百濟土器圖錄』.

서현주, 2006,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研究』, 학연문화사.

_____, 2011, 「백제의 유공광구소호와 장군」, 『유공소호』, 진인진.

_____, 2018, 「토기로 본 백제와 영산강유역」, 『고대영산강유역과 백 제』, 나주북암리고분전시관-한성백제박물관 교류 학술심포지움.

송운정, 2012, 「화성 가재리 유적 출토 조선전기 도기장군의 제작기법」, 『야외고고학』15.

오동선, 2008, 「호남지역 용관묘의 변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상덕, 2001, 「6-7世紀 新羅土器 相對編年 試論 : 慶州芳內里古墳群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4, 「인화문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 윤용이, 1991, 「고려시대 질그릇(陶器)의 變遷과 特色」,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 박물관.
- 윤용혁, 2015, 「용진 "영흥도선"의 구조 특징과 역사적 성격-장보고 시대의 신라 연해 선박-」, 『백제문화』 5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기길,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 연구」,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 박물관.
- 이동현, 2008, 「인화문 유개완 연구-경주지역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統一新羅 開始期の 印花文土器」, 『한국고고학보』 81, 한국고고학회.
- 이상아, 1996, 「陶製 장군 製作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碩士學位論文.
- 이은주, 2004, 「도기병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碩士學位論文.
- 李漢祥, 2004, 『(황금의 나라)신라』, 김영사.
- 임승덕, 2011, 「百濟 泗泚期 打捺文土器 製作技法 研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정춘택, 2017, 「朝鮮 前期 墳墓 出土 陶器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研究」,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碩士學位論文.
- 최남미, 2014, 「朝鮮時代 磁器 장군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_____, 2000, 「嶺南地方 考古學資料 編年-4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 10,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최철희, 2004, 「高麗時代 질그릇의 形式分類와 變遷過程 : 瓶·壺·大甕을 中心으로」, 한신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국어>

马悦, 2016, 「浅议马家原出土的青铜茧形壶」, 『文物鉴定与鉴赏』, 甘肃省张家川县博物馆.

杨哲峰, 2000, 「茧形壶的类型、分布与分期试探」, 『文物』 8.

姚江波, 2007, 『秦代古玩鉴定』, 浙江大学出版社.

林孔书, 2014, 「汉代彩陶茧型罐」, 『东方收藏』.

珠海博物馆, 1997, 『中华国宝大辞典』, 辽宁教育出版社.

<일본어>

角川書店, 1981, 『須惠器大成』, 東京: 角川書店.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 『神奈川考古』 6, 神奈川考古同人會.

白井克也, 2003, 「新羅土器の型式・分布變化と年代觀-日韓古墳編年の竝行關係と曆年代」, 『朝鮮古代研究』 4, 朝鮮古代研究刊行會.

伊藤秋男, 1972, 「耳飾の型式學的研究に基づく韓國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 64, 朝鮮學會.

淺川巧, 1931, 『朝鮮陶磁名考』, 東京: 朝鮮工藝刊行會.

春日真実, 2001, 「横瓶の製作方法」, 『つぼとかめのつくり方』, 北陸古代土器研究會.

2. 보고서

- 姜秉權, 2009, 『舒川 鳳仙里 遺蹟』, 忠清文化財研究院.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3, 『江陵 柄山洞古墳群』.
- _____, 2011, 『春川 槿花洞遺蹟』.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 『경주 제내리·명계리·노곡리 유적』.
-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龍仁 麻北洞 聚落遺蹟』.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4, 『晉州 武村』.
- _____, 2007, 『金海 鳳凰洞 遺蹟』.
- 慶南文化財研究院, 2011, 『蔚州 處容里遺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梁山 新基洞 建物址 昌寧 橋下里 遺蹟』.
- 경상대학교 박물관, 2013, 『山淸 玉山里遺蹟 : 石槨墓』.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淸道 松邑里·楡湖理·內湖里遺蹟』.
- _____, 2015, 『경주 부지리 유적』.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3, 『용인 어비리 유적』.
-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 『龜尾 道中里 遺蹟』.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인제 부평리유적』.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6, 『王京地區內가스관埋設地 : 發掘調査報告書』.
- _____, 1996, 『慶州 芳內里古墳群 : 出土遺物』.
- _____, 1997, 『慶州 芳內里古墳群 : 本文』.
- _____, 2002, 『新羅王京 : 皇龍寺地 東便 SIE1地區』 1.
- _____, 2011, 『경주 금관총 발굴조사보고서 : 國譯』.
- 國立慶州博物館, 2016, 『慶州 金冠塚 : 遺物篇』.
- 國立光州博物館, 1984, 『靈岩 萬樹里 古墳群』.
- _____, 1988, 『羅州 潘南 古墳群』.
- _____, 2011, 『海南 龍頭里古墳』.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11.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

- _____, 2001, 『官南池』 2.
- _____, 2008, 『陵寺 : 부여 능산리사지 10차 발굴조사보고서』 .
- 國立全州博物館,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
- 국립제주박물관, 2011, 『용천동굴의 신비』 .
- 國立中央博物館, 1980, 『雁鴨池 : 雁鴨池出土遺物特別展』 .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2008, 『鬱陵島』 .
-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2003, 『(特別展) 統一新羅 : 첫 번째 통일 새로운 나라』 .
- 국립진주박물관, 1987, 『陝川礪溪堤古墳群』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인천 용진군) 영흥도선』 .
-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군산 산월리 유적』 .
- _____, 2011, 『임실 도인리 유적』 .
- 宮南池發掘調査團, 1990, 『宮南池發掘調査報告』 .
- 錦江文化遺産研究院, 2016, 『鷄龍 立岩里 반촌말 遺蹟』 .
- 길경택, 1998, 『忠州 虎岩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충주박물관.
- 金奎正·梁永珠·安鉉重, 2011, 『金堤 長華洞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金大煥·安耿鉢·姜玟州, 2016, 『慶州 金冠塚 : 遺構篇』, 국립중앙박물관.
- 김성남 외, 2010, 『扶餘 佳塔里 百濟遺蹟』,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김재열 외, 1999, 『용인의 도요지 : 지표조사 보고서』, 한신대학교 박물관.
- 누리고고학연구소, 2017, 『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4, 『大邱 流川洞 103遺蹟』 .
- _____, 2015, 『達城 城下里遺蹟』 .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2, 『慶州 蓀谷洞·勿川里-墳墓群』 II.
- _____, 2013, 『慶州 路西洞 181-24番地 遺蹟』 .
- 東西文物研究院, 2012, 『蔚山 福山洞 손골遺蹟』 .
-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11, 『나주 영동리 고분군』 .
- 마한문화연구원, 2011,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II.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 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

朴光烈 외, 2012, 『蔚珍 德川里 三國時代 生活遺蹟』, 聖林文化財研究院.

朴光烈 외, 2015, 『永川 華南里 新羅墓群』 3, 聖林文化財研究院.

朴有貞, 2010, 『홍성 남장리 유적』, 忠淸文化財研究院.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蔚州華山里古墳群』 .

三江文化財研究院, 2012, 『晉州 井村 高麗·朝鮮 集落址』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3, 『달성 도동리·성하리·상하리·본리리·동곡리 유적』 .

서울大學校博物館, 1987, 『夢村土城 : 東北地區發掘調査報告』 .

_____, 1988, 『夢村土城 : 東南地區發掘調査報告』 .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

손명수 외, 2017, 『鎭川 鳩岩里 사장골 遺蹟』,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3차)』 .

_____, 2016, 『경주 재매정지』 .

심상욱·이화영·이명호, 2016, 『부여 구아리 363·361 유적』, 백제고도문화재단.

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龜尾 鳳山里 2遺蹟』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 『고창 중월리 유적』 .

蔚山文化財研究院, 2004, 『蔚山 蓮岩洞山城 遺蹟』 .

_____, 2014, 『蔚山 山下洞遺蹟』 .

尹淨賢, 2010, 『瑞山 堰岩里 닛머리 遺蹟』, 忠淸文化財研究院.

이남석·공주대학교 박물관, 1999, 『山儀里 百濟古墳』,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남혁·서정석, 2000, 『斗井洞遺蹟』, 공주대학교 박물관.

李號炯·李畹燮, 2009, 『扶餘 雙北里 현내들·北浦遺蹟』, 忠淸文化財研究院.

이훈·이종수·이상엽, 2008, 『瑞山 富長里遺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全南大學校博物館, 1993, 『咸平 月溪里 石溪古墳群』 .

전북대학교 박물관, 2010, 『上雲里』 .

朝鮮古蹟研究會, 1924,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蔚山 於音里遺蹟』.
- _____, 2003, 『尙州 西院里·芝沙里 遺蹟』.
- _____, 2007, 『利川 葛山洞遺蹟』.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2, 『江華 玉林里 遺蹟 : 강화중성·고려시대 건물지』.
- _____, 2013, 『淸原 主城里·倉里 遺蹟』.
- 昌原大學 博物館, 1990, 『馬山 縣洞 遺蹟』.
-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5, 『舒川 鳳仙里 遺蹟』.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수룡리 산막골유적』.
- _____, 2015, 『청주 오산리유적』.
- 崔守亨·崔得俊·朴世眞, 2013, 『蔚山藥泗洞北洞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 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2, 『楊州 玉井洞 遺蹟』.
- _____, 2014, 『龍仁 할미산성』 II.
- _____, 2015, 『龍仁 麻北洞 502-35番地 遺蹟』.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a, 『尙州 靑里遺蹟』 IX.
- _____, 1999b, 『慶州 競馬場 豫定敷地 C-1地區 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 _____, 2006, 『浦項 仁德洞 遺蹟』.
- _____, 2008, 『蔚山 대밀·兩水亭·上三亭·三亭里遺蹟』.
- _____, 2010, 『蔚山 下三亭 古墳群』 III.
- 한국전통문화학교 고고학연구소, 2010, 『扶餘 陵山里寺址 : 제9차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11, 『扶餘 陵山里寺址 : 제11차 발굴조사보고서』.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남양주 별내 유적』.
-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5, 『風納土城』 XVII.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서울 우면동 유적』.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3, 『高敞 鳳德遺蹟』.

- _____, 2004, 『光州 香嶺遺蹟』.
- _____, 2007a, 『光州 東林洞遺蹟』Ⅲ.
- _____, 2007b, 『羅州 長燈遺蹟』.
- _____, 2008a, 『光州 山亭洞遺蹟』.
- _____, 2008b, 『光州 河南洞遺蹟』Ⅰ.
- _____, 2008c, 『全州 馬田遺蹟』Ⅳ.
- _____, 2011, 『益山 慕縣洞 2街遺蹟』.
- _____, 2012, 『光州 仙岩洞遺蹟』.
- _____, 2013, 『全州 察訪遺蹟』.
- _____, 2017, 『전주 원만성유적』Ⅰ.
- 黃昌漢·鄭鉉錫·朴眞惠, 2017, 『蔚山 象川里遺蹟』Ⅱ, 蔚山文化財研究院.



A Study on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in South Korea

Shin, Na Hyeon

*Archeology, Department of Convergence Cultural Heritage,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Supervised by Professor Seo, Hyun Ju*

Abstract

So far,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has been either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studying pottery or limited to data from the middle and the modern age. As a result, very little has been done to study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the origin of other materials and age. Thus, not only was it studied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excavated in South Korea, but attempted to classify the type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the timing, national and regional.

After examined both the restoration of a process manufactured and the traces found in the data,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made shapes of the body variou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 shapes have been classified as a main feature as well as considered to reflect the time including the moth, shoulder, base and the proportion of the diameter of neck and body. It was then grouped together into 11 different formats, looked at the timing distributed of each type.

As a result, it has had the three stage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ancient. Stage I is an introduction: the A-type(both sides rounded) is the first to be identified. Followed by the B-type(both sides flattened) that simplified the process. Stage II is a prevalence, with the A-type and B-type, and the C-type(one-side flattened) being produced and used without conforming to the

symmetrical characteristics of both sides, thereby co-existing various types of pottery. Stage Ⅲ is a decline, no more the A-type and only the C-type is produced and used.

And we could see that the formats were divided by country and region. In the Baekje regi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 rounded sholder and base including narrow-necked pottery barrel-shaped vessel was created and used. On the other hand, in Silla and Gaya region during same days, a flattened sholder and base including broad-necked pottery barrel-shaped vessel was. Meanwhile, the Bb가2-type was found in Yeongsan River basin, and it was judged the Bb가2-type, which was produced and used in the central region of Baekje, created in a simple process to imitate the Aa가1-type.

The first appeared in the Korea has been the Aa가1-type of Baekje pottery general, which has been similar to China's Jianxinghu early age of the I-A typ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Jianxinghu has gradually changed from a daily container to a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it is believed that Baekje adopted the form used and manufactured as a daily container. If you look at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in Japan, it was influenced by Baekje's.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excavation site, Baekje mainly used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for storing and transporting liquids in daily life, while Silla used the container for burial food as sacrificial rites. It was also estimated that special liquids (in it) rather than jar and dlong potwere found in important historical sites. Unlike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of the ancient Silla kingdom, it was made not for using important historical site but storing and transporting liquids in daily life with the various sizes, containing liquids in daily other than that such as alcohol in the Unified Silla Period. As bottles of different shapes and materials would be produced and used in the later part of the Unified Silla Period, reduced using of the pottery barrel-shaped vessel. In the latter part of the 12th century, however, tomb began to be found again, and this aspects continued until the Joseon Dynasty.

【Keyword】 Barrel-shaped Vessel, Pottery Barrel-shaped Vessel, Ancient, Three Kingdoms Period, Unified Silla Period

<표 3> 남한지역 출토 고대도기장군 속성표

(단위 cm)

순번	유적명	유구	도면 번호	형식	제원			
					기고	구경	경경	동최대경
1	양주 옥정동 유적	2-31호 주거지	72-151	-	(20.2)	-	-	(12.6)
2	강화 옥림리 유적	4-4호 토광묘	173-690	Cd나1	16.6	5.2	4.7	20.5
3	남양주 별내유적	덕송리 1-1 3호 주거지	87-234	Cc나1	25.6	6.8	4.9	26.7
		화접리 6-61호 건물지	525-530	-	-	-	-	-
4	서울 몽촌토성	1호 저장공	38-2	Aa가1	25.2	11.1	7.5	34.5
		4호 저장공	86-3	Aa가2	25.2	1C.6	8.7	28.8
		4호 저장공	86-2	-	-	-	10	32
		7호 저장공	86-1	Aa가1	26.5	12.7	8	39.6
5	서울 풍납토성	11차-3호 주거지	p55-202	Aa가1	29.8	14.1	9	38.4
		17차-206호 유구	34-211	Aa가1	28.1	12.5	7.7	34.7
		17차-206호 유구	34-212	Bb가2	18.4	9.4	3.8	15
6	서울 우면동 유적	가-4호 주거지	24-41	Aa가1	22	11.7	8.5	38
7	인천 영흥도선	E4-E5	영흥-3	Cc나1	28.1	7.0	5.7	33.3
		E4	영흥-4	Cc나1	27.3	8.4	6.6	34.0
8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269호 수혈유구	365-5	Aa가1	19.9	8.6	6.5	29.6
9	용인 마북동 502-35번지 유적	6호 주거지	26-55	-	(14.5)	-	-	(6.6)
10	용인 어비리 유적	I-3-5호 가마	60-375	-	-	6.5	6	-
11	용인 죽전리 1호 요지	죽전리 1호 요지	도판)10-6-1	-	-	-	-	-
12	용인 할미산성	남동회절부 Tr.1	17-30	-	-	-	-	-
		남서회절부 Tr.2	33-89	-	-	-	-	-
13	이천 갈산동 유적	1-20호 수혈	154	-	27.6	8.7	6.8	-

14	안성 도기동 산19번지 유적	16호 토광묘	57-2	Aa가1	19.0	7.8	5.7	24.3
15	충주 호암동 유적	2-16호 토광묘	80-1	-	15.1	6.2	5.3	-
16	충주 수룡리 산막골유적	가-1호 도기가마 폐기장	18-1	-	-	11.6	7.7	-
17	진천 구암리 사장골유적	5-3호 도기가마	54-8	-	-	-	2.4	17.6
18	청주 창리 유적	1호 건물지	53-3	-	-	-	-	51.9
19	청주 오산리 유적	I-4호 가마	31	Ba가1	21.1	8.7	4.7	20.5
20	서산 부장리 유적	I-44호 수혈	134-3	Aa가1	20.7	-	-	32.3
21	서산 언암리 닛머리 유적	다-55호묘	248-1	Aa가1	28	13.2	8.5	39.5
22	홍성 남장리 유적	2호 토광묘	80-234	Aa가1	27.5	12	8.5	36.1
23	천안 두정동 유적	2호 주거지	8-2	-	-	-	-	18.5
24	공주 산의리 고분	19호 석실묘	186-1	Aa가1	26.6	8.1	5.8	26.4
25	서천 봉선리 유적(충남역사)	3-I 1호 석실묘	271-1	Aa가1	26.2	9.8	7.1	38.4
26	서천 봉선리 유적(충청)	3-9호 석곽묘	74-1	Aa가1	-	-	-	-
27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	II-2호 수혈유구	47-3	-	-	4.4	-	-
28	부여 가탑리 백제유적	2ws Tr.	68-1	Aa가1	29.5	11.3	8.9	36.4
29	부여 궁남지	동서수로 II-1	11-1	Ca가1	-	-	4.0	17.9
			11-2	(Ca가1)	26.3	8.7	5.7	26.7
30	부여 능산리사지	북편건물지1	26-1	Ca나2	20.9	8.7	6.7	20.9
		북편 중앙수로	119-1	Aa가1	-	9.8	7.5	36.0
31	부여 구아리 361유적	수혈	46-11	-	-	-	-	-
32	계룡 입암리 반촌말 유적	2호 석곽시설	32-1	-	-	7.6	6.0	-
33	익산 미륵사지	12호 건물지	-	Cd나1	18.7	7.8	6.2	26.8
34	익산 모현동 2가유적	내장지구 2-11호 수혈유구	90-24	-	-	8.0	7.9	-
35	군산 산월리 유적	2호분	31-89	Aa가1	25.0	11.8	7.6	35.8

			31-90	Aa가1	28.3	9.9	6.7	37.9
36	김제 연정동 유적	연정동 수혈유구	154-238	-	-	-	4.4	24.5
37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나2구	34-4	Aa가1	24.5	12.0	8	32.0
		나3구	34-5	Aa가1	22.0	11.4	6.9	27.9
38	전주 마전 유적	3호분 1호 석실묘	69-112	Aa가1	19.5	9.0	6	24
39	전주 찰방 유적	8호 원형 수혈유구	17-24	-	-	-	-	-
40	전주 원만성 유적	1호 원형 수혈유구	277-438	-	-	-	-	-
41	완주 상운리 유적	라-3호 분구묘 4호 목관묘	102-317	Aa가1	24.7	13.6	9.2	38.7
		다-1호 분구묘 주구	172-522	Aa가1	22.9	9.3	6.7	29.7
42	임실 도인리 유적	1호 기타유구	84-2-05	Aa가1	-	-	-	25.8
43	고창 중월리 고분군	151호 구	19	Aa가1	-	-	-	46.4
44	고창 봉덕 유적	가-구1	32-112	Bb가2	15.3	-	3.9	13.4
45	광주 동림동 유적	151호 구	258-2224	-	-	6.4	5.6	-
		60호 구	120-268	-	-	-	-	-
		101호 남서구	215-1710	-	-	-	-	-
		141호 구	253-2132	-	-	-	4.4	13.3
46	광주 하남동 유적	5호 구	6-1	Bb가2	14.3	9.4	3.1	10.0
47	광주 산정동 유적	9호 방형 건물지	298-311	Bb가2	13.5	-	4.1	11.5
48	광주 향등 유적	6호 주거지	140-69	-	-	-	-	-
49	광주 선암동 유적	1-2호 구	571-331	-	-	-	-	-
50	함평 월계리 석계고분군	90-4호분	13-7	Cc가1	21.5	6.5	4.4	26.5
51	나주 반남 고분군	신촌리 9호분 기관	32-4	Ca가1	24.2	8.5	6.3	26.8
52	나주 영동리 고분군	1호분 1호 석실묘	24-3	Ba가1	17.3	6.8	3.8	17.5
53	나주 장등 유적	8호 수혈유구	301-982	Bb가2	-	-	3.6	11.6

54	영암 만수리 고분군	2호분 1호 옹관묘	12-3	Bb가2	15.3	-	3.4	13.4
55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1-14호 석곽묘	54-84	Ca가1	22.4	9.6	5.9	29.2
56	해남 용두리 고분	고분	24-93	-	-	-	-	-
57	울릉도 천부리 고분군	2호분	-	Cd나1	12.3	4.2	3.9	16.4
58	울진 덕천리 유적	C구역 토광묘 1-1	11-1	Cd나1	18.7	6.5	4.6	21.9
59	상주 서원리·지사리 유적	나-3호 석곽묘	17-5	Ca나2	14.2	5.8	4.2	15
60	상주 청리 유적	H-가구역 7호 석실분	16-9	Ca나2	19.7	5.9	4.5	18
61	구미 도중리 유적	19-A-5호 건물지	361-2	-	-	8.8	6.6	-
62	구미 봉산리 2유적	퇴적층	133-4	-	-	8.9	6.2	-
63	대구 유천동 103유적	E-3호 주거지	113-279	Ca나2	9.3	4.7	3.0	9.3
64	달성 성하리 유적(대동)	137-2호분	52-1531	Aa가1	17.1	6.5	4.6	18.9
65	달성 성하리 유적(삼한)	부석	84-121	Cc나1	27.6	8.8	7.6	35.8
66	영천 화남리 유적	131호 석곽묘	469-2068	Aa나2	22	10.9	8.4	26.8
67	포항 인덕동 유적	11호 석곽묘	74-2	Ca나2	18.9	12.9	7.9	27.1
68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A-16-4호 수혈	163-555	-	20.3	10.5	6.8	24.0
		A-32호 수혈	219-798	-	-	12.21	8.7	-
69	경주 금령총	적석목곽분	74-2,3	Ca나2	14.7	10.0	7.9	14.5
70	경주 금관총	적석목곽분	5-2	Aa나2	19.7	10.8	7.8	30.3
			5-3	Aa나2	20.6	10.6	8.1	25.1
			5-1	Aa나2	22.3	11.8	9.1	27.5
71	경주 노서동 181-24번지 유적	3호건물지TR3	23-106	-	-	-	-	-
72	경주 천마총	적석목곽분	128-12	Aa나2	14.2	8.5	6.3	19.5
			128-13	Aa나2	12.1	5.7	4.3	16.5
73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 유적	Tr.	84	Cc나1	15.5	4.9	2.8	14.8

74	경주 신라왕경 유적	제8가옥	64-634	-	-	-	-	-
		-	-	Cc나1	-	-	-	-
75	경주 황룡사지	-	-	-	16.9	-	4.9	-
76	경주 안압지	-	도판)83	Cc나1	-	-	-	-
77	경주 재매정지	5호 우물	79	-	-	-	6.5	-
		습지채토장	170	Cc나1	21.8	6.2	4.6	-
78	경주 천관사지	D구역 1호 건물지	157	-	-	-	3.3	-
79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	1호 석곽묘	26-5	Aa나2	20.7	11.7	7.4	24.9
80	경주 경마장 C-I 지구 유적	1-15호 석실분	16-7	Aa나2	26	15	9.9	30
81	경주 방내리 고분군	21호 적석봉토분	30	Aa나2	20	11.6	9.2	28
		44호 적석봉토분	97-3	Aa나2	20.3	12	8.6	26.6
		44호 적석봉토분	97-4	Aa나2	20.5	11.4	8	26.9
82	경주 부지리 유적	16호 석곽묘	39-156	Ca나2	20	12.1	9	19.3
83	경주 화곡리 유적	I-자연수로1 B Pit 9층	318	-	-	8.2	6.5	-
		I-자연수로1 D Pit 9층	318	Cd나1	12.1	4.2	3.2	17.2
		II-자연수로2 A Pit 10층	444	-	-	9.0	7.4	-
		II-자연수로2 A Pit 12층	304	-	-	8.7	8.3	-
		II-자연수로2 A Pit 12층	317	-	-	11.5	9.8	-
84	경주 노곡리 유적	1-구상유구	25-42	-	-	-	4.4	-
85	청도 송읍리 유적	1호 석실묘	64-6	Cc나1	11.6	4	2.9	13.8
86	울산 하삼정 고분군	51호 석곽묘	127-1	Aa나2	19.3	11.1	9.2	30.5
87	울산 양수정 유적	2호 건물지	12-3	-	-	-	4.5	18.3
88	울산 처용리 유적	나-22호 목곽묘	34-12	-	-	10.3	8.4	26.5
89	울산 어음리 유적	적석유구	16-1	-	-	-	3.6	-

90	울산 상천리 유적	10호 수혈	21-8	-	-	-	-	-
91	울산 산하동 유적	C-7호 석실묘	160	Ca나2	24.5	11	9.2	33.8
		C-8호 석실묘	173	-	-	-	-	31
		C-9호 석실묘	179	-	-	14	11	-
		C-124호 석곽묘	43	-	-	-	7.7	21.8
92	울산 연암동 산성	우물 상부	30-226	-	-	-	-	-
93	울산 약사동·북동 유적	128호 석곽묘	304-1526	Aa나2	20	10	7.2	26.8
94	울산 복산동 손굴유적	Ⅱ-23호묘	480-502	Cd나1	18.9	5.1	4.1	24.1
95	울산 화산리 고분군	21호분	45-1	Aa나2	-	-	-	-
96	합천 반계제 고분군	다A호분	87-1	Ca나2	20.5	9.4	8	23.5
			87-2	Ca나2	20.2	9.7	8.1	22.8
97	산청 옥산리 유적	253호분	115-495	Ba나2	12.3	5.5	3.3	12.5
98	진주 정촌 유적	71호 수혈주거지	103-7	-	-	10.3	8.4	-
99	창원 현동 유적	7호 토광묘	-	Ba나2	10.4	4.7	2.9	9.6
100	양산 신기동 건물지	I-6호 건물지	26-10	-	-	9.3	8.2	-
101	김해 봉황동 유적	27호 정	173	-	-	-	-	22.8
102	인제 부평리 유적	37호 주거지	286	-	-	-	5.7	23.0
103	춘천 근화동 유적	석군	413-1081	Aa나2	26.7	13.2	9.7	24.9
104	강릉 병산동 고분군	13호 석곽묘	50-2	Aa나2	-	-	4.7	17.1
105	제주 용천동굴	·	도판)34	Cc나1	-	-	-	-
			도판)33	Aa나2	-	-	-	-
			도판)32	Cc나1	-	-	-	-
			도판)35	-	-	-	-	-
			도판)33	-	-	-	-	-
			도판)36	-	-	-	-	-